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청년생활



1
1955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청년생활

제1호 (64)
1955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제一호 내용

사설

모든 힘을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기한전 완수를 위하여

전체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복구와 건설에서의 거대한 성과로써 一九五四년을 총화하고 찬란한 전망과 행복 속에 새해를 맞이하였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령도하에 우리 인민이 一九五四년에 이룩한 정치、경제、문화 각 방면에 걸친 성과는 실로 거대하다。

인민 경제의 거대한 앙양을 예견하였던 一九五四년도 공업 부문의 계획은 빛나게 초과 실행되였다。 기본 건설의 급속한 촉진으로 一二○여개소의 기업소들이 건설 복구 또는 확장되여 조업을 개시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농산물의 증수와 가축 두수의 현저한 증식을 보았으며 협동 조합들이 확대 강화되였다。

인민 경제의 전반적 앙양과 함께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도 급진적으로 향상되였는바 지난 해에 인민 소득은 一九五三년에 비하여 四○%나 증가되였다。

국내의 정치、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거대한 승리를 달성 했다。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전 민족적 투쟁 과정에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 단결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공고화 되였으며 공화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위력은 일층 강화 되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 위신은 무한히 제고되였다。

비록 지난 해에 조선 인민의 최대의 념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의 위업을 최종적으로 성취 하지는 못하였지만 그의 투쟁에서 우리는 거대한 전진을 달성하였다。

이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쟁취하는 튼튼한 기초로 되며 미 해방 지구 인민들에게 거대한 고무적 힘으로 될뿐만 아니라 나가서 세계 평화 유지 및 공고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난 해에 우리가 이룩한 거대한 승리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시책의 정당성과 우리 나라 인민 민주 제도의 강력한 생활력을 확증해 준다。이 거대한 승리는 우리 인민의 애국적 창조적 로력의 빛나는 결정이며 또한 위대한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 및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 인민들의 사심 없는 형제적 원조의 결과이다。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여 전체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조선 로동당과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에게 최대의 감사와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그의 정책 실천에 자기들의 모든 정력과 재능과 창발성을 발휘 할 것을 엄숙히 맹세하고 있다。

동시에 형제적 우방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리고 있다。

一九五四년을 빛나는 승리로써 총화한 우리들은 앞날의 보다 큰 승리를 확신하면서 새해의 첫 발자욱을 튼튼히 내디디였다。

一九五五년을 맞이하는 우리 인민 앞에는 실로 거대한 정치、경제적 과업들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 조선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최고의 민족적 과업은 조국의 조속한 평화적 통일이다。 조국의 분렬은 조선의 정치、경제、문화 발전에 대한 막대한 손실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조선 사람의 개인 가정 살림에 까지도 커다란 불행을 가져오고 있다。 오늘 남반부 인민들의 생활은 미제와 리승만 도당들의 침략 정책과 반인민적 망국 정책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도탄에 빠지고 있다。

해방 一○주년을 미구에 맞이하는 오늘 조선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의 분렬보다 더 큰 불행은 없으며 조국의 분렬을 이 이상 더 참을 수는 없다。

때문에 전체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조국 통일을 견결히 요구하고 있으며 그의 실현을 위해 거족적 투쟁에 궐기하고 있다。

이 위업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오직 우리의 민주 기지를 일층 강화해야하며 그의 물질적 기초로 되는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있게 실천해야한다。

최근 공화국 내각은 지난 해에 달성한 복구 건설에서의 승리적 성과에 기초하여 一九五五년 계획을 채택하였다。 계획은 공업과 함께 농업을 발전시키는 원칙으로 부터 출발하여 공화국의 경제적 위력과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 방대한 과업을 규정하고있다。

계획은 우리의 공업 총 생산고가 금년에 전전 수준을 一五九・五%로、三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一九五六년 수준을 一○二・四%로 증가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이 계획의 실현은 우리 나라 산업에서 일제 통치가 남긴 악독한 식민지적 편파성과 전쟁 행정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시정하고 우리 나라 공업화의 기초를 닦아 놓게 될 것이다。

계획은 공업과 함께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킬 방대한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계획은 인민 생활 향상을 최고 법칙으로 하는 당의 배려로 일관되였었다。

전망 찬란한 三개년 계획—이는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업을 승리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근로자들은 필승의 신념에 가득차 있다。 우리에게는 당과 경애하는 수령의 영명한 령도가 있고 위대한 쏘련을 비롯한 중화 인민 공화국과 형제적 나라 인민들의 사심 없는 경제 기술적 원조가 있고 우리가 투쟁에서 축적한 고귀한 경험과 우리 인민의 창조적 열성이 있다。

바야흐로 一九五五년도 계획 기간 단축을 위한 근로 청년들의 기세는 료원의 불길처럼 공화국 방방곡곡에 퍼지고 있다。 성진 제강소의 로력 영웅 안상조 동무는 자기의 三개년 계획을 一년 五개월간 단축하여 실시할 것을 결의하고 있으며 평양 방직 공장의 로력 영웅 김봉례 동무는 금년도 생산 계획을 四월말에 완수할 것을 결의하고 나섰다。이 밖에도 수 많은 근로 청년들이 자기의 년간 계획을 기간 전에 완수할 수 있다는 확고한 결의를 계속 표명하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一九五五년—이해는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기간 단축 실행하기 위한 결정적 투쟁의 해이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이 영광스러운 과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여야 하겠는가?

당과 경애하는 수령께서는 우리 나라 청년들이 경제 복구건설 투쟁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렬한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완강한 전투력과 창발성은 청년들의 특성이며 근면과 검박과 절약은 조선 청년들의 전통적 미풍이다.

청년들은 당과 경애하는 수령의 뜨거운 부름을 받들어 도처에서 애국적 증산 경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며 특히 금년에 맞이하는 민족적 명절 八·一五 해방 一〇주년의 영광스러운 날을 거대한 로력적 앙양으로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은 순시도 긴장성을 해이함이 없이 원쑤들의 행동을 날카롭게 주시하며 그들의 파괴 암해 행동을 미연에 적발 폭로하여야 할 것이다.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 기간 단축 실행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되는것,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이다. 그러나 기술이 없이는 로동 생산 능률 제고는 기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로동 청년들은 완강하게 기술을 배우며 기능 급수를 부단히 높이며 자기 기대에 정통하며 창의 고안의 선구자가 되며 매일 매시각 자기의 생산 활동에서 혁신을 일으킬 것이다.

동시에 로동 청년들은 절약과 축적 내부 원천의 합리적 동원을 위한 투쟁에서 창발성과 적극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새해에 우리 나라 농민 청년들 앞에도 거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력사적인 로동당 중앙 위원회 一一월 전원 회의는 농촌 경리의 복구 발전을 위한 거대한 과업을 제기하면서 一九五五년도 알곡 총 수확고를 三개년 계획에 예견된 기본 계획 三二〇만톤으로부터 三六〇만톤으로 증가시킬 임무를 우리 앞에 제시하였다.

농민 청년들은 이 영예로운 전 당적 전 인민적 과업 수행에 있어서 선진 영농 기술과 다수확 농민들의 경험을 광범히 도입 적용하는 선구자로 반드시 나서야 할 것이다.

영웅적 조선 인민 군대내 청년들은 전투 정치 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자기 무기와 군사 기술에 정통하며 혁명적 경각성을 견지하고 원쑤들의 도발 행동을 어느때나 분쇄하여 평화적 조국 건설을 튼튼히 보위할 수 있도록 준비되여 있을 것이다.

학생 청년들은 과학 기술을 더욱 깊고 넓게 련마하며 학과 성적을 전반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조국 건설의 훌륭한 일군으로 자체를 준비시킬 것이다.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 실천을 위한 투쟁에서 민청원들의 역할 여하는 민청단체들의 정치 조직 사업 여하에 달려 있다. 민청단체들은 자기 사업에서 일체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반대하며 집체적 협의를 강화하며 민청내 민주주의를 적극 발양하며 청년들 속에서의 정치 교양 사업의 사상적 내용을 더욱 높이여 三개년 계획 실행에 궐기한 청년들의 애국적 열성을 적극 조직 동원할 것이다.

특히 민청 단체들은 금년에 소집될 의의 깊은 민청 四차 대회를 계기로 자기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자기 대렬을 규률있고 생기발발한 전투적 부대로 일층 결속 강화함으로써 당의 전투적 후비대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감당할 것이다.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기간 단축 실행을 위한 투쟁은 一九五五년 새해에 있어서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가장 중대한 과업이다. 우리의 투쟁 임무는 간고한 것이나 비할바 없이 영예로운 과업이다. 조선 청년들의 전망은 광명하며 그의 의지는 확고하다.

전체 공화국 남녀 청년들이여!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 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하여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기한 전 완수를 위하여 더욱 용감하고 확신있게 전진하자!

로동당의 지도는 민청의 힘의 원천이다

민청 중앙 위원회 부 위원장 김 기 수

一、민청은 로동당의 령도하에 영광스러운 전투적 길을 걸어 왔다

조선 로동당의 충직한 방조자이며 전투적 후비대인 민주 청년 동맹이 창건되여 九주년이 된다. 민청원들과 전체 청년들은 자기의 九년간의 전투적 행로를 긍지 높이 회고한다. 민주 청년 동맹은 창건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령도하에 당의 충직한 방조자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영예롭게 감당하여 왔다.

민청은 위대한 쏘베트 무력에 의하여 우리 인민이 일제 통치 기반으로부터 해방된 후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과 민주 기지 창설을 위한 로동당의 정치 로선을 실현함에 있어서 당을 충직하게 방조하였다.

민청은 인민 정권을 공고 발전시키며 민주 개혁을 실시하고 인민 경제를 부흥 발전시키는 전 인민적 투쟁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평화적 건설 시기에 있어서의 민청의 역할과 그 업적에 대하여 경애하는 수령은 민청 제三차 대회에서의 자기 연설에서 『동무들이 공헌한 업적과 쟁취한 승리와 성과들은 언제든지 잃어지지 않고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의 력사에 길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높게 평가하시였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 역도들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三년여의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민주 청년 동맹과 그의 맹원들은 『모든 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당과 수령의 호소를 받들고 전선과 후방에서 자기의 모든 력량과 헌신성을 다하여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민청은 수 만명의 우수한 맹원들을 인민 무력에 제공하였다. 인민 군대 내에서 민청은 당 단체와 지휘관의 충직한 방조자로 있었다. 젊은 군무자들은 당과 조국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대중적 영웅주의와 헌신성의 모범을 발휘하여 조국의 자유 독립과 영예를 영광스럽게 수호하였다.

민청은 후방을 공고히하며 전선을 원호하는 운동에서 당의 적극적 방조자였다. 적의 야수적 폭격의 조건 하에서도 청년 로동자들은 기대를 떠나지 않고 온갖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헌신적 로력과 창의 창발 운동으로 군수품과 인민 생활품을 증산하였다. 젊은 수송전사들은 어두운 밤이나 빗발치는 적탄의 화염 속에서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시 수송을 영웅적으로 보장하였다.

민청은 농촌에서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며 전선의 승리를 위한 투쟁이다』란 당과 수령의 호소를 실천하는 투쟁에서도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했다.

영웅적 복구대 활동, 경각성 높은 향토자위 사업, 적들의 제균 만행을 분쇄한 위생 방역 투쟁, 전시의 전 인민적 절약 운동, 인민 군대와 중국 인민 지원군 부대들에 대한 따뜻한 원호

동 전쟁의 승리에 기여한 우리 인민의 이 모든 용감하고 강의한 활동 속에는 민청원들의 불멸의 공적도 포함되여 있다。 四六○여명의 젊은 영웅들、六○만을 초과하는 젊은 국가 수훈자들의 대렬이 이에 대한 명백한 실증이다。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력사적 승리를 쟁취한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장엄한 평화적 복구 건설에 들어섰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의 과업은 피로써 사수한 민주 기지를 강화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며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을 급진적으로 향상시킬 방대한 계획이다。

민주 청년 동맹은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의 첫 계단에 당과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광범한 청년대중들을 생산 직장、건설장에로 진출시키는 사업을 조직하였는 바 전후 첫 두달 동안에만 이에 자각적으로 참가한 청년은 三만六천여명에 달하였다。

청년 로동자들은 애국적 증산 경쟁운동에 대중적으로 참가하였다。 특히 一、五○○여개의 청년 작업반、七○개에 달하는 청년직장 민청갱、수백개에 달하는 민청호 명칭을 띤 기계、기관차들은 빛나는 생산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七월에 소집된 전국 청년 열성자 대회를 계기로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애국적 헌신성과 창의 창발 운동은 더욱 높은 계단으로 발전하였다。

수 많은 로동 청년들과 청년 작업반들이 자기들의 년간 계획을 수개월간씩 단축하여 초과 완수하였다。

청년들은 경쟁 운동의 행정에서 기계 무사고 운동、무결근 운동、로동시간 합리화 운동 등 창발적 운동을 전개하여 전체 기업소의 질서 확립과 증산에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당과 수경애하는 수령은 민청원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솔선 담당 수행하는 강의하고 용감한 투사가 될 것을 요구하면서 공업 발전과 인민 생활에 긴요한 석탄 증산에로 청년들의 진출을 불렀다。 함북、평남、함남도 민청 단체들에서 단시일에 수 천명의 청년들이 탄광에로 진출하여 힘든 갱내 작업을 담당하여 굴진공、채탄공、지주공으로 믿음직하게 로력하고 있다。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를 위한 군중적 운동을 조성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얻게 되였다。 작년 三・四분기간에만 七、六○○여명의 청년들이 새로 기능공으로 되였으며 一만여명의 청년들은 각각 자기의 기능 급수를 한급 이상씩 높였다。 三・四분기에 청년 로동자들은 五七○여건의 생산 합리화 제의와 창의 고안을 하여 국가에 막대한 리득을 주었다。 민청은 도시 복구 건설 사업에서 당과 정부의 지시를 충실히 집행하였다。 평양시 복구 위원회 결정을 받들고 지난해 七―八월간에만 민주수도의 대학、전문 학교 학생 및 일반 청년 연 二三만 三、七○○여명이 동원되여 김일성 광장、쓰딸린 거리、모란봉 운동장、모란봉 공원 건설、륜환선 설치 공사 등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평균 一二四% 이상의 로동생산 능률을 제고하였다。 인민군대 젊은 장병들도 민주 수도 복구 건설에서 영웅적 로력 위훈을 세웠다。

전후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발전을 위한 전 인민적 투쟁에서 민청원들의 창조적 로력 공훈이 막대하다。 전후 一○개월간에만 청년들은 농경지、소하천 복구 건설 공사에 연 一○○만 로력일을 제공하였다。 이 기간에 평남도에서는 청년들의 힘으로 二、四二四정보의 땅을 쟁취했으며 평북도에서는 一八만 七、三○○메터의 제방을 수축하였다。

민청 중앙 위원회는 지난해 봄에 二천정보의 면적에 一억二천만본의 식수를 인민군、내무기관、학생들을 제외한 민청원들의 힘으로 실시할 것을 내각으로부터 위임받았다。 이 운동에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리하여 연 八九만 四、二○○여명의 로력이 동원되여 식수 면적은 계획의 一四七・八%、식수 본수는 一五○・九% 초과 달성하였다。

민청 각급 지도기관들의 결산―선거를 계기로 청년들의 로

력적 및 정치적 열성은 더욱 비등되였다。 오늘 신년을 맞이하여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기한 단축 실행을 위한 투쟁에 더욱 창조적인 로력 위훈으로써 참가하고 있다。

민주 청년 동맹이 창건 후 九년간 국가 경제 건설 사업에 바친 거대한 활동의 행정은 민청의 정치 조직적 공고화의 시기로 된다。 민주 청년 동맹은 건설과 로력과 난관과의 투쟁 행정에서、원쑤와의 피어린 전투 속에서 일층 공고화되였다。

민청은 三만여개의 초급 단체에 一○○여만 청년들을 단합한 전투적 부대로 장성 강화되였다。 이 대렬에서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로동당원의 숭고한 품성을 배워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당과 수령에의 충직성、원쑤에 대한 증오、뜨거운 동지애、조직성과 규률성、용감성과 인내성 등 훌륭한 품성을 갖춘 새 인간들로 믿음성 있게 단련 육성되여 가고있다。

민청은 또한 자기의 후비대인 소년단에 一二○여만의 아동들을 단합하여 미래의 젊은 애국자들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주의깊게 배려하고 있다。

민주 청년 동맹은 이리하여 지난시기 수一○만명의 우수한 민청원들을 당원으로 추천하였는 바 다만 당 중앙 위원회 제四차 전원회의가 있은 후 민청의 추천과 보증에 의해서만도 一一만명을 영광스러운 로동당에 보냈으며 소년단으로부터 三차대회 이후 시기에 五○여만명을 보충 받았다。

민주 청년 동맹은 대외 활동과 청년들의 국제주의적 교양면에서도 귀중한 성과를 얻게 되였다。 민청 제三차 대회 이후 시기만 하여도 민청은 五○七명의 청년들을 세계 민청 축전 및 국제 대회들과 기타 청년 학생들의 국제적 집회들에 파견하였으며 또한 쏘련、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형제적 제국가들、세계 민청 대표단 및 미국、불란서、독일 등 九개국의 청년 대표 二二一명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청년들간의 친선적 국제 교류는 우의와 단결에 기여하였다。

민주 청년 동맹은 이와 같이 당의 전투적 후비 및 적극적 방조자로서 九년의 길을 걸어왔다。

오늘 민청은 당과 수령이 위임하는 어떠한 어렵고 중대한 과업일지라도 이를 능히 감당하여 완수할 수 있는 전투적이며 조직된 대오로 성장하고 있으며 자기의 영예로운 임무 수행을 위하여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

二、로동당의 지도는 민청의 힘의 원천이다

민주 청년 동맹의 탄생과 발전、그 성과와 업적들은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이름과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민청은 당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그의 령도 하에 빛나는 성과들로 가득찬 전투적 행로를 걸어왔다。

벌써 一九四七년 二월 七일 당 중앙 위원회 결정에는『청년운동이 그 나라 정치 동향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면서『민청 사업에서 당의 로선을 관철시키며 청년 군중 속에 당의 영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들에 대한 민주주의 교양 사업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당 대회들과 당 중앙 위원회들에서는 민청의 활동、청년들의 로력과 교양에 대한 문제들이 중요하게 토의되였다。

一九五○년 三월 二四일 당 중앙 위원회 결정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당의 령도 하에 민청의 자체 조직을 규률 있고 훈련된 전투적 부대로 강화하며 전체 청년들을 새로운 과학과 새로운 세계관 맑쓰―레닌주의로 교양하며 그들로 하여금 우리 당의 조국 건설의 강령인 국토 완정과 민주 건설을 실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모범적 선진 돌격 부대가 되도록 할 것이다』 당은 이와 같이 민청 사업과 청년들의 교양에 끊임 없는 배려를 돌리고 있으며 조국과 당과 인민을 위한 옳은 투사가

되라고 고무하고 있다。

당은 민청을 지도함에 있어서 항상 창발성을 지지하고 발전시키면서 필승의 길로 인도한다。 당은 민청 대렬을 전투적 부대로 결속시키며 청년들 속에서의 정치 조직 사업의 방향과 방법을 가르치며 민청 열성자들이 선진적인 맑쓰—레닌주의로 무장하며 민주주의적 사업 작풍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당은 민청 사업의 결함과 과오를 제때에 지적하여주며 시정하도록 충고한다。 당은 항상 청년들의 특성과 요구와 흥미를 주의 깊게 고려하며 그들의 애로를 해결해주며 창발적 제의를 지지 발전시킨다。

당중앙 위원회는 위대한 조국 해방전쟁 시기 민청 중앙 위원회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의 성과 및 심중한 결함들을 지적하고 민청사업 발전을 위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一九五二년 九월 一일 당 중앙 위원회 결정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민주 청년 동맹은 청년들을 선진 과학 지식과 맑쓰—레닌주의 사상과 고상한 국제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며 조국과 당과 수령에게 충직하며 어떠한 애로와 난관이라도 타개할 줄 아는 대담하고 영활한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의식을 배양할 것이다』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이 승리로써 결속되자 당과 경애하는 수령은 우리 나라 전체 청년들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에로 부르면서 당 중앙위원회 제六차 전원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민청 단체들은 당의 지도 하에서 정전 후 우리 앞에 제기되는 복구 건설의 거대한 정치적 및 경제적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로동 계급과 청년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을 일층 강화함으로써 전체 로동자들로 하여금 공업의 각 분야에서 로력적 위훈을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

민주 청년 동맹은 자기의 힘의 원천이며 사업 성과의 담보인 영광스러운 로동당의 지도를 받는 것을 무쌍의 영광과 영예로 인식하며 당의 지도 속에 자기 사업을 부단히 개선 발전시키고 있다。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지도 하에 민청은 통일적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 건설과 평화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시기와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및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전 인민적 투쟁 대렬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고귀한 성과들을 쟁취하고 있다。

三、로동당의 지시 실천은 민청의 가장 영예로운 임무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민청은 자기 사업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조국의 현 정세와 우리 당과 국가가 요구하는 전 인민적 과업에 비추어 볼 때 초보적 성과에 불과하다。 우리들 앞에는 더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

목전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과업은 조국의 조속한 평화적 통일 독립이며 그 승리의 담보인 민주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이다。

민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기의 조직적 력량을 총동원하여 一九五五년 인민경제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한 투쟁에로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조직 동원하는데 있다。

민청 단체들과 민청원들은 인민 경제 계획의 법적 의무성을 철저히 인식하며 자기의 력량을 당이 요구하는 처소에 집중적으로 합리적으로 동원하여 직맹과 협동하여 생산에 더욱 의식적으로 파고 들어가 혁신을 일으키며 병집들을 적발 제거함에 적극적인 역할을 놀아야할 것이다。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을 애국적 증산 경쟁 운동에서 돌격대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우선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즉 생산행정의 기계화、로력 조직의 합리화、로력 기준량의 정확한 사정과 도급제의 광범한 적용、로동자들의 문화—기술 수준의 계통적 향상과 생활 조건의 개선 등에 부단히 배려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현저히 제고시키도록 고무할 것이다。

민청 단체들은 로력 조직과 작업 시간의 합리화、원료、연료、자재、전력의 합리적 리용、비생산적 지출의 축소、내부 원천의 꾸준한 탐구 리용、제품의 질 제고와 오작품 퇴치를 위한 투쟁、그리고 산업、운수、건설장에서 일체 랑비를 반대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절약 운동을 강력히 경쟁적으로 전개하는데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애국적 운동에서는 청년직장、청년갱、청년 작업반、민청 돌격대들이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새 해는 건설 분야에서도 새로운 앙양의 시기로 된다。 민주수도 평양시를 비롯하여 조국의 도시와 전야는 더욱 우람차게 일어설 것이다。 민청 단체들은 건설의 속도와 질을 보장함에 청년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 것이다。

민청 단체들은 당 중앙 위원회 一一월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농촌 경리의 금후 새로운 앙양을 위한 당의 정책을 충실히 집행함에 중요한 력량을 돌려야 한다。 매개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다수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여 새로운 선진 영농 방법을 도입하는 군중적 운동을 전개하며 토지를 복구하며 관개공사、식수 조림 사업、하천 공사 등에 애국적인 집단 로력을 동원하며 호상 원조、유무상통의 미풍으로 무축 농가를 급속히 퇴치하여 집집마다 가축、가금을 사양할 군중적 운동의 발기자가 되여야 할 것이다。

민청단체들과 민청원들은 반드시 국가 농목장 사업을 열성적으로 방조하여 그로 하여금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발전에서 선구적 모범으로、대규모적 농업 경영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학교로 되게 하여야 한다。

민청 단체들과 민청원들은 협동 경리의 우월성을 계속 해석 선전하며 광범한 청년들을 인입하며 조합내 청년들이 조합 생활의 기본인 규약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조합의 공공재산을 확대 강화하며 협동 경리의 민주주의적 관리 제 원칙이 원만히 실현되도록 함에 적극 방조해야 한다。

우리가 국가 경제 건설에 참가하여 자기의 높은 성과를 올리자면 청년들 속에 선전 선동을 내용있게 진행해야 한다。

민청단체들은 청년 군중들 속에서 사상 정치사업을 과소평가하려는 일체 현상을 허용치 말며 정치 학습의 수준과 규모를 당이 제기하는 과업의 수준에로 이끌어 올려야 한다。

청년들을 로력과 건설을 통하여 교양하며 어렵고 힘든 일을 솔선 담당 수행하는 강의한 의지로 무장시키며 안일성을 배격하고 혁명적 경각성과 긴장성으로 또한 나라의 주인답게 명랑하고 활달한 인간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민청은 청년 교양에 있어서 군중 문화 사업의 수준 제고에 깊은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문화 계몽 기관들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독서 기풍을 계속 조성하고 예술 써클 도서실、구락부、민주 선전실들의 사업 개선을 실질적으로 방조해야 한다。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을 로력과 국방에로 준비시키는 체육、쓰포쯔 사업의 군중화에 자기의 력량을 더욱 효과 있게 동원하며 인민 체력 검정에 모두다 합격하도록 일상적 준비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민청 앞에 제기되고 있는 거대한 과업의 성과적 수행은 조직 정치 사업의 수준에 많이 달려 있다。

민청 각급 지도 기관들의 결산—선거를 통하여 민청 단체들은 정치 조직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였다。

그러나 우리의 사업 수준은 아직 현실의 요구와 당이 제기하는 과업보다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한다。

각급 민청 지도 기관 결산—선거를 계기로 민청원들의 정치적 열성은 비상히 제고되였다。

그들은 사업 개진을 위한 창발적 발기와 민청 사업에서의 참

을수 없는 결함에 대한 원칙적 비판과 귀중한 신소들을 제기하였으며 민청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려는 열망을 표시했다。

민청 각급 단체의 새 지도 기관들의 첫 임무는 자기의 지도 수준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

민청 지도 기관 사업에 가장 깊이 뿌리 박은 결함의 하나는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이며 결정에 대한 실제적 집행의 불합리한 조직이며 그 검열의 결핍이다。

이 부정적인 병적 현상을 하루 속히 근절해야 할 것이다。

사무실에 앉아서 하부 실정에 맞지 않는 수다한 결정 지시를 채택하며 준비 없는 많은 회의조직과 문서 보고를 요구하며 신소와 제의를 묵살하며 산 지도 없이 욕설과 추궁을 일삼는 그런 사업 작풍들은 우리에게 막대한 해독을 주고 있다。

민청일군들은 실지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현장에서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지도를 주며 애로와 난관을 청취 해결하며 움트는 새 싹과 창발성을 지지 발전시키며 낡은 것을 제때에 적발 시정시켜 주는 그런 사업에 주되는 력량을 집중적으로 돌려야 한다。

민청 단체들의 사업 성과는 집체적 협의제 원칙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한다。 이를 위반한다면 민청의 위력과 그의 전투력은 약화되며 민청원들의 적극성과 자립성은 마비된다。 민청내 민주주의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오직 공개적이며 원칙적인 비판—특히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강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자기의 성과를 자고 자대하고 결함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밑으로부터의 비판적 지적을 귀치않게 인식하는 그런 자들과 우리는 조금도 융화하지 말아야 한다。

민청 단체들은 새로 선거된 민청 간부들의 무원칙한 조동을 결단코 반대하며 그들을 자기 사업에 고착시켜 주의깊게 인내성 있게 육성해야 한다。

민청 단체들은 초급 단체의 자립적 역할을 높이는데 일상적 주목을 해야한다。 자기의 구체적 환경과 실정에 적응한 사업을 창조적으로 집행하며 당과 동맹의 결정 지시를 제때에 전투적으로 실천하는 활동성 있는 초급 단체의 사업 수준에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민청 단체들은 또한 자기의 대렬을 부단히 애국적 청년 학생들로서 보충하며 신입 맹원 및 미조직 청년들에 대한 교양을 홀시하지 말아야 한다。

민청 지도 기관들의 조직적 지도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청 일군들의 리론 실무적 수준을 급속히 현저하게 제고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민청 일꾼들은 충실히 정력적으로 맑쓰—레닌주의를 학습하며 당의 문헌들과 수령의 로작들을 일상적으로 깊이 연구하며 그 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해 꾸준히 학습해야 한다。

현 시기에 당은 민주 청년 동맹이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서 적극적 방조자로서 역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은 자애로운 어머니와도 같이 항상 우리 청년들의 리해 관계와 요구와 희망에 깊은 배려를 돌리고 있으며 우리 세대들의 광활하고 양양한 발전을 위하여 온갖 조건들을 백방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당의 정책과 결정 지시—그것은 민주 청년 동맹의 전투적 강령이며 청년 교양의 기본 내용이며 매개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용기와 창조력을 샘솟게하는 힘찬 무기이며 우리를 행복에로 인도하는 빛나는 향도성인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당과 수령의 교시를 실천하는 것보다 더 영예롭고 행복한 일은 없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하여 앙양된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으로써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기한전 완수에로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미제는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제 1 회)

리 갑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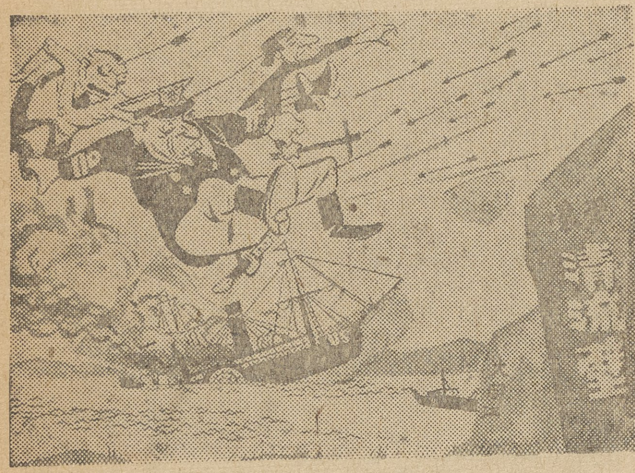
미 제국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조선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미국은 一九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북아메리카 대륙의 광대한 지역들에서 그 원주민들을 가장 중세기적인 야만적 방법으로 학살、예속시켰으며 린접국의 령토를 전쟁으로 병탄하고 다시 태평양을 건너 아세아로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미국의 아세아 침략의 마수는 一八六六년에 우리 조선에 미치게 되였다。

미제 략탈자들이 조선에 침략을 개시하였고 그를 반대하여 우리 인민이 영웅적 투쟁을 개시한 력사적 사건은 『샤만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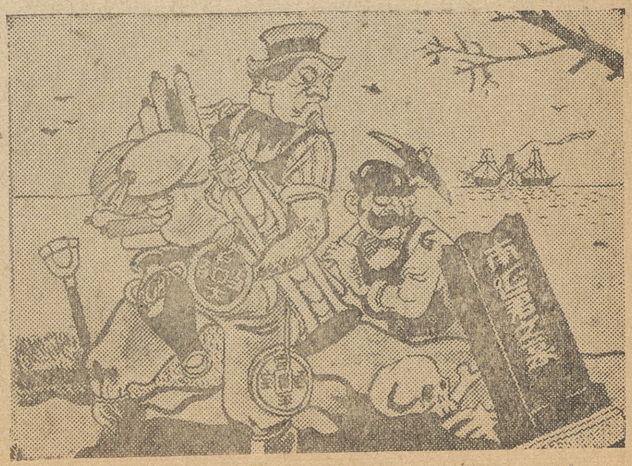
『샤만호』 사건



一八六六년 九월 미국의 무장선 『샤만호』는 비법적으로 대동강에 침입하여 총포를 란사하면서 인민들의 재산을 략탈하며 그들을 살해하는 등 갖은 만행을 다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독립을 침해하려 하였다。(『샤만호』에는 두문의 대포를 싣고 선주 뻬테스톤과 영국 선교사 토마스 등을 비롯한 二〇여명의 무장 인원이 있었다)

미국 강도배들의 이런 불의의 침략과 만행은 우리 조상들의 민족적 격분을 폭발시켰다。 격분한 우리 선조들은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조국의 영예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궐기하여 즉시에 원쑤들을 소탕하고 『샤만호』를 불살라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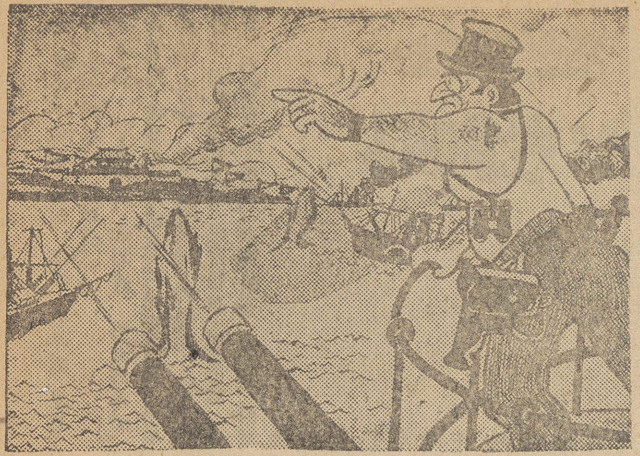
남연군 묘 도굴 사건



이 사건은 미국 상해 총 사령관 통역관인 미국인 젠킨스의 주장 아래 독일인 오벨트와 불란서 선교사 페론이 공모하여 감행한 세계에서 보기 드문 추악하고 파렴치한 강도 행위였다。

미국인 젠킨스는 대원군의 부친 남연군의 분묘를 도굴함으로써 그 관속에 들어 있는 보물을 략취하며 백골을 훔쳐다가 다시 조선 정부에 반환할 때에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밑에 강도배들은 六八〇톤의 배를 타고서 충청도 덕산까지 와서 밤중에 묘지를 발굴하였으나 미처 성공하지 못하고 인민들에게 발견되여 도망치고 말았다。

「신미 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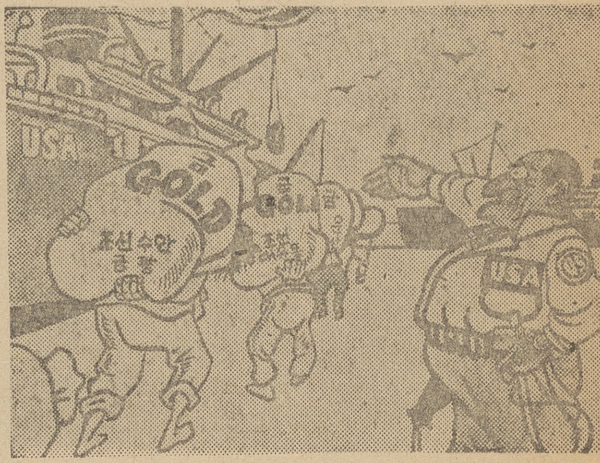


미제는 『샤만호』사건 이후에도 조선에서 침략의 마수를 떼려고 하지 않았다.

一八七一년 四월에 북경 주재 미국 공사 로우와 미국 아세아 함대 사령관 로제쓰는 五척의 군함과 六〇〇여명의 군대로 『조선 원정 함대』를 편성하여 가지고 강화도에 침입하였다.

강화도 요새에 대한 미군의 침공이 알려지자 나라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은 의용군으로서 전투에 참가할 것을 지원하여 나섰으며 전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원쑤에게 죽엄을 주기 위한 투쟁에 일어섰다.

그리하여 一개월간의 전투에서 그들은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물러갔다.



미제의 경제적 침략

一八八二년 미국은 여러 가지 기만과 강압으로써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미제는 조선에서 무역권, 명사 재판권, 최혜국대우 등 특권을 강제로 빼앗아 냈다.

그리하여 미제는 운산, 수안, 홀동 등 금광과 기타 화천, 강릉 광산 등의 채굴권과 철도 시설권, 전기 전신 수도 시설권, 마지막에는 산림 채벌권까지 탈취하였다.

놈들은 홀동 광산에서만도 조선 로동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여 하루에 二백톤의 금강석을 파내고 년산 一〇〇만톤에 달하는 재보를 략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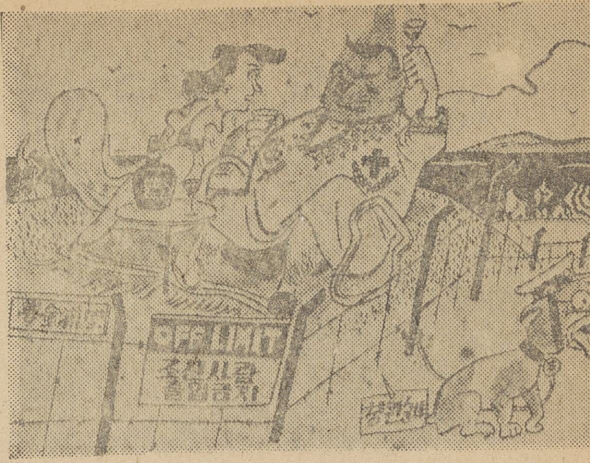


략탈된 로동력

미국놈들은 조선에서 헐값으로 인적 자원까지 미국으로 뽑아다가 혹독하게 착취하였다.

一九〇二년 동양 합동 광업 회사의 인천 주재 사원 『떠쉬러』는 개발 회사를 조직하고 하와이 사탕 재배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조선에서 기만적 허위 계약으로써 인민들을 인부로 모집하여 노예로 부려 먹었던 것이다.

一九〇二년부터 一九〇五년까지 四천 六백여 명이나 놈들에게 끌리여 갔는바 실로 조선 인부들은 사실상 감옥 살이와 같은 억울한 처지에서 비통한 생활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명승지들의 수탈

미제는 일제 통치하에서도 조선에서 가장 이름난 명승지들을 수탈하여 놈들은 조선 사람에게서 착취한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들을 하였다.

그중 미국놈들에게 점거된 조선의 명승지중 가장 이름난 것만 들어도 지리산의 별장 지대, 몽금포, 구미포 등 서해안의 해수욕장 지대, 원산 송도원 등 기타를 들수 있으나 그중 이곳에서 우리의 분개를 사는 것은 공공연하게 『조선 사람 출입 금지』란 간판을 내여걸어 조선사람을 모욕한 것이다.

미제와 로일 전쟁



짜리 로씨야를 침략할데 대하여 미제와 영국은 일본 군국주의를 그 앞잡이로 하였다. 결국 왜놈은 목숨을 바쳐서 싸울 것이며 미국과 영국은 그 뒤에 돈과 무기를 대여서 극동에 있어서 그들 제국주의 경쟁에 있어서 공동의 적 짜리를 타도하자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이였다. 그리하여 이 전쟁의 결과 일본이 이긴다면 일본은 조선과 남만주에 대한 침략이 그들의 사이에 공인될 것으로 약속되였으며 미국은 일제를 도와 전후 四억만 딸라에 달하는 막대한 전비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가쯔라 타프트 회담



一九〇五년 미국 륙군 장관 타프트와 일본 수상 가쯔라는 동경에서 비밀 회담을 열어 이 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승인하는 대신 일본은 비률빈에 대하여 어떤 침략적 의도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시켰다.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 데노돌트 루즈벨트는 이 회담의 결과를 찬양하여 극동에 있어서 『평화』를 얻는데 큰 기여가 되였다고 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을사조약』으로 하여 조선 합병의 전제로서 『보호국』으로 만들었으며 소위 『한미 수호 통상 조약』중에 『조선이 외국의 침략을 받았을때 미국은 여를 원조』한다는 헌 수작을 하였다.

미제와 三·一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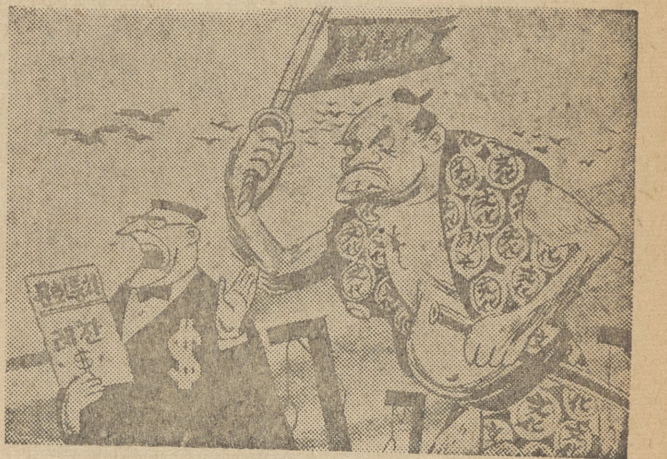
一九一九년 조선에서 三·一운동이 일어나자 미제는 이러한 운동이 비률빈 기타 아세아 각 약소 민족에게 파급될가 두려워했다.

그들은 일제가 이 운동에서 취한 야만적이며 살인귀적 행동을 적극 찬양하였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일제가 하루 바삐 『적당』한 방법으로 『폭동』을 진압할 것을 재촉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은 일본의 『은혜』를 모르는 『배덕자』라고 하면서 뉴욕의 글 신문은 『만약 일본이 一〇년 전 조선을 구제하지 않았더라면, 조선은 황폐지가 되였을 것이다』라고 썼다.

일제 통치의 찬양



一九二〇년 일본 통치 계급들은 조선에 대하여 그들의 살인 통치가 실패에 돌아가자 그들은 『문화 통치』라고 기만하였다. 이에 대하여 세계 기독교 청년 련맹 리사회 퀴리크 박사란 자는 조선을 시찰한 후 다음과 같이 떠벌렸다.

『조선이 독립을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 일본이 조선에서 손을 떼는 것은 인도상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며 새 총독의 『문화 통치』는 조선인의 행복을 담보하는 한개의 큰 진화라고 례찬한 것이다.

기독교와 미제의 위장



미제는 무력에 의한 위협과 함께 침략의 다른 한 수단으로 종교의 거짓으로써 우리 인민들을 기만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교회와 병원과 학교망을 될수 있는대로 보존하고 음흉한 침략 정책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한편 자기들의 괴뢰를 양성하였는바 소위 와이·엠·씨·에이 (기독교 청년회)를 비롯하여 전 조선 각지에서 조선의 젊은이들을 그들의 주구로 만들려 하였다.

그 결과 오늘 리승만의 졸개로서 미제의 괴뢰 노릇을 하는 김활란, 신흥우, 리묘묵, 유억겸, 고황경 등등이 모두가 그 『보금 자리』에서 자라난 자들이다.

순안 『허시모』 사건



一九二五년 평남 순안군 순안 병원 미국 안식교 선교자는 조선 소년의 이마에다 『도적놈』이란 글자를 살이 타는 초산으로 락인을 찍은 일이 있다. 그 리유는 그 소년이 병원의 과실나무 아래 떨어져 있는 사과 한 알을 그의 승락없이 주서 먹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놈은 그 소년을 잡자 하루 종일 그 사과 나무 아래 비끌어 매 놓고 문초를 한 다음 초산으로 그따위 짓을 한 것이였다.

이것이 바로 입으로 『신』을 말한다는 선교자의 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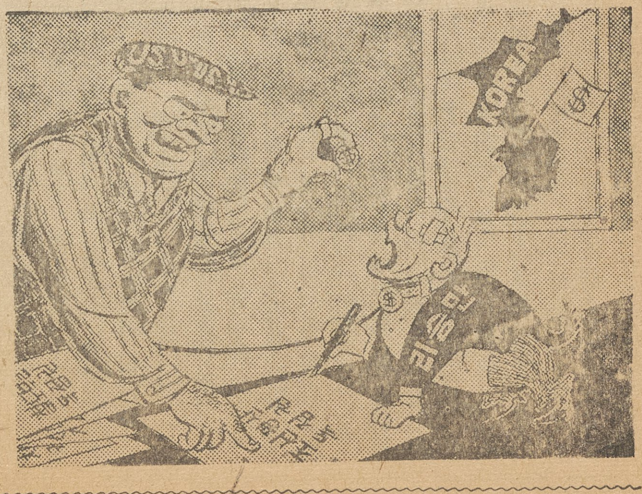
살인귀의 본성



一九三〇년 경북 달성군에서 헨더슨이란 미국 선교자가 자냥을 갔던 길에 데리고 간 조선 소년을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 『선교자』는 사람을 짐승으로 오인했다고 떠벌렸다.

이마에 초산으로 도적놈이라고 쓰는 것이나 사람을 짐승으로 보고 쏘았다는 놈이나 이것이 모두가 제국주의자들의 『인간 증오』의 야수적 본성에서 유래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리승만의 배양



미제는 오늘 조선 침략에 있어서 원대한 계획 중의 하나는 리승만을 괴뢰로서 쓰기 위하여 오랫동안 사료를 주어서 기른 사실이다. 그리고 리승만은 미국에 앉아서 조선에 三·一운동이 일어나자 이것은 조선의 독립이라기보다 조선을 일제의 통치에서 미국의 『위임 통치』로 넘기는 운동으로 되여야 한다고 떠버렸다. 이리하여 리승만 놈은 그때로부터 미제의 앞잡이로서의 날뛰는 훈련을 받게 되였으며 한편 미제와의 사이에 이미 조선에 있는 모든 권리, 그중 광산권 기타를 미제가 수탈할 때 대한 필요한 연극을 꾸미고 있었다.

새로운 인민적 도덕 품성의 배양을 위한 투쟁

리 홍 종

一、낡은 사회와 새 사회의 도덕

도덕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다

도덕은 인류 사회의 려명기, 즉 원시 공동체 제도하에서 벌써 나타났다。 공동으로 로동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남녀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등—가 형성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관계는 점점 굳어져서 사회의 행동 규칙, 즉 도덕으로 되였다。 그런데 도덕은 그 발생 시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력사와 시대가 바뀌임에 따라 변천하며 발전되여 왔다。 모든 시대와 인민들에게 통용되는 그러한 도덕은 없었으며 또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독자들이여! 만일 당신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어떤 사람이 로동 능력을 잃은 로인을 잡아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당신들은 대경 실색하여—그는 야만적 풍습이며 짐승의 행동이다—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행동이 당연하며 도덕적인 행동으로 인정된 그런 시기가 인류 력사에는 있었던 것이다。 아득한 옛날, 생산 수준이 지극히 낮은 원시 사회에 있어서 기아가 닥쳐 오면 사람들은 로동 능력을 상실한 로인들을 죽이거나 심지어 잡아 먹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그 사회에 있어서는 완전히 도덕적인 행동이였으며 누구의 비난도 받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실례로 당신들이 지금 어떤 사람에게서 『남녀 칠세 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란 설교를 들었다면 당신들은 이구 동성으로—그것은 낡아 빠진 봉건이다—라고 일소에 붙여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교가 완전히 도덕적인 것으로 인정된 그러한 시기가 우리 나라 력사에는 오라지 않은 근세에 있었던 것이다。

이상의 두 실례는、도덕의 원칙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라 력사적으로 변하며 발전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즉 옛날 사회에 있어서는 선이며 정의라고 인정되던 사람들의 행동이 오늘에 와서는 악이며 비 정의의 행동으로 규정되는 그런 실례를 우리는 허다히 알고 있다。

그러면 도덕의 원칙은 무엇에 의하여 변하며 발전하는 것일가? 도덕의 발생과 발전은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불가 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사회의 물질적 생활 조건이 도덕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다。 실례로 원시 사회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내것』과 『네것』을 구별하지 못하였다。 즉 그 사회에는 사적 소유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는 남의 것을 훔친다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내것』과 『네것』을 구별하게 된 사

학습·교양 자료

회 즉 개인 소유가 발생한 사회에 와서는 남의 것을 훔친다는 의식이 사람들에게 발생하게 되였다。 엥겔쓰는 『선과 악의 관념은 이 인민과 저 인민, 이 시대와 저 시대에 따라 바꾸어지며 때때로 서로 서로 직접 대립하는데 이르렀다』라고 가르쳤다。 이와같이 도덕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력사적 시대에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

그러나 같은 시대에 있어서도 계급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도덕 관념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매개 계급들은 그가 처한 물질적 생활 조건이 각이 함에 따라 그들의 의식과 사상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급 사회에 있어서 각 계급들은 각각 자기 계급의 도덕을 가진다。 례를 들어 보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로동 계급이 자기의 권리와 직업과 빵을 위하여 자본가를 반대하여 파업하였을 때에 이것은 로동 계급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당연하며 정의의 행동이다。 그러나 자본가 계급은 이를 부당한 행동이라고 선언하며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한다。 이것은 도덕이 계급적 성격을 띠는 것이며 계급을 초월한 도덕이란 없으며 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오직 착취와 압박이 근절되고 계급이 소멸된 공산주의 사회에 가서만 전 인민에게 공통한 도덕이 있을 것이다。

부르죠아 도덕의 반동성

낡은 사회의 도덕의 기초는 착취이며 리윤이며 치부이며 돈이다。 착취 계급에게 요구되는 도덕이란 다름 아닌 착취와 압박를 정당화하며 놈들의 지위와 권리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한 것이다。 봉건 시대의 『량반』들은 『인의도덕』(仁義道德)을 글로나 말로써 목이 마르도록 부르짖었다。 그러나 『량반』들은 도적질하며 계집질하며 부화 방탕하였다。 자본가들은 도적질하지 말라! 고 설교한다。 그러나 자본가치고 도적질하지 않는 자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의 량곡상은 흉년과 기근을 기다리며 의사는 대 전염병이 있기를 바라며 건축가는 대 화재가 자주 있기를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그런 불행과 재난이 놈들에게는 돈벌이의 기회로 되기 때문이다。『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승냥이다』『호주머니를 겨누라』『넘어진 자를 밀어 치우라』『속이지 않으면 팔지 못한다』『내 일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모른다』—이것이 낡은 사회, 특히 부르죠아 사회 도덕의 원칙이다。 그 곳에서는 돈으로써 사람의 인격과 지위가 평가되며 모든 것이 심지어 량심、명예、재능、녀자、애정、혼인까지 돈으로 매매된다。

맑쓰는 다음과 같이 썼다。『돈의 힘이 위대한 만큼 나의 힘도 그만큼 위대하다。……나는 불구자이다。 그러나 나는 가장 아름다운 녀성을 살 수가 있다。 이것은 벌써 내가 불구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불구자라는 사실의 작용、그 불쾌한 힘은 돈에 의하여 사라지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착취를 위하여、치부를 위하여、돈을 위하여 그 얼마나 잔혹하고 몰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놈들은 심지어 인류의 최대의 재난이며 불행인 전쟁을 『교향악』(交響樂)이라고 부르며 세균 무기와 화학 무기와 원자탄 사용을 공공연하게 선언한다。 미국 풀로리다주 탐파시의 대학 총장 넨스는 말하기를『각자가 살륙술을 배워야 한다。……나는 세균 전쟁、까쓰、원자탄 및 수소탄 사용을 찬성한다。 나는 병원이건、교회건、학교건、또는 어떠한 주민군에 대해서건 동정적 태도를 취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식인종들이 지금 미국 청년들을 교육하고 있다。

도덕적 파산이 극도에 달한 제국주의는 인간 리성의 야수화를 찬양하며 그것을 강요하고 있다。 리기주의、개인주의、자유주의、탐욕、거짓、배신、허위、위선、협잡、투기、향락、사치、랑비、시기、멸시、인간 증오 등—이 모든 썩어지고 구역질 나는 행동들이 부르죠아 도덕의 표현들이다。 전쟁 방화자들은 이러한 추악한 품성을 소유한 악당들을 배양하여 자기들의 탐욕적 리윤을 위한 새 전쟁 도발의 대포밥으로 리용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멸망의 운명을 면치 못하는 것과 같이 부르죠아 계급의 추악한 도덕도 영원히 자취를 감출 것이다。 그러면 어떤 도덕이 그 폐허 우에 발생하며 발전할 것인가? 그것은 공산주의 도덕이다。

공산주의적 도덕은 가장 고상한 도덕

공산주의 사회가 인류 사회 발전의 최고 단계인 것과 같이 공산주의 도덕은 인류의 도덕적 발전의 최고봉이다。 이 도덕은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의 동지적 협력과 호상 원조의 기반 우에 수립된 가장 높은 형태의 도덕이다。 공산주의적 도덕의 원칙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이다。 레닌은 『공산주의의 강화와 완성을 위한 투쟁은 공산주의 도덕의 기초로 되고 있다』라고 가르쳤다。

공산주의 도덕은 현대의 가장 선진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의 도덕이며 그것은 전 세계 근로 인민의 리해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공산주의 도덕은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저절로 발생 발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위대한 교양자인 공산당의 주도적 역할에 의하여 발생 발전하였다。 로동계급은 자본주의를 매장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력사적 사명을 가지고있다。 로동계급은 이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품성을 갖추게 된다。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단결성과 규률성、인내성과 강인성、용감성과 헌신성、원칙성과 경각성 등—로동 계급에 고유한 특성들이 형성 발전된다。 부르죠아지들은 로동 계급에게 겸손과 순종、복종과 온량을 요구하며 이것을 고상한 도덕이라고 설교한다。

그러나 로동계급은 이러한 『미덕』은 노예의 특징이며 로동계급의 미덕은 혁명적 대담성과 압박자에 대한 증오와 항쟁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한다。 부르죠아 도덕은 종교의 입을 빌어—고통 받는 자、가난한 자、불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설교한다。 그러나 로동계급은 지상에다 천국은 건설하여 자기 힘으로 행복과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확신있게 대답한다。

공산주의 도덕의 기본 특징들은 위대한 쏘베트 인민들의 도덕적 풍모에서 표현되고 있다。 쏘베트 인민들은 세계의 대담한 혁신자이며 사회주의 사회의 창조자이며 공산주의의 건설자이다。 고상한 쏘베트 애국주의、사회주의 조국과 공산당에 대한 헌신성、로동과 전투에서의 용감성과 영웅성、호상 원조、동지애와 국제주의적 우의、사회주의적 인도주의와 혁명적 락관주의、고상한 사상성과 볼쉐위크적 원칙성、모든 인종과 민족과 인민에 대한 존경과 친선—이러한 고상한 품성들이 쏘베트 인민들에게서 표현되고 있다。

공산주의 도덕은 쏘베트 인민들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인민 민주주의 제국가 인민들과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전세계 근로자 들에게 있어서도 행동의 지침으로 되고 있다。 이 나라 인민들은 쏘베트 인민들의 고상한 도덕적 풍모에서 자기

의 모범을 보고 있다。

二、새로운 인민적 도덕 품성을 배양하기 위한 투쟁

· 낡은 전통과 인습과 편견을 반대하는 투쟁

우리나라에서의 악독한 일본 제국주의 통치제도의 전복과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건설은 비단 경제 제도와 정치 제도의 변화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의식과 생활 양식과 정신적 풍모에도 근본적 변화를 일으켰다。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수립된 우리나라 인민들 속에는 일제、봉건 및 부르죠아적 잔재와 전통 대신에 새로운 인민적 도덕 품성이 형성 발전되고 있다。 우리 인민들의 새로운 도덕 품성은 인민들의 호상 존경과 동지적 원조 및 지지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적 도덕의 원칙과 본질적으로 다름이 없는 고상한 새 형의 도덕이다。

우리 인민의 새로운 도덕의 원칙은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 건설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투쟁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이 투쟁 목적에 복무하는 모든 행동은 도덕적이며 이것을 방해하며 손해를 끼치는 행동은 비도덕적이다。

로동당은 우리 인민과 청년들을 새로운 도덕적 품성으로 배양하기 위하여 거대한 교양사업을 진행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청년들의 도덕、정신적 면모는 새로운 고상한 특징들로 변화하였으며 날로 발전되고 있다。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력사적 승리는 공화국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승리이며 동시에 이것은 우리 인민의 정치、도덕적 통일력의 위대한 승리를 의미한다。 조국의 자유 독립과 영예를 수호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싸워 이긴 수천 수만의 우리나라 애국자들의 영웅주의와 애국적 헌신성、전선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불철 주야 온갖 곤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로력한 후방 인민들의 불요 불굴성과 강인성은 곧、로동당에 의하여 교양된 우리나라 새 세대들의 고상한 도덕적 품성의 발로였다。 우리 인민의 정치、도덕적 통일이 그처럼 공고한 시기를 우리 조국 력사는 일찌기 알지 못하였다。

우리 인민의 고상한 도덕적 품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로동에 대한 태도에서 표현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로동은 자유로우며 창조적이며 영예로운 일로 되였다。 우리 나라 력사상에 수 많은 영웅들의 이름이 기록되였지만 로력 영웅의 이름과 그의 공훈에 대하여서 특기한 기록은 없었다。 오직 八·一五 이후의 력사에서부터 비로소 로력 영웅과 그 위훈이 대서 특기되기 시작하였다。 애국적 증산 경쟁 운동— 이것도 조선말 사전에 새로 첨가된 우리 인민의 새로운 도덕적 풍모를 표현한 술어의 하나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의 낡은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三강五륜』(三綱五倫)—군신 유의、부자 유친、부부 유별、장유 유서、붕우 유신)이 지배하였다。 그러나 이 낡은 륜리는 허물어졌다、호상 존경과 사랑과 원조의 진정한 인도주의적 품성이 형성되였다。

이와같은 새로운 도덕적 품성들은 로동당의 교양적 역할과 우리 인민들이 낡은 사회의 전통과 악습들을 반대하는 투쟁 행정에서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활에서는 아직도 낡은 사회의 잔재와 전통과 인습과 편견들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으며 사회 생활과 활동의 각 방면에서 빈번히 발로되고 있다.

로동에 대한 태만과 불성실성과 고용적 관념 및 로동 규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낡은 사회가 남긴 가장 악독한 잔재이다.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는 낡은 사회에서는 로동 특히 육체 로동이 천시되였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는 것, 적게 일하고 많이 먹으려는 것은 낡은 사회의 악독한 전통이다. 그런데 우리 일부 청년들 속에 그러한 낡은 관념이 발로되고 있다. 로동을 기피하며 남의 등에 업혀서 송충 같은 기생 생활을 하며 로동을 『고상한것』과 『어지러운것』으로 구별하여 어려운 일을 회피하는 청년이 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습은 곧 로동이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학습에 태만한다. 심지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리와 극장과 음식점에서 밤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며 불량자와 같이 행동하는 청년도 간혹 있다. 이러 저러한 구실로 결근과 조퇴와 지각을 하며 四八○분의 로동시간을 완전히 생산과 공작에 복종시키지 않는 자도 있으며 『피병 환자』도 때때로 발견 된다. 라태와 물로는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다. 우리들은 마땅히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 지면 못노나니』 따위의 자본주의 사회의 악독한 잔재를 저주하고 근절하여야하며 게으름뱅이, 건달군, 허송세월군, 피병 환자를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해야한다.

민청단체는 건달군과 불량배가 아무리 극소수라 하더라도 그의 부모와 동무가 누구이며 그가 어떤 방법으로 생활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하며 그들을 교양할 의무가 있다. 『근먹자흑』(近墨者黑—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일부 불량배의 영향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데 대하여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사회적 소유에 대한 소홀한 태도, 『내것』은 아끼고 사랑하나 『우리의 것』—전인민의 재산에 대하여는 랑비, 횡령, 절취하는 행동도 낡은 사회의 악독한 유습이다. 기계를 혹사하여 파손하며 원료와 자재를 랑비하며 공공 시설품이 파손된 것을 보고도 오불관(吾不關)이라 생각하며 물자 보관을 불철저하게하여 도적놈에게 도움을 주며 개인 향락에 국가 재산을 리용하며 『유쾌한 도적』 질을 하는자가 때때로 있다. 우리는 국가 사회 재산은 신성 불가침이라고 엄숙하게 선언하며 일체 랑비, 횡령, 절취분자들과 날카롭게 투쟁해야 한다. 민청원들은 모두다 근면하고 검박하고 절약하는데 있어서와 랑비와 사치와 향락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모범이 되며 그투쟁의 적극적 조직자가 되여야 한다.

낡은 사회의 가장 해독스러운 잔재의 하나는 로동과 생활에서의 비문화성이다. 우리는 청년들속에서 로동과 학습에서 직장과 거리와 가정과 공공 장소에서 절도가 없고 례절이 단정치못하며 시간을 옳게 조직하지 않으며 무질서하게 생활하는 것을 종종 본다. 시간 관념이 희박한 연고로 각종 회의와 행사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우리는 빈번히 보고 있다.

사회 공중 질서와 특히 교통 질서를 위반하며 극장과 차내와 공원과 공중 장소에서 례절없이 행동하는 청년들이 있다. 차를 타는데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위반하며 극장과 회의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떠들며 거리에 함부로 침을 뱉으며 로인과 부녀에게 좌석을 양보하지 않는 등 례절없는 행동이 종종 발로되여 군중들의 비난을 받고있다. 일부 청년들은 언어 사용에 있어서 『이새끼』 『저 새끼』 또는 야비한 별명을 부르는 등 비속한 언어를

거리낌없이 사용하고있다. 비문화성은 일부 청년들의 취미에서도 발로되고 있는 바 옷차림을 소박하게 단정히 할 대신에 게잘싸하게하며 괴상한 『류행』을 찾는 『멋쟁이』가 있는가하면 어떤 처녀들은 분에 넘치는 사치를 하고 있다. 그들은 변명하기를 『오이를 거꾸로 먹는 것도 제멋이다』라고 한다. 이것은 옳지 않은 관점이다. 란포한 행동—싸움질, 구타 등—은 구 사회의 추악한 유물인데 거리와 특히 체육 경기장에서 소위 『용감한 영웅』들이 이런 행동을 때때로 취하고 있다.

민청단체는 청년들 속에서 행동과 언어와 취미에 있어서의 문화적 습성을 배양하도록 시간을 가리지 말고 도처에서 투쟁을 조직할 의무가 있다. 모든 청년들은 『인간은 얼굴도 의복도 마음도 사상도 모두 아름다워야 한다』는 로씨야의 문호 체호브의 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은 사람에게 대하여 정중하고 겸손하고 주의깊은 태도를 취하는 문화적 습성에 관습되여야 하며 일체 비문화적 비규률적, 행동과 습성을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

일부 청년들 속에 나타나는 낡은 사회의 악습의 하나는 가정과 녀자에 대한 비량심적 태도이다. 어떤 청년은 가정 생활을 잘 돌보지 않으며 가정 불화를 일으키며 또한 녀자를 롱락하고 남녀 관계를 불 견실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히 한다. 봉건적 『남존 녀비』(男尊女卑)의 악습이 청산되지 않은 사실을 도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어떤 기관에서는 녀성 일군을 등용하며 사업을 분공함에 있어서 그들의 력량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련애와 결혼을 심중하게 하지 않고 물 한잔 마시듯 하는 사람도 있다. 결혼 대상자를 택함에 있어서 내면 세계를 서로 리해하려하지 않고 관상을 보고하는 청년들도 있다. 그들은 五관이 아무리 어여뿌다 할지라도 사상이 락후하고 취미가 저속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리해하려 하지 않는다. 심중치 못한 련애와 결혼은 종종 가정 불화와 심지어 리혼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다.

일부 녀자들 중에는 결혼만 하고나면 직업을 버리고 집에 들어앉아 소위 『안사람』이 되려한다. 이에 대하여서는 얼마 전 『민주청년』지가 『가정은 사업을 방해하는가?』라는 공개 토론을 전개하여 정당한 군중적 결론을 지었던 것이다.

폭음은 가장 악독한 부르죠아 잔재의 하나이다. 그러나 일부 청년들은 분별없이 폭음하며 만취되여 공중 도덕을 문란히 하며 란포한 행동을 하고 있다. 어떤 청년은 『영웅 호걸은 술을 좋아한다』 느니 『한잔 술은 몸에 리롭다』 느니 『술을 먹어야 힘이 난다』 느니하여 이러저러한 구실과 기회를 만들어 『한잔』 『한잔』을 거듭하고 있다. 이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무 맹랑한 구실이다. 그들은 『술 취한 놈 용기를 내더니 술이 깨자 도야지를 무서워하더라』는 인민의 현명한 속담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음주가 폭음으로 되며 폭음이 아르코르 중독이 되여 주정뱅이가 될 때 그것은 가정 생활을 불화하게 할 것이며 로동의 열성을 감소시킬 것이며 건강에 해를 주어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킬 것이다. 말하자면 백해무익(百害無益)이다.

민청원들 속에서는 폭음과 주정뱅이를 반대하는 투쟁이 전개되여야 한다. 만취가 되여 길거리에서 란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술 취한 사람인데 뭘 내버려 두게』 하는 따위의 관용과 방심하는 태도를 없이해야하며 이러한 『술 영웅』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증오의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낡은 사회의 악습은 이 밖에도 우리의 생활의 각 방면에서 각종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 제도를 전복한 폐허 우에 수립된 전혀 새로운 사회 제도이다. 오늘 우리 사회는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기에 처해 있다. 때문에 우리사회에는 낡은 사회의 전통과 유습이 철저히 극복되지 못하였다. 또한 지난 三년간의 가렬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우리 인민들은 도덕적 면에 있어서도 타격을 받았다. 다른 면으로 볼 때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의 남반부를 계속 강점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부패한 반동사상을 우리에게 침습하려고 각종 발악을 다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새로운 인민적 도덕 품성을 배양하기 위하여서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않고 각 방면에서 낡은 사회의 잔재와 유습, 즉 일제, 봉건 및 부르죠아 잔재를 반대하여 꾸준하고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들이 이러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전진은 생각할 여지도 없다. 우리들은 응당 낡은 생활 풍습과 도덕을 반대하는 투쟁이 한개의 심중한 사상투쟁이며 젊은 세대들에 대한 교양의 중요한 투쟁이라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의 자체 교양

낡은 사회의 유물인 추악한 전통과 인습과 편견을 극복하며 새로운 인민적 도덕 품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청년들은 일상적으로 꾸준히 자체 교양에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자체 교양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매일 일기를 쓰는 방법으로 자기의 행동을 검토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좌우명(左右銘)을 걸고 자기 생활의 지침으로 삼는 사람도 있다. 옛날 중국의 증자라는 사람은『나는 하루에 내 자신을 세번씩 살핀다』(吾日三省吾身)라고 하였다. 모두 다 일리 있는 방법들이다.

우리 청년들은 자체 교양에 있어서 우선 맑쓰—레닌주의 과학 사상을 학습함으로써 자기의 혁명적 세계관을 수립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과학인 맑쓰—레닌주의는 우리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혁명적인 인생관을 배양해 주며 가장 옳바른 생활과 공작의 지침을 준다. 청년들은 맑쓰—레닌주의 서적들과 정치 및 문학 서적들을 사랑하고 깊이 연구하며 그 본질을 체득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들은 학습의 정확한 태도와 방법을 가져야 하는바 그것은 리론과 실천을 옳게 배합하는 방법이다. 실천을 떠난 학습은 공허한 말공부군과 독경쟁이를 만든다. 리론과 실천의 리탈은 낡은 사회가 남겨준 가장 큰 악과 재난중의 하나이라고 레닌은 가르쳤다. 우리가 맑쓰—레닌주의와 선진적 과학 지식 및 리론을 학습하는 목적은 실천에 있다. 우리는 낡은 사회에서와 같이 공부를 하여 벼슬을 해서 돈을 벌며 이름을 날려 고향에 돌아간다는, 즉『금의 환향』을 목적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학습 목적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효과있게 더 성실하게 복무하려는데 있다. 만일 우리들이 실천하는 능력과 수완을 가지지 못하였다면 백년 공부도 남이 아무타불의 공념불에 불과할 것이다. 일부 전문학교 졸업생들이 직장에 배치되자 현장에 어둡고 실천 사업에 자신을 못가지는 사실은 그들이 재학 당시에 학과 학습과 실습을 옳게 배합하지 못한 결과이다.

일찌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는『오직 로력에서만이 진정한 건설자가 되며 준비된 인재가 형성』되며 따라서『우리의 청년 후진들을 건설과 로력에서 교양하

며 난관과의 투쟁에서 교양』하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마땅히 로력과 건설, 실천을 통하여 자체를 부단히 수양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의 자체 교양의 또 중요한 방법은 원칙적이며 성실한 자기비판이다. 비판은 우리의 발전 운동의 법칙이다. 비판이 없이는 낡은 것을 극복할 수 없으며 전진할 수 없다. 청년들은 매일 자기 사업과 생활을 반성하고 검사하며 부족점을 발로하여 교훈으로 삼으며 어떻게 하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동지들의 비판을 허심하게 접수하여 자기를 심중히 살피며 한걸음 한걸음 자체의 혁명 의식을 높이는 것은 고상한 도덕품성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는『자기 사업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방해하는 자는 저주 받을 겁쟁이며 인민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다』라고 가르쳤으며, 또한『우리가 말하는 비판과 자기비판은 언제나 량심적이고 대담하며 항상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실천적인 비판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청년들은 이와같은 성실한 비판을 통하여서만이 고상한 도덕 품성의 소유자로 될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은 자기 수양에서 전세계 근로 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인 맑쓰, 엥겔쓰, 레닌, 쓰딸린의 생애와 활동을 배우며 그들의 탁월한 모범을 본받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들의 생애와 활동은 공산주의 도덕의 특성들로 일관되여 있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시며 청년들의 태양이며 스승이신 김일성 원수의 생애와 활동에는 우리 인민의 모든 고상하고 아름다운 품성이 집중적으로 체현되여있다. 청년들은 우리의 위대한 수령들의 고상한 도덕적 풍모를 그들의 저서와 략전을 통하여 깊이 연구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새 조선의 청년들은 마땅히 국가를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집단을 사랑하며 개인의 리익을 그에 복종시키며 그에 헌신 복무하는 품성을 소유해야 한다.

오늘 우리 조국은 장엄한 복구 건설의 로력적 열의로 들끓고있다. 새 조선의 청년들은 로력과 자기의 직업을 사랑하며 과학과 기술을 사랑하며 근면하고 곤난을 두려워 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아가며 어렵고 힘든 일을 솔선 담당 수행하는 용감하고 강인한 투사가 되여야 한다. 근면과 소박은 조선인민의 전통적 미덕이다. 지금 우리 인민은 폐허 우에 새 생활을 건설하는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새 조선의 청년들은 마땅히 검박하고 절약하며 향락과 랑비와 사치를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 우리는 푼전을 아끼며 매일, 매시각 어떻게 하면 조국에 더 많은 리익을 주겠는가에 대하여 생각하며 또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새 조선의 청년들은 국가 규률과 로동 규률과 공중규률과 학습규률을 준수하며 고상한 문화적 습성과 행동에 익숙하며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하며 일체 무규률적, 자유주의적, 비문화적 행동과 교만과 기만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해야 한다.

청년들은 우리 조국의 미래이다. 청년들의 특징은 곧 전투력이며 창조력이다. 장엄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에서 조국과 인민은 청년들에게 몇배나 더 왕성한 전투력과 창조력과 적극성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영웅적 인민의 아들 딸 답게, 부강한 조국 건설의 불요 불굴의 투사답게 생기 발발하고 명랑하고 전진하게 생활하며 더욱 성실하게 학습하며 더욱 근면하고 용감하게 로력할 것이다.

용감성과 의지에 대하여

쏘련 영웅 엠·보도빠노브

자체의 결단성과 의지력을 어떻게 배양할 것인가?
완고한 성격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어떻게 용감하고 대담한 사람으로 될 것인가?

나는 청년들과의 모임들에서 이와같은 질문들을 여러 번 들었다。 내가 자기 생활 과정에서 루차 위험에 부닥치게 되였으며 대담하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과 어깨를 같이하고 일하였다는 것을 안 청년 남녀들은 확실히 나에게서 대담성에 대한 어떤 처방을 받으려고 원할 것이다。 이러한 『처방』이라고는 없다。 나는 대담성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용감성과 의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며 또 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담화의 쩨마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태만、수동성、소극성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우리 쏘베트 청년들을 심각히 격동시키고 있다。 수백만의 우리 청년 남녀들은 자기의 영광스러운 조국과 자기 위대한 인민의 훌륭한 사람으로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위에서 연급된 바와 같은 그런 문제들을 자신들이 제기한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성과 쏘베트 사람의 온갖 비도덕적이고 가치없는 행위를 생활에서 축출해 버리려는 그들의 지향을 확증하고 있다。

힘이 왕성하고 정신이 맑은 젊은 시절에 누가 공훈과 영웅성을 희망하지 않겠는가? 청소년들이 훌륭한 영예를 갈망하며 공훈을 지향한다는 것은 명확하고도 당연한 일이다。 언제나 이러하였으며 또 이러할 것이다。 그러나 공훈과 영웅성에 대한 인식 자체는 사회 생활과 함께 변화한다。

사람들이 어떤 동기를 막론하고 다만 결투를 감행했다고 해서 그 주인공들의 명예를 인정한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 이러한 명예는 단순히 웃음 거리에 불과할 것이다。

바다의 강탈자들인 해적들의 공훈들은 어느 시대를 물론하고 찬양을 받지 못했다。 널리 알려진 마-크 뜨웬의 영웅들을 회상하여 보시요。 톰 쏘예르와 헤겔리베리 핀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강탈자들 속에 들어가』 대담하게 불의 습격을 감행함으로써 영예롭게 되려고 하였다。

쏘베트 정권이 창설된 첫날부터 공훈은 우리 청년들에 의하여 인민과 그의 행복을 위한 또는 고상한 공산주의 사상을 위한 영예로운 행동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공민 전쟁시기에 우리의 청소년들은 붉은 군대에 입대할 것을 탄원하였다。 그후 항공이 발전된 시기에는 북극

에로의 비행을 희망하였다。 이리하여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에 쏘베트 조국의 청년 남녀들은 전선과 적후에서 불멸의 전투적 위훈들을 세웠다。

『우리들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온 생애를 두고 생각하여 왔다。 지금 나는 행복—그것은 우리 조국을 위하여 대담한 투사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조야 꼬스모제미얀쓰까야는 전선에로의 출동을 앞두고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적에 대한 증오심은 근위병 병사 알렉싼드르 마뜨로쏘브를 위대한 공훈에로 궐기시켰다。 파시스트 살인귀들은 어떤 혹독한 고문으로도 공청원 유리 스미르노브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니꼴라이 오쓰뜨롭쓰끼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무진장한 정신력은 전쟁 시기에 중상을 입음으로써 해마다 고통스러운 질병과 싸우며 이를 타승하고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공산주의 사상에 아주 충직하여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은 필사적인 위험에 부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라도 영예롭게 뚫고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기 사업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인간이 행복한 것이다。

인간이 자신 앞에 의식적으로 내세우는 목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의 지향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우리 청년 남녀들은 그 압도적 다수가 난관으로부터 달아나지 않으며 쉬운 일만을 찾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소시민적인 개인의 행복을 누리며 자기 멋대로 살며 아무런 로력과 생각도 하지 않고 안일하고 온화하게 살아 가려는 비굴한 경향이 있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식물』과 같은 생활을 하며 고리끼가 어떤 자기 소책자에서 쓴 그런 짐승과 류사한 사람들은 아주 적다。 (계속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매일 같이 보다더 적어지고 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는가?』—란 질문에 이 짐승은 『대단히 적게 일하며、대단히 적게 생각하며、대단히 많이 먹기를 원한다』—고 대답하였다。

우리들은 개인의 영예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 조국의 복리와 영예를 위하여 더 큰 일들을 하려고 원한다。

쏘베트 청년들은 땅에서 뽑아졌거나 또는 물 없는 모래우에 던져진 식물들이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를 떠나서는 개인의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쏘베트 조국의 매개 청년 남녀들은 공훈을 갈망하며 자기 행동—자기 모든 일상적인 사업、자기 모든 생활을 고상한 목적과 사회적 리익에 복종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자기의 조그마한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인의 리익으로써만 사는 인간은 완고하고 의지력이 강한 품성들을 배양할 수 없다。

나의 일부 젊은 친우들은 그들 자신이 말하고 있는바와 같이 강한 의지를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특수한 조건과 비상한 환경이 필요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젊은 동무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강한 의지는 전투와 투쟁에서 뿐만 아니라 평시의 일상 생활에서도 발휘되여야 한다。

우리들은 기록적 수확을 내고 가슴에 사회주의 로력 영웅의 금메달을 단 많은 청년 명수들을 알고 있다。 그들의 성과 마다에는 일상적인 완강한 로력이 들어 있다。 녀성 브리가다 반장에게는 자기 녀성 동무들과 함께 매일 같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자기 사탕무 재배지를 다루며 여기에서 비상한 수확을 내게하기 위하여 얼마나한 인내성과 참을성이 필요하였던가! 얼마나한 작업과 소란과 풍파가 있었던가! 이 모든 것도 곧 굳은 의지로

써 극복되는 것이다。

생산 혁신자들인 젊은 녀성 로동자들—고무 공장 녀성 로동자들、 녀 방직공들…—이러한 국내 유명한 사람들을 회상해 보시요。 그들은 로동 애호가들일 뿐만 아니라 용감한 처녀들이다。 즉 그들은 생산 기준과 생산품의 질에 대한 낡은 제의들을 타파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참다운 영웅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반드시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과 련결되지 않는다。 영웅성은 다만 전투나、 멀리 탐험이나、 어려운 행군이나 혹은 자연 현상에 의한 불행시에 만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로동—이것이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희망으로 활기 띤 헌신적 로동이라면 영웅적인 공훈으로 될 것이다。

『…영웅성에 대한 이러 저러한 구체적 사실과 영웅성을 발휘케 하는 환경의 조성—이것들은 흔히 우연적인 것 들이다。 그러나 영웅적인 일들을 수행한 사람들은 이러한 우연적 환경의 조성들을 리용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영웅성을 발휘하는데 준비되여 있었기 때문이다』—엠・이・깔리닌은 一九四五년에 전련맹 레닌 공청 중앙 위원회에서 군대로 부터 제대된 처녀—군무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이라도 곧 공훈을 세워 래일에는 꼭 영예롭게 되기를 원하는 일부 정열적인 생각들이 있다。 이런 부분적 청년 계층들은 심지어 전쟁이 그들의 성장하기 전에 끝난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 이런 공상가들은 영웅적 공훈을 위하여서는 공훈을 세우려는 욕망 한가지만으로는 안되며 육체적 힘 한가지만으로도 이루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즉 용감성과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만일 어떤 병사가 발광적 용감성이 발작하여 포위 사격을 당하는 참호 속에서 기여나와 허리를 쭉 펴고 적 기관총과 자동총을 향하여 간다고 한다면 이는 짐승에 불과할 것이다。 이것은 영웅성인 것이 아니라 우둔한 일일 것이다。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무기와 전술을 아는 것이 필요하며 환경을 옳게 리용할줄 알아야 한다。 다수확 명수로 되기 위하여서는 육체적 힘…하나에만 의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영농 기술을 특수하게 연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때문에 크거나 적거나를 물론하고 매개 사업에서는 반드시 자기 력량과 가능성들을 타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나는 자체 경험에서 잘 알고 있다。

一九三三년도에 나에게는 모쓰크바—깜차뜨까 고속 비행을 수행할 것이 위임되였다。 나의 비행기는 아주 단시간 내에 우편물을 하바롭쓰크、 오호뜨쓰크、 노가예브 항구、 깜차뜨까에 있는 뻬뜨로빠블로브쓰크에 까지 전달하며 거기에서 편지들을 모쓰크바로 가져 와야만 하였다。 내가 이르꾸뜨쓰크를 출발하여 바이칼호로 방향을 잡았을 때에는 이미 대부분의 비행이 수행되였었다。 二월 一三일 밤에 나는 찌비리의 큰 호수가 우를 날았으나 三일이 지난 二월 一六일 아침에 나는 웨르흐네우진쓰크 철도 병원에서 머리에 붕대를 감은 다음에야 자기 정신에 돌아서게 되였다。

의사들은 나의 머리와 얼굴에서 몇군데의 상처를 발견해 냈는바 그중 네군데의 상처는 대단히 중한 상처였다。 즉 아래 턱은 부서졌으며 일곱대의 이가 불어졌으며 볼에는 큰 상처를 입었으며 두눈섭은 깊이 갈라졌고 또한 코 구멍에도 깊이 상처를 입었다。 의사들은 약 三〇군데의 상처를 꿰 매야만 하였다。

파손 교미쨔의 자료에 의하여 나는 나의 비행기가 바이칼호에서 떨어져 우선 비행기 각으로써 얼음을 부시고 프로페라를 얼음 속에 구겨 박았다는 것을 알았다。 아마도 비행기는 땅속 깊이 들어간 모양이다。 나의 생명을

겨우 구해낸 이런 파손이 왜 생겼겠는가?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즉 나는 조종간을 쥔채 잠이 들었다。 실로 어떤 운명에 처할지도 모를 일순간을 잤다。

—동무는 자기 력량에 기대를 가졌소—그후 당시의 위대한 비행사 웨・뻬・츠깔로브는 나에게 말하였다。—내가 기억하건대는 밤 一二시에 비행기가 출발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동무는 이때 까지 잤는가? 물론 자지 못했을 것이다。 동무는 이러한 비행을 앞두고는 반드시 휴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긴장된 신경은 동무를 자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이것은 만일 거문고 줄을 지나치게 당기면 그것이 꼭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오。 바로 그 모양으로 바이칼호 우에서 동무의 긴장된 정신 상태는 거문고 줄이 유지되지 못하고 끊어진것처럼 사고를 일으켰소、 동무는 잡시간에 깊은 잠에 들어 있었소。 이리하여 비행기는 얼음속에 구겨 박혔던 것이오…—

나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힘을 지나치게 믿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나는 자체의 인내성을 너무도 믿고 있었다。 실지 나에게는 약간의 용감성이 특유하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솔하게 생각하기까지 하였다。 즉 나는 흔히 나에게는 아무것이나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하였다。 다른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기만 한다면 나의 신체는 얼마든지 견디여 낼 것이다。

청년들 속에서의 자신에 대한 이런 태도(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으며 휴식에 대해서 경솔하게 말하는 태도)를 하마트면 특별한 자랑으로 생각할뻔 했다는 것을 나는 여러번 느끼였다。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은 항상 자신에게 해로울 것이며 이는 시험을 앞두고 밤을 새우거나 혹은 중요한 축구 시합을 앞두고 과도하게 피로한 련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시간의 능숙한 리용과 명확한 사업 조직은 우리 생활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제정된 일과표의 정확한 준수는 인간의 내부 규률을 성과 있게 교양하는 첫째가는 조건 중 하나이다。

훌륭한 교육학자 아・에쓰・마까렌꼬는 다음과 같이 썼다。—『정확한 시간에 습관화 된다는것—그것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요구성에 습관됨을 말한다。 취침 및 기상 시간의 정확성—그것은 의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훈련이며 그것은 연약성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의지를 교양하는 특별히 기록된 규칙과 방법은 없다。 물론 여기에서는 교육학계의 교과서들에서 몇가지의 빈약한 일반적 공식들을 끌어내올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는 본질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용감하고 대담한 사람인 북극 지대의 첫 비행사들 중 어떤 유명한 비행사와 여러번 만날 수 있었다。

어느땐가 북극에서 동토 지대에 대담하게 착륙한 우리들은 북극의 새들과 같이 눈 속에 덮이면서 지루한 시간을 보낸 일이 있었다。

비행시에 나의 동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그런데 나는 어린 시절엔 대단한 겁쟁이였다。 그래서 어두움을 무서워하군 했다。 컴컴한 헛깐에 앉아 있기는 하였으나 늘상 울었다。 나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너는 아이들과 함께 산에 스키를 타려 가기는 했으나 항상 위험한 지대를 우회하려고 해썼다。 그래서 동무들은 나를 놀려준다。 너、 무서우면 눈을 가늘게 뜨고 산정에서 돌진하여 나무 사이를 태풍 같이 달려봐라。 이렇게 하여 나는 장해물 극복이 어떠한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는지를 알았다。 그래 나는 더욱 어렵고 굴곡이 심한 보다 높은 활주로들을 점차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나는 차차 훌륭한 스키—선수로 되였다。

「목적 없는 생활—그것은 로 없는 배와 같다」—속담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일 동무에게 일정한 목적이 있다면 그리고 만일 사회에 리익을 가져다 주려고 노력한다면 그것도 동무의 완고한 성격과 불굴의 의지를 교양할 수 있을 것이다.

강의한 의지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부문에서나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그로 하여금 자기 결함과 오유들을 시정하며 해독스러운 습관으로 부터 벗어나는데 방조를 주고 있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란 엔·오쓰뜨롭쓰끼의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 언젠가 공청원들은 빠벨 꼴차낀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 일이 있다. —사람은 자기 습관들 례를 들어 흡연을 극복할 수 있는가? 물론 사람은 습관을 버리려고 하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빠벨은 말하였다. 이때 어떤 동무는 그를 다음과 같이 「조소하였다」

「값있는 말. 꼴차낀은 이런 말을 좋아한다지! 그런데 그 자신이 담배를 피우는가? 피운다. 흡연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아는가? 알고 있다. 그런데 담배를 끊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게 아니라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꼴차낀은 입에 물었던 담배를 버리면서 「난 더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정말 그는 그후 한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빠벨 꼴차낀은 강한 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되였으며 이런 의지는 큰 일에서나 적은 일에서나를 물론하고 그에게서 발휘되였다.

자기 의지를 체험하기 위하여 어떤 기회를 찾을 필요는 없으며 더우기 아무런 필요 없이 생명을 바치면서 자진해서 체험하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실지 용감한 사람이라면 사상과 목적과 필요성 없이 어느때나 모험하지는 않을 것이다…동무들은 자신에게서 대담성과 재능과 기질을 배양하려고 노력하라. 그것은 동무들이 쏘베트 국가의 공민으로 장성되였을 때에는 동무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용감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용감성은 빼스 문력에서 배양되는 것이 아니다」—청년들의 친근한 벗인 왈레리 빠블로위츠 츠깔로브는 소년들에게 보내는 자기 호소문에서 이렇게 썼다.

「반드시 모험이 있어야 만이 고귀한 일인 것이 아니다」 진실로 용감한 사람들이란—일상 생활에서 자신을 합리적인 규률에 복종시키며 설정된 목적을 향하여 꾸준히 나갈수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들의 무기는 곧 지식과 굳은 의지이다. 그리고 이 의지는 바로 젊은 시절에 단련된다.

우리의 목적인 공산주의에로 가는 도상에서 우리에게는 아직 많이 만들며 긴장하여 창조적으로 일할 것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쏘베트 청년들은 이 공산주의에로의 길에서 자기 력량을 확신하며 공훈을 세우는데 준비된 용감하고 공포를 모르는 사람으로 걸어가야 한다.

「스메나」지 一九五四년 五호에서

(김 식 역)

☆ ☆ ☆

량곡 수매 사업의 의의

리 신

지금 공화국의 각지 농촌들에서는 농민들의 애국적 열성 속에서 국가 량곡 수매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다수확을 쟁취하여 여유 량곡을 가지게된 농민들은 량곡 가격의 안정을 보장하며 농촌과 도시간의 련계를 강화함으로써 로동자, 농민 기타 주민들의 리익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 량곡 수매 사업의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자기의 여유 량곡을 자진하여 국가 수매 기관에 팔고 있다.

량곡 수매 사업은 여유 량곡 판매에 대한 농민들의 리익과 편리를 적극 도모하여 줄 뿐만 아니라 개인 량곡상들의 중간 착취와 투기적 모리 행위를 방지하여 량곡 가격의 안정을 보장하며 농촌과 도시간의 련계를 강화함으로써 로동 계급과 농민간의 동맹을 일층 강화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국가 량곡 수매 기관들은 농민들의 여유 량곡 판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그들의 편리를 백방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현금 수매, 비료 교역 수매 방법으로 량곡 수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량곡 수매에 응하는 농민들의 부담을 감소시키며 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매소 망을 농민들 속에 접근시키며 면직물, 고무신 및 기타 생활 필수품에 대한 우대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공화국의 전체 농민들은 자기의 여유 곡물을 정당한 가격으로 국가 량곡 수매소에 판매하고 있다.

황해도 신천군 명석리 신도식 농민은 벼 一二二가마니를 국가에 판매하였으며 구하리에 거주하는 김 진문 농민은 벼 九九가마니를 수매소에 팔았다.

황해남도 재령군 굴해리에 거주하는 리성국 농민은 자기의 여유곡 백미 四五가마니를 팔고 그의 대가로 받은 현금으로 새끼 꼬는 기계 한틀과 천 五○메터를 비롯하여 많은 일용품들을 구입하였다.

이와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량곡 수매 사업은 정치 경제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량곡 수매 사업은 인민 경제 복구 발전과 관련하여 증대되는 인민들의 식량에 대한 수요를 더욱 충족시킴으로써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촉진시키며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련계를 더욱 강화하며 로농 동맹을 일층 강화하며 우리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일층 강화한다.

둘째로 량곡 수매 사업은 농촌의 여유 량곡을 국가가 통제 장악함으로써 량곡에 대한 국가적 예비를 조성할 뿐 아니라 농촌에서 중간 착취 요소를 제거하며 농민들

의 경제적 리익과 생활상 편리를 도모하며 농민들의 량곡 증산을 자극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된다。

또한 급속히 장성되는 식료품 공업에 원료를 보장하며 량곡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인민 경제 복구 발전과 인민 생활 개선 향상에 대한 물질적 토대를 강화한다。

이와같이 정치 경제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는 량곡 수매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개인적 리익과 국가의 리익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이 가장 엄격히 준수되여야 한다。 오늘 국가는 량곡 수매에 응하는 농민들의 편의를 보장하여 주며 그들에게 요구되는 공업 상품들을 제때에 공급해 주기 위한 대책을 강구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민들이 자진하여 여유 량곡을 국가에 손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조직 추동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량곡 가격이 반드시 국가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에 의하여 지방 실정、 생산물 원가 및 그의 사용 가치 등을 정확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사정되여야 하며

둘째로 농민들의 증산 의욕을 고무하는 방향에서 량곡 수매와 생산을 결부시키는 기초우에서 정확한 수매 계획을 수립하고 그의 성과적 집행을 보장하여야 하며

세째로 농민들이 자기의 여유 량곡을 자진하여 국가에 판매함에 있어서 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매 현지에서 공업 상품과 농산물과의 물물 교환을 광범히 조직하며 수매 상점의 합리적 포치、 이동 수매 조직、 수매 대금의 정확한 지불등 실무적인 사무 처리를 간편하게 조직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지적한 몇가지 문제가 원만히 보장될 때에라야만 량곡 수매 사업에서의 개인적 리익과 국가적 리익의 적절한 결합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량곡 수매 사업에서 농민들 속에서의 정치 사업을 강화하지 않고 수매 사업에서 농민들의 리익을 침범하며 그들의 편리를 도모하지 않으며 심지어 일부 경우에는 계획 달성이라는 구실 밑에 관료주의적으로 수매 사업을 할당의 방법으로 내려 먹이거나 혹은 의무 납부제로 대치시키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것은 농민들의 리익을 침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이 사업을 농민들의 자원적 원칙에 의거한다 하여 응당 조직 진행하여야 할 정치 사업을 진행함이 없이 농민들이 량곡을 판매하려 오는 것을 팔장을 끼고 기다리고만 있다면 이것은 국가 량곡 수매 사업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량곡 수매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농민 군중 속에서 국가 량곡 수매 사업의 정치 경제적 의의를 꾸준히 해설 침투시켜 농민들이 자진하여 량곡을 국가에 많이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우기 민청원들은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제고함으로써 국가 량곡 수매 사업의 틈에 끼여 들어 이 사업을 해치려는 모리 간상배들의 준동과 반동들이 퍼뜨리는 요언들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가 량곡 수매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 경리 발전과 토지 보호 및 복구 사업

과학원 농학 연구소
과학부 소장 홍 달 선

농촌 경리에서는 토지 자체가 직접 농작물을 길러 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토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농촌 경리가 발전한다는 것은 농산물의 총 수확이 많으며 그와 동시에 단위 면적에서 수확이 더욱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려면 농경지의 면적이 우선 증가되여야 하며 토양이 점점 더 비옥하게 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는 토지의 사정이 어떠한가。

우리 나라에는 농경지가 그다지 많지 못하다。 그런데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계획에 따라서 농산물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커가고 있다。 이렇게 농경지가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더욱 더욱 늘어 가는 농산물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경지 면적을 확장하며 토지의 리용률과 그 비옥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동당 중앙 위원회는 一一월 전원 회의에서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한 금후 투쟁 대책을 수립하였는바、 그 중에서도 토지의 복구 및 보호 문제가 우선 중요하게 토의되였던 것이다。

토지 문제 해결에서는 우선 새로운 토지를 농경지로 만드는 사업이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혹은 그 보다도 먼저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사실 우리는 농경지가 그다지 넉넉하지도 못한 형편에서 그것조차 제대로 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잘 못 리용하고 있는가。

첫째로 경작지를 묵이는 현상이다。 말로는 한치의 땅도 묵이지 말자고 하면서 이런 구실、 저런 구실로 적지 않은 면적의 토지가 묵고 있다。

둘째로는 가지고 있는 경작지를 잃어 버리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높은 산과 골짜기가 많고 하천의 물이 빨리 흐르며、 일제의 략탈과 전쟁의 피해로 말미암아 산림이 울창하지 못한 곳들에서는 홍수가 한번 나기만 하면 사태가 나고 강물이 넘고 농경지가 묻히고 떠 내려 가고 침수를 당하군 한다。 이렇게 해서 잃어버리거나 쓰지 못하게 되는 경지 면적이 적지 않다。 一一월 전원 회의 결정에 의하면 그것이 지난 四년간에만 하여도 一〇만

정보에 달하며 이것 때문에 二二一 만톤의 알곡 생산을 손실 당하고 있는 것이다.

세째로 이전에는 경작지로서 리용하던 토지들을 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지 면적이 줄어드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휴경지、폐경지 또는 재해지를 복구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들이 그것이다. 특히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은 큰 면적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네째로 우리 나라의 적지 않은 토지는 일제 놈들의 가혹한 략탈 정책으로 토양 개량 사업을 아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그대로는 못 쓰게 된 땅도 있고、유기질이 매우 부족한 땅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손질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토지는 점점 척박하여 가며、단위 면적에서 농산물의 수확이 높아 가기는 커녕 점점 떨어질 것이며 심지어는 농산물을 재배하지 못하게까지 될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복구 및 보호 사업은 반드시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는 사업과 함께 실시해야 한다.

그러면 一一월 전원 회의에서 토지 보호 및 복구 사업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은 어떠한 것들인가.

우선 토지의 보호 및 복구 사업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경지를 한 평도 남김 없이 모주리 경작할 것과 토지를 자연 재해 특히 홍수로부터 보호할 것이며、경작 가능지의 리용과 아울러 휴경지、폐경지를 완전히 복구하여 경작하는 데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제시되였다.

(一) 홍수를 직접 막아 내는 대책이다.

홍수가 나면 우선 강 물이 넘어서 토지를 떠내려 보내고 경지를 묻어 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물이 잠겨서 농작물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 전쟁전 시기에 당과 정부는 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고 하천 제방 공사를 수백 키로메터에 달하게 실시하여 왔었다. 그러나 전쟁 시기에는 이 사업에 대하여 많은 주의를 돌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미 있던 하천 제방들이 적지 않게 파괴되고 강 바닥이 높아서 홍수에 의한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파괴된 하천 제방과 수문을 수리하며 높아진 강 바닥을 파 내는 공사를 곧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사를 해야 할 하천 제방이 농업성에서 조사한 것만 하여도 六、六一〇여 키로메터에 달하며 이렇게 해서 보호해야 할 경지 면적이 一九、五〇〇 정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물론 전부가 아닌만큼 우선 공사할 대상을 조사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 조사에 기초하여 급한 것부터 먼저 착수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천 제방 공사의 년차별로 되는 구체적인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서 一九五五년부터 곧 착수해야 할 것이다.

(二) 다음으로는 처음부터 홍수가 나지 않게 하는 대책이다.

물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물이 한꺼번에 흐르지 못하게 잡아 두는 방법을 세워야 한다. 그의 효과적인 방법이 곧 식수 조림 사업이다.

나무를 어디다 무슨 목적으로 심겠는가.

우선 하천이 일정한 곳을 흐르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보호하는 식수를 해야 하며 홍수에 흙과 모래가 떠내려 가지 못하게 잡아 두는 토사 류실 방지림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산에 내린 빗물을 잡아 두어서 강물이 끊임없이 항상 흐르도록 하기 위하여 나무를 산에 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산에 나무가 무성하면 비가 많이 와도 한꺼번에 홍수가 나지 않기도 하고 반대로 가물어도 강

물이 마르지 않고 흐른다. 이러한 조림이 수원 함양림이다.

사태가 나는 산 기슭에는 사방 공사를 해서 그것을 방지하며 바람이 모진 곳에는 바람을 막는 조림도 필요하다. 풍수해라고 부르듯이 수해는 흔히 풍해와 함께 온다. 때문에 방풍림을 조성해야 한다.

(三) 폐경지、휴경지를 복구하여 리용하는 대책이다.

전쟁 전에는 리용되였던 토지들이 현재는 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농작물을 재배하기 곤난하다든가 척박하다든가 하여서 경지 면적 계획에서 제외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작자가 없다든가 화전이라든가 등등의 구실로 경작되지 않거나 통계에서 빠진 토지 면적이 각 도마다 적지 않다는 사실이 一一월 전원 회의에서 엄격히 지적되였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된 것은 발견된 것뿐이며 그 밖에도 그러한 토지가 반드시 있다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이러 저러한 구실로 경작지로 리용되지 않고 있는 폐경지、휴경지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해야 한다. 조사에 근거하여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그 토지에 알맞는 리용 대책을 세워야 한다.

토지가 척박하다면 손질을 해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렇지도 못하다면 자연 목초지로 리용한다든가 방목지로 한다든가 또는 뽕나무를 심는다든가 하여서 리용할 수 있는 토지는 한 평도 남기지 말고 리용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또 화전이라고 해서 모두가 못쓰겠다고 밀어 치우지 말고 그 중에서도 좋은 것、질이 낮은 것을 가려서 알곡도 심을 수 있고 목초도 심을 수 있게 적절히 리용해야 한다.

(四) 토성을 개선하며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는 문제이다.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하며 유기질이 결핍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를 고도로 리용하며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며 전반적 경지에서 다수확을 내는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실시되여야 한다.

(ㄱ) 농작물이 생육함에 해로운 토양을 개선하는 대책이다.

산성화된 땅에는 퇴비와 함께 소석회를 밭을 갈 때에 주어서 토양 내의 산성을 중화하며 금비가 남긴 독을 없이하며 토양에 유효한 미생물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며 비료 흡수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해안 연선 간석 지대와 염해지에서는 수원을 찾아서 답면 저수를 되도록 깊이 하도록 하며 조수를 막는 제방과 배수문 단속을 철저히 하여 바다의 짠 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ㄴ) 토양의 구조를 개선하는 대책이다.

기경 작업을 전경、심경으로 실시할 것이며 특히 밭의 추경 작업을 질적으로 보장하며 땅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는 온갖 리화학적 작용을 보장하게 하여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낮고 습한 밭을 배수가 잘 되는 밭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밭 도랑 치기를 철저히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 특히 여름 철에 장마가 나서 밭에 물이 고이여 토양 중의 공기 류통을 못하게 하고 미생물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토양의 립단 조직을 파괴하는 불리한 현상을 막아 내야 한다.

(ㄷ) 토양을 더욱 비옥하게 하는 대책.

유기질 자급 비료를 충분히 시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유기질은 자급 비료에 있음으로 퇴비、구비를 다량 생산 시비하여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이 다수확을 쟁취하는 **기본 고리로** 된다. 동기 간에 곡초、락엽、니탄

기타 지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원천들을 남김 없이 동원하여 정당 논에는 二○톤、밭에는 一○톤 이상의 유기질 자급 비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

토성을 개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는 객토 작업이다。 모래 땅에는 유기질이 많은 점토를、점토질에는 사질 토양을 객토하며 또한 개바닥 흙、공한지의 잔딧풀장、불필요한 논 밭 변둑 등을 논 밭에 객토로 집어 넣는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록비용 두과 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토양의 비옥도를 제고하는 좋은 방법이다。 특히 수도 전작、과수원과 상전들에 헤아리벳치、완두、콩 등을 재배하였다가 개화기에 베여서 록비로 사용할 것이다。

끝으로 선진적인 쏘련 농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유기 광물질 비료의 시비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유기질이 부족하거나 산성화된 땅을 비롯하여 어떠한 땅을 막론하고 시비할 수 있다。

유기 광물질 비료의 제조 사용 방법은 一정보 당 퇴비(또는 부숙 니탄) 三톤 五백 키로그람을 준비하고 과린산석회 二백 키로그람、초석회 三백 키로그람을 퇴비와 잘 혼합하여 포전에 산포하고 기경하는 것이다。 一정보 당에 산포한 유기 광물질 비료는 퇴비 정당 四○톤을 시비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 대책들이 토지의 복구 및 보호 사업으로서 시급히 실시해야 할 과업들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중요한 토지 복구 및 보호 사업을 누가 하겠는가。

물론 당과 정부에서는 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큰 공사들도 많이 하고 또 해당한 조치도 취하여 이 사업을 조직 실시하였으며 또 할 것이다。 이 사업은 전 인민적 운동으로 진개되여야 할 사업이다。

사업 자체가 일시에 많은 인원들의 공동 로력을 요구하는 것 만큼 전체 리적인 사업으로도 될 수 있으며 부락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다。

이 사업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든 간에 이러한 전 인민적 운동에서 농촌 청년들은 헌신적이며 모범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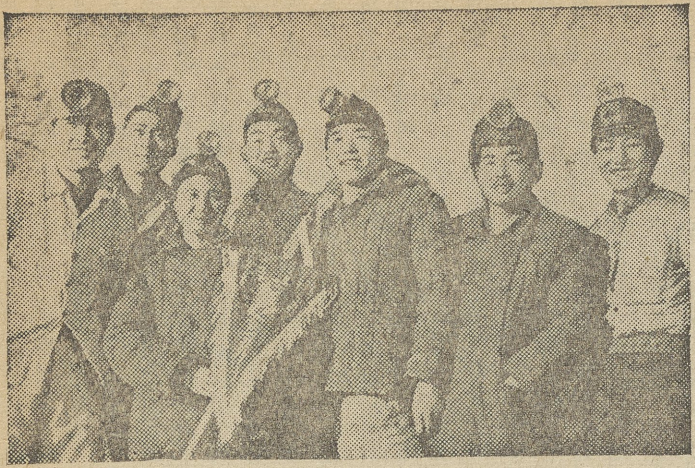
탄광의 젊은 애국자들

—함북도내 탄광들에서—

박 근

박종묵

리정규 (사진)



아오지 탄광 남옥순 민청 돌격대원들

四개월이 지나서

一九五四년 七월 一二일 로동당 함북도당 열성자 회의에서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는 우리 나라 탄광의 장래 발전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청년들은 어렵고도 곤난한 일을 솔선 담당하며 탄광내 직접 부문에 적극 진출하여 석탄 증산에서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것을 도내 전체 청년들에게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간곡한 교시는 도내 전체 청년들을 궐기시켰다。

김책군 룡포리의 벽촌에서、라진군 라진읍 가두에서、도내 각처에서 청년들은 탄광에 진출할 것을 열렬히 지원하여 나섰다。

그때로부터 四개월이 지났다。

一천 수백명의 청년들이 탄광에 새로 진출하였으며 간접 부문에서 일하던 많은 청년들이 굴진、지주、채탄 등 직접 부문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지금 크낙한 포부와 열성을 품고 증산과 기술 습득을 위한 투쟁에 참가하고 있다。 그들이 四급공이란 최저급수를 받던 때도 벌써 지나간 이야기로 되였다。 그들 중에는 지금 五급、六급공들이 수다히 있으며 날이 갈수록 높은 급의 기능공으로 발전하고 있다。 각처 탄광들에는 민청 돌격대들이 청년들의 발기에 의하여 조직되였으며 그들은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솔선 감당 수행하는 용감하고 강인한 투사로 나서고 있다。 우리 나라 지하에 석탄은 무진장하다。 무궁 무진한 매장량을 가진 우리 나라 탄광에서 일하는 그들은 전도 양양한 자기들의 희망찬 생활에 더욱 높은 긍지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지금 로동과 생활에서 낡은 것을 극복하며 새로운 기술과 작업 방법을 도입하며 새 생활 풍습을 창조하는 선두에 서 있다。 그들은 강인하고 용감한 청년 탄부로 믿음직하게 장성 발전되여 가고 있다。

용감하고 강인한 『민청 돌격대』

돌격대——이 말은 가장 어려운 일을 대중의 선두에서 수행한 사람들에게 주는 영예로운 칭호이다。 함북도내 각 탄

광들에 조직된『민청 돌격대』들은 모든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뒤떨어진 탄광 부문의 생산 과제를 회복하기 위한 전초에 나섰다。 함북도내 각 탄광에 조직된 二二개의『민청 돌격대』에는 二五二명의 강인하고 용감한 젊은이들이 망라되고 있다。 아오지 탄광에는 네개의『민청 돌격대』와 한개의 청년 작업반이 있다。 룡연 분광장에서 그 이름을 떨치고 있는 김규현『민청 돌격대』를 비롯하여 남옥순、리창국 돌격대와 회암 본광장에 조직된 전용손 돌격대원들은 돌격대의 긍지도 드높이 자기들의 생산 과제를 매일 초과 완수하고있다。

김규현은 조국 해방 전쟁 당시 원쑤의 폭격에 자기의 왼 손을 잃은 영예 군인이다。 그는 손이 하나 없는 조건하에서도 남보다 항상 一二〇%이상의 생산 성과를 올리고 있다。 자기의 신체 조건에 알맞게 삽을 개조한 후 그는 채탄 부문에서 비상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는 이와같이 자기의 생산 과제 실천에서 뿐만 아니라『민청 돌격대』운영에서도 고귀한 경험을 뵈여주고 있다。

그는 일별 계획을 수립하며 돌격대외 계획에 신입 로동 청년들의 기술 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을 포함시킨다。 기사、기수、경험 많은 탄부들을 직접 초빙하여 기술 전습회、경험 교환회、기술 좌담회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그는 자기의 대원들을 합숙한 방에 집결시키고 경험 좌담회 또는 결함을 퇴치하기 위한 협의회 등을 매일 조직한다。 특히 기술 전습회에서 배운 온성 탄광 리성로 동무의 三대공 발파법、김직현 영웅의 복식 련속 발파법、장벽식 채탄 방법 다마구리 운동등과 같이 어려운 문제들은 매일 토론회를 조직하여 잘 리해되지 않은 부분들을 완전히 납득시킨다。 작업이 끝나면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습에 꾸준하다。 일주일에 一회씩 석탄 기수 김정규를 통하여 기술 학습을 받고 있으며 그외에 그에게서 수 많은 기술 서적들을 빌려서 자체 학습을 한다。

이와같이 기술 습득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한 결과 그가 지도하는 대원들은 전부 신입 로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五급공이 되였으며 강태진、김수동 동무들은 최근에 六급공으로 되였다。

신입 로동자들인 그들이 기술 수준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높은 생산 능률을 올리게 된 것은 전체 대원들의 의지의 통일과 집체적 로력의 고상한 품성을 배양한데 있었다。

남옥순『민청 돌격대』는 一〇월에 순회『승리의 기』를 쟁취하였다。 남옥순은 一二월 三일 현재로 자기의 년간 계획을 완수하였다。 그는 일찌기 김직현



(민청 돌격 대장들 우로부터 전용손、남옥순、김규현、권명우、리창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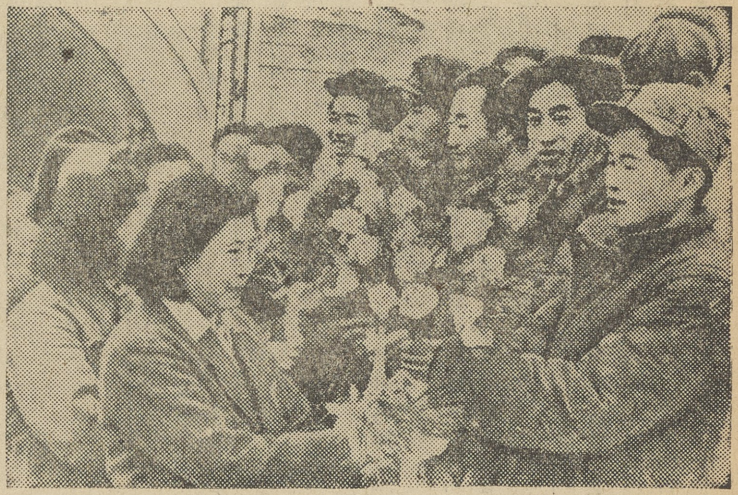
복구 건설장에서

영웅의 후산공으로 오래 일하였다。 김직현 영웅은 항상 그에게 기술을 습득할 데 대한 문제와 일에서 꾸준할 것을 가르쳤다。 그는 영웅의 이와 같은 가르침을 일상 명심하여 자기의 작업에 꾸준함으로써 다른 탄부들의 지극한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최암 분광장에서 그 명성을 높이고 있는 전용손 민청 돌격대원들의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한 투쟁이라던가、리창국 돌격대원들의 용감성은 전체 탄부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다。

경험 많은 탄부들과 함께

농촌에서、가두에서 굳은 결의와 커다란 포부를 가슴에 안고 탄광에 들어온 그들의 절대 다수는 "탄광 로동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개념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각 탄광들에서는 젊은 신입 탄부들을 경험 많은 탄부들 속에서 교양함에 주목을 돌리고 있다。 각 탄광에 조직된『민청 돌격대』대원들은 경험 많은 탄부들의 지도를 즐겨 받고 있다。



* 년간 계획을 완수한 탄부들에게 꽃다발을!

아오지 탄광 룡연 분광장 채탄부문『민청 돌격대』대장 남옥순은 로련한 탄부들과의 모임을 자주 조직하였다。

三五년간의 경험을 가진 탄부 한장근은 자기 손자에게 대대 손손 물려받던 세간이나 인계하듯이 탄광 사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주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새로 들어온 젊은 탄부들에게 큰 방조로 된다。

『이 사람들 바로 이 마구리 일세、노다지가 막 쏟아져 나온 곳이。 그때는 참 다덜 춤을 췄지、이 갱구에서 쭉 더 리 세멘 콩크리만 하게 되면 지하 궁전이 될 터이지、륙평도는 탄질이 대단히 좋네、자네들은 기름이 질질 흐를듯한 탄덩어리가 막 쏟아져 나올때 어떻던가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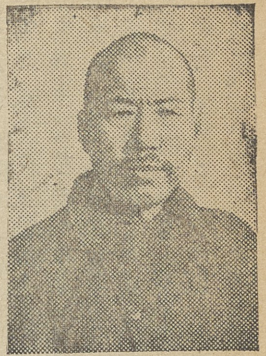
그는 탄광내 사정을 손금처럼 굽어보며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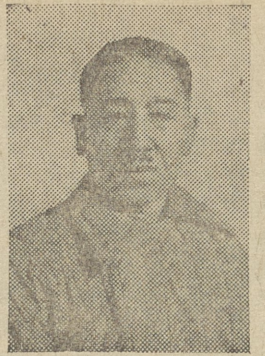
그들은 직접 갱내에서 많은 기술들을 배우고 있다。 작업 과정에서 ―휴식시간을 통하여 그들은 직접 산 기술을 습득하기에 전력을 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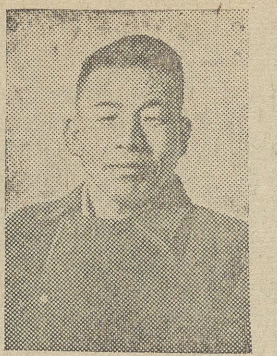
꼼뻬야첸의 련결법、모타 배치장소、그 방식、동발 세우는 법、트리루 사용법 등 다종다양한 작업 기술을 실제 작업 과정에서 배우고 있다。

경험 많은 탄부들도 또한 젊은 탄부들이 애써 기술을 배우는 것을 보면 매우 흡족해 하였다。 그는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사뭇 만족한 어조로 갖 들어온 젊은 탄부들에게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리명섭、한장근、리병묵 경험 많은 탄부들은 항상 입 버릇처럼 이야기한다。

★경험많은 탄부들★


리명섭


한장근


리병묵

『젊은이들 생각해 보랑이、아오지 탄광 적탄 매장량은 몇백년 캐야할런지 알배 없는 일이야、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기술이 필요하며 특히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이 필요하당이』

김일성 원수의 교시를 받들고 탄광 부문에 진출한 청년들에게 주는 경험 많은 탄부들의 이와같이 고귀한 경험담과 교훈은 젊은 탄부들의 심정에 큰 충동을 주었다。젊은 탄부들은 항내 작업 행정에서도 휴식 시간에도 경험 많은 탄부들의 따뜻한 지도를 받는다。

머지않아 탄광의 지주가 되며 훌륭한 주인이 될 젊은 탄부들은 지금 경험 많은 탄부들과 함께 더욱 씩씩히 일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교시 실천을 위한 투쟁에서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그러나 그들의 앞에는 아직도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

신입 로동 청년들이 대량적으로 들어온 조건을 타산하지 않고 일부 탄광내 민청 단체들에서는 기술 전습회 및 기술 강연회、기술 좌담회 사업들을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직도 부분적인 탄광들에서는 『개새끼 소새끼』등 비 문화적인 언사들이 계속 쓰이고 있다。이외에도 일제 시대의 낡은 악습이 탄부들의 생활에서 종종 발로되고 있다。부분적인 탄부들

독자들 편지에서

토지 복구 사업과 민청원들

우리 군대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로동당 중앙 위원회 一一월 전원 회의 결정에 지적된 중요 과업인 토지 복구를 위한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三개소의 제방공사장에는 매일 二、四○○ 여명의 청년들이 동원되여 자기들의 과제를 초과 실행하고 있다。

우리군은 금년도·수해로 인하여 七、○○○ 단보의 토지가 피해 당했다。이의 완전 복구를 위하여서는 四二만 공수의 로력으로써 七八만 립방의 토양을 운반하여 제방을 구축해야만 된다。

로동당 군당 위원회는 전체 군내 인민들의 창조적 열성을 제방 공사에 동원할 대책을 제시하였다。당은 이 사업에서 민청 단체와 민청원들이 애국적 열성을 발휘할 것을 호소했다。당의 지도를 받아 군 민청 위원회는 지난 一○월초 리 민청 위원장들과의 협의회에서 제방 공사의 질의 보장과 기한 단축을 위한 투쟁에 청년들을 조직 동원할 계획을 협의했다。

군 민청 위원회는 이 사업에 자기의 상당한 지도 력량을 돌리고 있다。

一○명의 직외 강사들을 동원하여 강연 선전과 담화등을 조직 진행하였다。

군 민청 위원회는 결산—선거를 위한 총회들에서 수해지 복구를 위한 긴급한 과업



중에는 봉급의 많은 부분을 분별없이 음주에 랑비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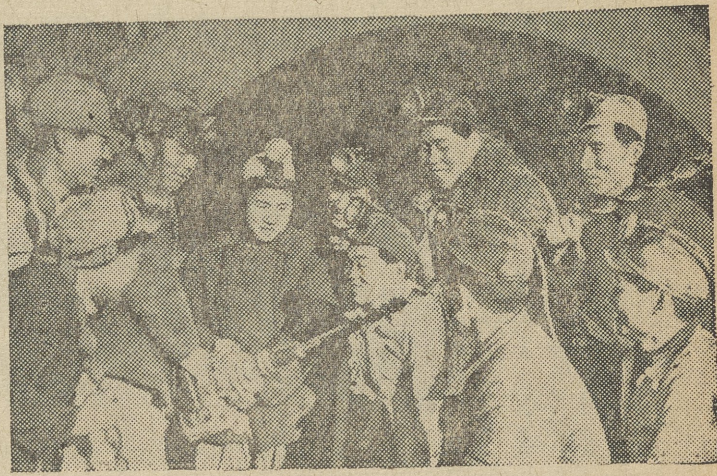
기타 탄광내 군중 문화 체육 사업들이 부진 상태에 있으나 민청 단체는 이에 대한 관심을 적게 돌리고 있다。

탄광내 민청 단체는 자기 사업의 중심 고리를 튼튼히 틀어잡고 자기의 지도 수준을 부단히 개선하며 청년들 속에서의 낡은 의식 잔재와의 투쟁、생산 문화의 수립、군중 체육 문화 사업의 강화、신입 탄부들에 대한 정치 교양 사업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돌리며 젊은 탄부들의 생활에 일상적으로 주의 깊은 배려를 돌려야할 것이다。

탄부에 대한 당과 정부의 두터운 배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탄광 부문 일꾼들에게 그 어느 산업 부문 일꾼들 보다도 두터운 배려를 돌리고 있다。

공화국 내각은 석탄 공업 부문 일꾼들을 우대할 데 관한 결정 一四二호를 채택하였다。이 결정에는 석탄 공업 부문 로동자、기술자들중 갱내 작업에서 一○년 이상 또는 갱외 작업에서 一五년 이상 계속 특출하게 근무한 자에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훈 탄부 칭호를 수여하는 국가 표창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에 제의할 것이 결정되였다。이 제의는 최고 인민회


* 경험많은 탄부들에게서 청년 돌격대원들은 배우며 일한다。

들이 중요하게 토의되도록 지도했다。당과 정부는 우리 군의 수해지 복구를 위하여 二○○톤의 식량과 각종 기자재를 무상으로 보내주었는바 당과 정부의 두터운 배려는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의 창조적 열성을 무한히 고무했다。군 민청 위원회는 앙양된 청년들의 열성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그들의 사업 성과를 더욱 고무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조직하고 있다。

지인리 청년들의 호소에 호응하여 군내 농민 청년들은 리별로 청년 작업대를 조직하고 제일 어렵고 힘든 구역을 말았다。군 민청 위원회는 인민 정권 기관과의 련계밑에 리별로 동원된 청년 작업대의 력량과 공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호상 경쟁을 조직하고 계획의 초과 완수에로 그들의 열성을 추동하고 있다。작업대별로 선동원을 배치하고 그들에게 수시로 강습을 주어 그들의 활동을 높이며 속보『번개』는 경쟁 성과를 보도하고 있다。그리고 작업 행정의 합리화와 합리적인 로력 배치를 위하여 매일 청년 작업대들의 사업을 총화하며 매주 정기적인 경험 교환회들을 조직해 주고 있다。

지인리 민청원들을 비롯하여 다수 청년 작업대들은 운반 도구를 창안 개조하여 로력 조직의 합리화로써 一三○—一五○%의 능률을 높여 四○일간의 공사 기일을 一○일간 단축 할 수 있게 하였다。

의 상임 위원회 정령으로 공포되였다。

또한 매년 九월중 세째 일요일을 탄부절로 정하기로 하였으며 함경북도와 서천 온천 지대에 석탄 공업 부문 로동자、기술자들의 전용 정 휴양소를 一九五五년내로 신설하기로 되여있다。뿐만 아니라 탄광 부문 일군들의 로동 보호 용구、작업 필수품 무상 대여와 영양제 무상 급여를 일부 추가 또는 개정할 것이 토의 결정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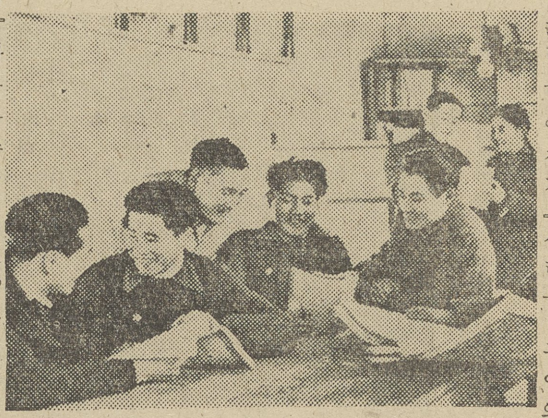
四二년간 탄광 로동에 그 일생을 보내는 리명섭 로인은 당과 정부의 따뜻한 배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네 아들을 해방되자 생각도 못하던 중학교에 보냈슈다。지금은 군대에 가서 둘은 군관이 되였소。어디 꿈에나 생각던 일입니까 일본놈 때에는 그날 그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쉐다。그러나 지금 우리 생활을 보면 딴 판으로 유족해 졌쉐다。그런데 또 이렇게 큰 배려를 해주시니 거저 더 살아 더 많이 일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쉐다』

이 탄광 경험 많은 탄부들은 저마다 이렇게 이구 동성으로 말한다。젊은 탄부들의 기세는 드높다。

『저는 이 탄광에서 일생을 보내겠어요、그리고 꼭 공훈 탄부의 영예를 지니겠어요』

이것은 비단 김규현、전용손 돌격 대장들의 말뿐이 아니다。이곳 젊은 탄부들이 누구나 가슴 속 깊이 품고 있는 욕망이며 리상인 것이다。수천척 지하의 탄층에서도 항시 당과 정부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젊은 탄부들의 증산 의욕은 사뭇 큰 것이다。


* 도서실에서의 전용손 돌격대원들

레닌은 일찌기 『석탄은 공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시였다。우리나라 공업에서 이와같이 중요한 부문인 석탄 공업부문에서 일하는 탄부들을 인민들은 존경과 사랑으로 대한다。공화국의 따뜻한 배려와 전체 인민들의 존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탄부들은 지금 더 많은 석탄을 조국의 복구 건설장에 보내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궐기하고 있다。

도구미리 민청원들은 조기 작업을 실시하며 개인별 경쟁은 조직 진행하는 등으로 매일 一인당 三립방의 책임량을 四—五립방으로써 완수하고 있다。

군 민청 위원회는 공사장에 책임 일군들을 파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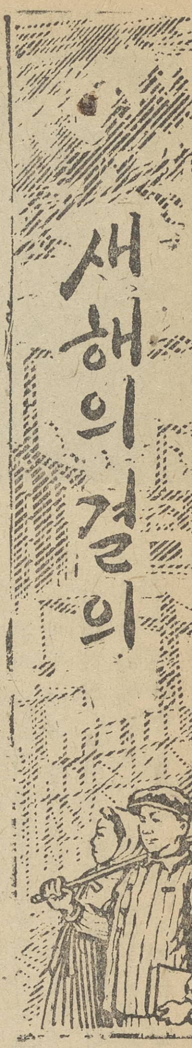
현장에서의 정기적인 학습、매일 진행되는 시사해설、군중 오락、체육 경기들은 청년들의 생활을 더욱 활기있게 하고 있다。그리하여 공사장은 로력을 통한 청년들의 진정한 교양의 학교로 되고 있다。

이미 연 五만여명의 청년들이 사업에 동원되였다。

공사장에 동원된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자기들의 창조적 로력을 이 공사의 기한전 완수에 바치고 있다。

이렇듯 군내 전체 청년들은 재해의 다수확을 위하여 토지 복구 사업에 높은 열성을 발휘하고 있다。

함남 인흥군 민청 위원장 고 우 봉



금년도 계획을 四월까지 완수할 것이다

평양 방직 공장
로력영웅 김 봉 례



一九五五년—새해를 맞는 나의 가슴은 무한한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며칠 전에 김복실 동무와 함께 평양 제一 국영 백화점 포목부에 가보았다。깨끗하게 단장된 백화점에서는 우리 공장에서 생산된 가지각색의 천들이 싼 값으로 잘 팔리고 있었다。

나는 나의 로력과 땀의 결과가 인민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를 직접 보았을 때 더욱 기뻤다。

새해를 맞는 나는 더 질 좋고 값싼 옷감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생활에 더 많이 봉사할 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인민 생활 향상에 두터운 배려를 돌려 주시는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에게 보답할 것이다。

새해부터 나는 새로운 쏘련제 정방기를 담당 운전하게 된다。

나는 이미 작년 말부터 작업 시간후에 그를 가동하면서 운전에 익숙해졌다。

나는 현재 七二〇추를 담당하고 있는데 一·四분기에는 一、〇八〇추、四·四분기부터는 一、二六〇추를 담당하며 추당 실적은 一七五%로 높일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나는 금년도 계획을 四월에 완수할 것이다。

동시에 나는 금년도에 八〇〇추공 四명을 비롯하여 五三명의 다추공을 양성하겠다。

한편으로 복면률을 저하시켜 一〇톤의 솜을 절약하겠다。

그러기 위하여 나는 쏘련 기사에게서 기술을 더욱 성실하게 배우며 청소를 작업의 첫째 가는 과업으로 삼으며 계사 시간은 三초로、조사 교환 시간은 五·五초로 단축시키며 순회로를 정확히 잡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

작년도 년간 계획을 五월 二五일에 완수한 경험에 비추어 금년도의 나의 목표도 능히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선진 작업 방법을 도입하여

평양 제一 건설 트레스트
벽돌공 최 재 수

一九五四년 초 내가 처음 평양에 왔을 때만 하여도 평양은 전쟁의 상처를 채 벗어 나지 못하였다。

앙상하게 서 있는 고층 건물의 담벽들、엿가락처럼 꾸부러진 전차 레일、아무데서 보아도 폐허—이것이 바로 一년전의 평양의 모습이였다。그러나 오늘의 평양은 一년전 그때와는 비길 바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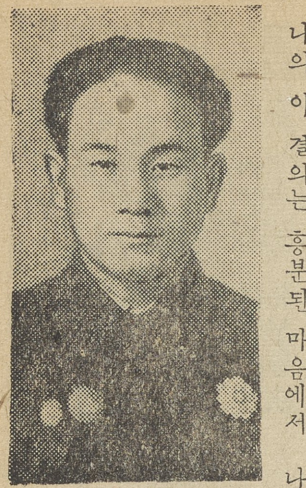
이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유서 깊은 모란봉에 세워진 모란봉 극장, 평양 거리의 대동맥—쓰딸린 대통로를 끼고 웅장하게 일어서는 중앙 청사, 국제 호텔, 대동 강변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로동자 아빠트가 위용을 자랑하고 밤이면 수 없이 줄 지어 선 가로등이 평양의 거리를 화려하게 밝혀 주고 있다.

한달이 옛날로 달라지는 평양의 빠른 건설 속도는 민주 수도 진설장의 한 사람으로 나선 나에게 더 높은 긍지와 영예감을 북돋아 준다.

밝아 오는 一九五五년의 보람찬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젊은 건설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경건한 마음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에게 새해의 결의를 이렇게 다졌다.

—一九五五년도 년간 계획을 二개월 단축하여 당과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당신의 호소에 보답하겠습니다—고.



나의 이 결의는 흥분된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나는 나의 결의를 실천할 수 있는 자신을 지난 해의 경험을 통하여 가지게 되였다. 지난 해 나는 벽돌 쌓기에서 『五인조 작업 방법』을 적용하여 一九五四년도 년간 계획을 一개월 단축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나는 금년에 매일 평균 二、五〇〇매의 벽돌을 쌓겠다.

하루 一、五〇〇매씩 쌓던 것에 비하여 거의 二배나 되는 작업량을 완수하려면 여기에는 반드시 새로운 작업 방법이 필요하다. 새해에는 이미 실시해 온 『三인조』 또는 『二인조』 작업 방법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벽체가 넓고 긴 평벽 쌓기에는 새로운 작업 방법인 『계주식 작업 방법』을 적용하겠다. 『계주식 작업 방법』을 적용하려면 작업 동작을 민활히 하여야 하는바 나는 이를 위하여 벽체에서 二〇—三〇센치 거리의 작업 위치를 정확히 보장하며 두 다리는 七〇—八〇센치 정도를 디디는 것이 습관되도록 노력하겠다. 작업시에 작업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발판을 더 넓게 만들어 조력공들과 운반공들이 서로 마주치게 하지 않으며 벽돌을 신속히 나르도록 하기에 더욱 창발성을 발휘하겠다.

이 몇가지 문제를 옳게 실시하려면 종전에 하던 일보다 더욱 많은 노력과 세심한 주의를 돌려야 하며 새로운 작업 방법에 익숙하여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나는 새해 벽두 다진 나의 결의를 어떠한 난관과 애로에 부닥치여도 기어이 완수하고야 말겠다.

나는 조선 인민의 불굴의 의지와 영웅성의 상징으로 되는 민주 수도—평양의 화려하고도 웅장한 복구 건설에 로력을 바치는 크나큰 영예와 자랑을 간직하고 나의 로력과 정열과 지혜를 남김 없이 바칠 것을 굳게 맹세한다.

생고무를 절약하여 一만 四천 二三五족의 고무신을 국가에

평양 고무 공장

제화공 **김 순 실**

나는 지난 一년 동안에 一만 二천 七二족을 만들 수 있는 생 고무를 절약하였고 년간 계획도 二개월 단축하여 一〇월 五일에 완수하였다.

一九五四년을 총화하면서 나는 새해에는 더 맵시 있는 더 많은 고무신을 생산하여 인민들의 요구에 보답할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족당 생고무를 三四그람씩 절약하여 하루 평균 一七、〇〇〇키로그람씩 절약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금년 말까지 一만 四천 二三五족의 고무

복구 건설장에서



신을 만들 수 있는 생고무로 된다. 그러기 위하여 나는 일을 문화적으로 하며 혹 고무신에는 라바를 말아 넣치 않고 선을 감으며 또는 가위 밥을 한쪼각도 버리지 않고 절약한다면 질도 보장하고 이 목표도 능히 달성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종전에 휘발유를 한짝씩 칠하던 것을 단번에 여러짝씩 칠함으로써 하루에 휘발유를 三二그람씩 절약하여 년간 四五、〇〇〇족에 칠할 수 있는 휘발유를 절약하겠다. 나는 생고무 절약과 함께 "분업식 작업 방법"을 "류수식 작업 방법"으로 개조하여 매일 생산 능률을 一八〇% 이상으로 높이며 三개년 계획을 一년 一〇개월로 단축하겠다. 나의 조그마한 로력이 민주기지를 강화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풍요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의 로력과 생활은 더없이 보람차다.

밀림 정복자의 포부

화평 림산 사업소

벌목공 **염 보 현**

나는 울창한 밀림 속에서 새해를 맞는다. 일터마다에서 일하는 사람마다가 제각기 다른 포부를 가지고 새 해를 맞이하였을 것이다. 나는 밀림을 정복하는 벌목부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감과 포부를 가지고 이 해 첫 아침을 맞이하였다.

그것은 조국의 도시와 마을들이 더 빨리, 더 화려하게 건설되자면 내가 베내는 재목이 더 많이 필요하리라는데서 출발하는 로력의 행복감이며 땀의 결정에 대한 자랑이다.

나는 一九五五년을 三개년 계획 기한 단축을 위한 증산 돌격의 해로 결정하였다.

나는 지난 一二월 一八일 민청 중앙 위원회 三·四분기 "승리의 깃발"을 수여하는 민청 총회에서 복구 건설장에 더 많은 원목을 보내기 위하여 三개년 계획을 一년 三개월 단축할 것을 결의했다.

지난 해에도 나는 년간 계획을 三개월 단축하여 一八〇%로 초과 완수하였다. 지금 나는 원목 생산에서 자기 책임량보다 一〇〇%를 더 초과 실행할 것을 굳게 결심하고 있다.

나는 기술 수준을 더욱 높이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줄채벌 법"을 더 능숙하게 적용하여 로동 시간을 一분 一초라도 랑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매일 작업 시간 전에 모든 작업 준비를 완료하되 특히 톱과 도끼를 극력 아껴 씀으로써 소모률을 최대한으로 감소시킨다.

나는 三개년 계획 완수의 결정적인 해인 一九五五년도 첫 출발부터 나의 결의를 성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민주 수도 건설에 나선 젊은 벗들과 나는 호흡을 같이하면서 그들과 꼭 같은 간절한 애국의 념원으로 이 해에도 나는 밀림에서 청춘의 보람찬 로력을 바칠 것이다.

청년들에 대한 독서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민청 중앙 위원회 정치 문화 교양부 부부장 김 기 민

책은 우리들의 생활에서의 조언자이며 과학과 기술 지식의 원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은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친우이며 스승이다.

책은 우리들에게 우리 조국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주며 조국의 훌륭한 인사들에 대하여서와 그들이 창조한 로력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로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책들을 통하여 우리들은 인류의 과거와 현재를 알게되며 인류가 수천년을 두고 쌓아 올린 풍부한 과학과 문화를 소유하게되며 맑쓰, 엥겔쓰, 레닌, 쓰딸린의 사상들에 기초하여 어떻게 세계를 개조할 것인가를 깨닫게하여준다.

책은 로동에서도 우리의 으뜸가는 방조자이다.

우리의 로력 혁신자들을 비롯하여 로동 청년들은 기계를 좀더 훌륭하게 운전하기 위하여 기술 서적들을 읽고 있으며 농촌 청년들은 풍작을 거두기 위하여 선진 영농법과 목축 관리법에 대한 책을 애독하며 교원들은 아동들을 더 잘 가르치고 교양하기 위하여 교육학 서적들을 읽으면서 많은 지식을 얻고 있다.

훌륭한 문학 서적들은 청년들을 높은 도덕적 품성으로 교양하며 조국에 헌신적으로 복무하도록 교양하여주고 있다. 따라서 **청년들에 대한 독서 지도사업은 민청단체들의 일상적 중요 사업으로 되여 왔으며 또 되고 있다.**

그러면 민청 초급단체(분 초급 단체) 위원회에서는 청년들 속에서 독서 사업을 어떻게 조직 진행할 것인가? 독서 사업 지도에서 초급 단체 위원회들은 자기의 첫 주목을 청년들 속에서 독서 기풍을 수립하는데 돌려야한다.

매개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손에는 항상 책이 있어야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민청원들 중에는 수개월간에 한권의 책도 읽지 않는 그런 사람이 드물지않다.

민청 초급 단체 위원회들은 청년들 속에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하여 선전하여야하며 총회나 위원회에서 수시로 청년들의 독서 문제를 중요하게 토론하여야한다. 초급 단체 위원회에서는 누가 어떤 책을 애독하고 있으며 누가 수개월간 책을 전혀 읽지 않는가를 잘 알아 보고 책을 잘 읽고 자기 지식을 풍부히 하기에 노력하는 동무들을 찬양하며 그들의 경험들을 전파시켜야한다. 한편 책을 잘 읽지 않는 동무들에게는 민청원들의 중요 임무는 자기의 정치 문화 수준을 높이는데 있다는 것을 꾸준히 설복하며 독서에 대한 그들의 흥미를 북돋아 주며 독서의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한다.

민청원들이 읽어야할 책은 이미 우리 나라에서 출판된 것만도 각 부문에 걸쳐 허다하다.

청년들은 맑쓰—레닌주의 리론을 습득하기 위하여 맑쓰, 엥겔쓰, 레닌, 쓰딸린의 저서들과 쏘련 공산당력사를 읽어야하며 레닌, 쓰딸린의 략전을 읽어야 한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김일성 원수의 략전과 김일성 원수의 제 로작들을 꾸준히 연구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은 신문들과 잡지들을 일상적으로 읽음으로써 당과 정부의 제 결정들과 국제 국내 정세들을 깊이 파악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문학 예술 작품들을 애독하여야한다. 문학 예술 작품은 청년들의 문화 수준을 제고하며 고상한 도덕적 품성을 소유시킴에 있어서 우력한 무기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발간된 훌륭한 문학 서적들인 한설야작 『력사』, 리기영작 『두만강』, 조기천작 『백두산』, 『생의 노래』 등과 쏘베트 문학 작품들인 니꼴라이 오쓰뜨롭쓰끼 작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 파제예브 작 『청년 근위대』, 라찌스 작 『새 언덕으로』, 브뽀브 작 『강철과 광재』, 와씰리 아쟈예브 작 『모쓰크바를 멀리 떨어져서』, 그리고리 쓰비르쓰끼 작 『번영하라 대학이여!』 등은 훌륭한 작품들이다.

청년들은 과학 기술 서적들을 일상적으로 읽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와 쏘련에서 출판되고 있는 각종 과학 리론 서적들과 과학 잡지들, 각종 선진적 작업 방법들을 소개한 기술 서적들, 선진 영농법과 목축 관리법들을 서술한 기술 서적 등은 청년들에게 과학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며 로동에서 높은 능률을 달성함에 큰 방조를 주고 있다.

독서 사업 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서적에 대한 선전이다. 책에 대한 옳은 선전이 없이는 청년들이 어떠한 **책을 읽어야 할지 잘 모르고 있으며 따라서 청년들 속**에서 독서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 초급 단체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나 혹은 열성 맹원들 중에서 독서 사업 지도를 분공하고 책에 대한 선전을 활발히 조직하여야 한다. 신문 잡지들에 게재되는 신간 소개, 서평, 경개문들을 통하여 또는 도서관의 방조를 받아 매개 책들의 내용을 알아다가 회의 혹은 학습 등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모임을 리용하여 소개하며 벽보, 속보 등 직관물들을 통하여 책들을 안내하여주어야 한다.

또한 시, 군 민청 위원회와 도서관들로부터 강사를 초빙하여 새 책들에 대한 해설과 강연들을 조직하며 책을 잘 읽는 동무들을 출연시키여 해설들을 조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책에 대한 선전에서 주의할 것은 자기 초급 단체 맹원들의 수준에 맞는 책들을 선택하여 선전하여 주며 책의 기본 내용들과 그 책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독서 지도에서 주의 해야할 점은 처음부터 자기 수준 보다 훨씬 높은 어렵고 분량이 많은 책을 읽을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취미와 수준에 맞게 책들을 선정하여 주며 독서 방법을 알려주며 계통적으로 수준을 높이며 독서하도록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독서 지도 사업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서적 구입과 서적 대여 사업을 잘 조직하는 문제이다. 초급 단체 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공동적으로 책을 구입하여 주며 도서관 또는 민주 선전실에서 서적을 빌려 순환적으로 서적을 대여하여 열람시키는 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동시에 도서관과 구락부 및 민주선전실의 열성적 독자로서 청년들을 적극 망라시키며 그에 비치된 서적들을 광범히 리용하도록 조직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생산 직장 및 농촌들에서 독서 사업의 효과적인 방법은 집단적 독서 모임이다. 이것은 청년들에게 단기간에 일이 서적을 열람시키기 곤난한 조건 하에서 **퍽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경험은 보여주고 있다.

초급 단체 위원회에서는 매월 계획적으로 훌륭한 문학 서적들을 설정하고 이 책을 독서에 소질 있는 동무들에게 분공하여 준비시킨 다음 독서 모임을 조직하고 집단적으로 책을 랑독하여 준다.

함경 북도 김책군 내 많은 농촌 초급 단체들에서는 이 독서 모임이 잘 진행되고 있는바 매월 한권 또는 두권 정도의 문학 서적을 설정하고 민주 선전실들에 모여서 흥미 있게 서적 랑독을 조직하여 줌으로써 전체 청년들이 훌륭한 문학 서적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독서 사업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서적에 대한 강연, 독자회, 서적 합평회, 독자 꼰페렌찌야 등의 방법을 내용 있게 진행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청년들에게 독서열을 제고시키며 독서 방법을 가르쳐 주며 서적을 평할 줄 알게 하며 서적을 실지 사업과 결부하여 깊이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독자회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이 있는데 주로는 어떤 서적을 전체 동무들에게 읽힌 다음 그에 대한 자기의 감상을 토론하게 하며 그 책에 대한 평가, 그 책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을 발표하는 방법이다.

얼마 전에 평양시 국립 도서 출판사 내 로동 청년들의 독자회가 진행되였는데 매우 경험적인 것이 많았다. 이 초급 단체에서는 천세봉 작 『싸우는 마을 사람들』을 가지고 독자회를 조직하였는데 사전에 작가를 초빙하여 강연을 조직하였고 이책을 륜독식으로 또는 독서 모임을 조직하여 전체 맹원들에게 초보적으로 연구시키였다.

다음 보고자를 두 동무로 선정하고 보고 체계들을 토론하여 충분히 준비시키였다.

독자회에서는 초급 단체 부 위원장이 보고하였고 다섯 동무가 토론하였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이 책에서 배울 점, 주인공의 성격,



이 책에 대한 자기들의 의견 등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 감상을 토론하였다.

결론은 작가로부터 받았다.

이 독자회에 참가한 전체 맹원들과 청년들은 독서 방법, 그 책의 주인공에게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원쑤들과의 투쟁에서 용감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배웠으며 자기 사업에 더욱 충실할 것을 일치하게 결의하였다.

독서 지도는 이 외에도 서적을 읽고 감상을 쓰게하며 토론회를 조직하며 과학—기술 서적을 읽고 실습을 조직하여 실지 사업에 적용시키는 사업 등 여러가지가 있다.

청년들에 대한 정치 문화 교양 사업은 민청 단체들의 첫째 과업이다.

새로 선거된 민청 초급 단체(분 초급 단체) 위원회들은 독서 사업을 자기의 일상적인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서 정상적으로 조직 진행하며 그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 새로 선거된 초급단체 위원회에 주는 참고 자료 ▽

초급단체는 민청의 기초이다 (전호에서 계속)

민청 중앙 위원회 조직부

五、민청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청반은 초급단체 (분 초급단체)의 방조적 조직이다. 민청반은 총회와 위원회의 결정을 민청원들 속에 철저히 해석 침투시키며 그 구체적 실천에로 전체 민청원들을 조직 동원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민청반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은 민청원들의 초급단체 생활과 민청의 위임 실행 및 규약상 의무의 준수정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민청원들의 요구와 의견을 일상적으로 초급단체(분 초급단체)에 반영함으로써 초급 단체(분 초급단체) 사업을 적극 방조함을 의미한다. 그러면 민청반은 어떻게 조직되는가?

민청반은 초급단체의 인원 및 지역을 고려하여 조직하되 생산 기업소에서는 공정 단위로, 농촌에서는 인민반 단위로, 학교에서는 학급별 또는 통학 구역별 등 민청원들의 생활상 편리를 고려하여 조직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민청원 숫자가 적은 초급단체(분 초급단체)에서는 기계적으로 민청반을 조직할 필요가 없다.

민청반장은 초급단체(분 초급단체) 총회에서 임명할 수도 있으며 민청반 회의에서 선거할 수도 있다. 이와같이 조직된 민청반은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

민청반은 수시로 반 협의회를 조직하고 매개 민청원들의 민청 생활 정형과 초급단체(분 초급단체) 총회 결정 집행 및 규약상 의무의 실천 정형을 토의한다. 회의에서는 좋은 경험을 보편화하며 결함에 대하여서는 날카로운 자기비판과 호상 비판이 전개되도록 하며 호상 원조를 조직함으로써 민청원들의 초급단체 생활에 대한 열성을 높여 주어야할 것이다.

한편 반 협의회는 매개 민청원들에게 초급단체(분 초급단체) 총회 및 위원회 결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들의 소질과 능력에 알맞게 구체적인 사업분공을 조직하고 그 실행정형을 제때에 검토하여야 한다.

민청반은 총회 二—三일전에 반 협의회를 소집하고 초급단체(분 초급단체) 총회에서 토의될 안건과 그 중심을 민청원들에게 알려주어 그들의 회의 참가 준비를 시키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다.

다음으로 민청반은 초급단체(분 초급단체) 위원회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민청반 민청원들의 고귀한 경험과 제의 및 애로점들을 제때에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하여 주어야한다.

민청반은 반원들의 정치학습과 문화적 소양을 높여주는데 일상적 방조를 주어야한다. 즉 민청 교양망들에서 진행되는 정치 학습에 반원들이 빠짐없이 참가하도록하며 배운 내용을 더욱 철저하게 료해하도록 집체적 토론을 진행하거나 개별적 방조를 조직하여 주어야 한다.

민청반은 민청원들의 문화적 요구를 제때에 타산하여 노래 보급, 시랑송회, 소설 합평회, 영화 연극 감상회, 신문 독보 등의 사업을 수시로 조직하며 집체적 등산, 원족을 조직하며 각종 체육 기구들을 준비한다.

민청반의 중요한 사업은 미조직 청년들을 옳게 교양하는 문제이다. 이들을 옳게 교양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민청가맹을 열성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며 제때에 가맹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민청반의 할바 사업들은 대체 이러하다。

이와같은 사업들은 초급단체(분 초급단체) 위원회의 지도와 아울러 열성자들의 광범한 동원으로써만이 가능하다。

六、민청의 가맹 및 로동당 입당 보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청의 가맹 사업은 민청 조직사업의 기본이며 민청대렬을 확대 공고히하는 중요 부문이다。이 사업에서 초급단체(분초급단체) 위원회가 할 사업은 첫째로 미조직 청년들을 정확히 조사 장악하고 교양주어 민청에 받아 들이기위한 준비 사업이다。

초급단체(분 초급단체) 위원회는 우선 부락、직장、학교내에 있는 미조직 청년들을 철저히 조사 장악하여야 할 것이며 민청 교양망에 자원하여 참가하여 학습을 열성있게 진행하도록 방조를 주어야 한다。다음으로 초급단체(분 초급단체) 공개 총회에 적극 참가시켜 민청 생활을 배워 주며 총회에서 적당한 과업을 분공주어 실행하도록 방조를 주어야 한다。딴 방면으로는 민청 규약 기타 민청 생활 문제로 강연、좌담회 등을 조직하여 그들을 교양하여야 한다。특히 소년단원이라 하여 주의를 적게 돌리지 말며 꾸준한 교양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둘째로 초급단체(분 초급단체)위원회는 가맹을 청원하는 청년들로부터 가맹원서를 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다음 다음 총회에 제기해야 한다 (위원회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부결할 것이 아니라 총회에 반드시 제기할 것) 가맹은 二명의 보증이 있어야 하는바 보증인은 가맹 청원자의 모든 생활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민청원이래야 하며 소년단원이 가맹 할 때에는 소년단 위원회의 결정으로 민청원 一명을 대신하는 보증을 줄 수 있다。

총회에서 가맹문제는 본인의 참가밑에 개별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해야 한다。총회에서는 처음 가맹 청원자로부터 가맹원서 내용에 의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문과 토론을 거친 다음 가맹의 가부를 거수로 결정한다。시간이 없다하여 많은 동무들의 리력을 단꺼번에 듣고 거수 가결을 한번에 해 치우는 방법은 옳지않다。

총회에서 가맹이 결정되면 초급단체(분 초급단체)위원장은 가맹원서에 총회 년 월 일과 수표를 한다음 총회 회의록의 결정 사본을 첨부하여 시(구역)군 민청에 제출하여야한다。단 초급 민청 위원회가 있는 곳은 초급민청 위원회에 가맹 문건을 제기한다。초급민청 위원회는 가맹 문제를 위원회에서 토의하고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구역)군 민청 위원회에 제출한다。(초급 민청 위원회는 가맹 문제를 부결할 권한은 없다)

가맹의 최종 결정은 시(구역)군 민청 상무 위원회에서 하므로 초급단체(분 초급단체) 위원회는 본인을 시(구역)군 민청 상무 위원회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초급단체(분 초급단체) 위원회는 시(구역)군 민청 상무위원회에서 가맹 비준이 될 때까지 계속 가맹 청원자에게 민청 생활에 대하여서와 기타 교양 사업을 계속할 것이며 가맹이 비준되면 맹원 명부에 등록하고 다음번 총회에서 민청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세째로 초급단체(분 초급단체) 위원회는 새로 가맹한 민청원들의 교양에 세심한 주의를 돌리며 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말 것이다。그들의 소질과 능력 등을 충분히 타산하고 적당한 과업을 분공 주며 그들의 요구와 제의를 제때에 해결하여 주며 그들이 위임 맡은바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친

절한 지도와 방조를 아끼지 말 것이다。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四차 전원 회의는 민청원의 입당시의 시(구역)군 민청 위원회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이 보증은 입당자에 대한 보증인 一명을 대신한다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그러면 민청단체는 입당 보증사업을 어떻게 할것인가?

입당 보증의 방법은 첫째로 입당을 청원하는 민청원이 자기가 소속한 초급단체(분 초급단체)에 입당 보증을 요청한다면 초급단체 위원회 또는 총회에서 시(구역)군 민청 상무위원회에 청원자의 입당 보증 요청을 찬성한다는 자기의 결정을 제출하여 입당 보증을 받게 할 수 있다。

둘째 방법은 입당을 지망하는 민청원이 직접 시(구역)군 민청 위원회에 입당 보증 신청을 제출하여 시(구역)군 민청 상무위원회의 입당 보증을 받는 방법이다。

초급단체(분 초급단체) 위원회는 당과 정부와 수령의 교시 실천에서 열성있고 신망이 있으며 모범적인 민청원들을 당 세포와 토의하여 입당 보증을 받도록 지도할 것이며 입당 보증을 줌에 있어서 민청원들의 의견을 광범히 들어야 하며 개별적 심의 원칙에 철저히 립각하여야 한다。

특히 입당 보증사업이 민청원들의 민청 사업에 대한 열성과 입당 준비에 대한 열의를 높이는 계기로 되게끔 지도해야 한다。

초급단체 총회의 입당 보증 요청에 대한 결정에는 입당 청원자의 리력과 활동 정형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여야 한다。

七、민청내 민주주의를 발양시키자

조선 로동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은 동맹내 민주주의를 자기의 조직적 활동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민청내 민주주의—이것은 민청 대렬의 부단한 단결과 공고화를 보장하며 민청원들의 전투적 력량과 창발성을 제고한다。

그러면 민청내 민주주의를 적극 발양시키기 위하여 초급단체 위원회는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

그것은 첫째로 모든 사업을 집체적으로 협의하며 광범한 민청원들의 창발적 의견들을 적극 받아 들여 초급단체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급단체 위원회는 열성자들과의 협의밑에 사업을 분공하고 그의 실천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민청원들의 신소와 의견을 서슴없이 접수 해결하여야 한다。

민청원들의 제의를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들이 이를 까라버리거나 독단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관료주의적 경향과는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민청원들로부터 제의된 신소는 어데까지나 심중히 또 민청 열성자들의 종합된 의견에 의하여 정확히 처리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민청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초급단체 위원회의 임무는 민청 규약상 의무를 철저히 실행하는데 있다。

초급단체 위원회는 초급단체 총회와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의를 자주하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함은 결코 아니다。

회의는 민청 초급단체의 제반 사업을 광범히 토의하며 민청원들의 창발적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맹 사업을 발전시킬 실

제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회의는 충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소기한 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회의들에서는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휘하여 민청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활발한 비판이 전개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초급단체 간부들 가운데는 자기들의 협소한 개별적 견해가 가장 현명한 것으로 알고 민청원들의 의사를 꺾어 버리는 유해한 경향들이 되치 되지 못하고있다.

또한 부분적 초급단체 총회들에서는 사전에 준비시킨 몇명의 「토론군」들의 말 공부나 끝나면 딴 사람들의 의견은 있던 없던간에 토론을 중단시키는 례가 적지않다.

이러한 제 현상들은 민청원들의 집단적이며 창조적 경험들을 억제하며, 창발성을 마비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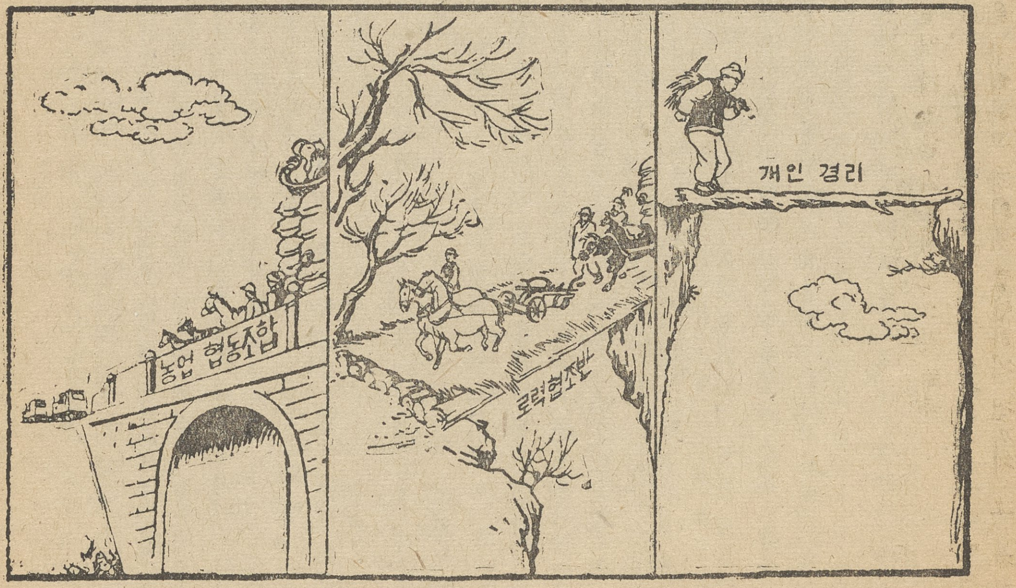
세째로 민청 사업에서 민주주의를 발양시키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비판과 자기비판 특히 밑으로 부터의 비판을 강화하는 문제이다.

상급에 대하여는 아첨하고 민청원들의 비판이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민청 사업에서의 결점들을 하부 민청원들에게서 찾으려는 그릇된 경향은 근절되여야 한다.

비판과 자기 비판은 민청내 민주주의로 부터 출발하는 매개 민청원들의 권리로 될뿐만 아니라 의무로 된다.

이와같이 민청사업에서 민주주의를 적극 발양시킴으로써만이 우리 동맹의 기본 조직인 초급단체(분 초급단체)를 일층 공고히하며 당과 경애하는 수령이 제시한 전투적 과업 실행에서 당의 진실한 방조자로 될수있을 것이다.

☆ 외나무 다리에서 돌다리를 건너서면 ☆



* 외나무 다리를 혼자서 건느려면 겁도 나고 다리도 부들부들

*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외나무 다리를 묶어서 만든 다리를 건너서

* 튼튼한 돌다리를 건느고 나면 농민들은 행복한 사회에 도달한다

(중국 해방 일보에서)

강의에서 직관물 리용

—강원도 문천군 용탄리 민청 제一 초급정치 크루쇼크 지도자 박 보 춘의 사업에서—

김 학 일

『모든 선전원들과 선동원들의 예술은 청강자들에게 훌륭한 진리를 보다 더 확신할 수 있게 보다 더 습득하기 쉽게 명료하며 그리고 심히 감명 깊게 하며 청강자들에게 훌륭한 영향을 주도록 하는데 있다』고 레닌 선생은 일찌기 말씀하시였다.

선전원들이 이렇게 청강자들과 사업을 잘 하자면 학습 지도에서 창조적 노력과 다양한 방법들을 옳게 적용하는데서 만이 가능하다.

선전원들의 강의 수준을 높임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바 그 중에서 직관물 리용은 중요한 역할을 논다. 이는 선전원들이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귀중한 도움을 주며 청강자들로 하여금 문제의 내용과 본질을 더욱 빨리 쉽게 리해하는데 큰 방조를 준다.

선전원 박보춘은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직관물을 효과있게 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선전원으로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부터 강의에서 직관물을 효과있게 리용한 것은 아니다.

처음 그는 학습 장소에 직관물이 한장도 없다는 것만 생각하고 우선 조선 지도 一매와 쏘련 화보에서 오려낸 좋은 그림들을 학습실에 붙여 놓았다. 이때 그는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은 조선 로동당의 충직한 방조자이며 전투적 후비대이다』의 학습 교재에서 제一학습 『조선 로동당은 민청의 조직자이다』를 강의하였는 바 이미 준비하였던 이상과 같은 직관물을 효과있게 리용 못하였다.

왜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였는가? 이것은 직관 자료의 선택에서 그가 고려를 적게 돌렸던데 있었다. 즉 직관물을 준비한다는 것이 학습교재와 공통성이 덜 한 직관자료들을 장만하였기 때문이였다.

그후 그는 직관물의 선택과 제작 준비, 그의 리용에 세심한 주의를 경주하였다.

그는 직관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물깜, 용지 등을 보장 해 줄 것을 초급단체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초급단체 위원회는 제때에 이를 해결하여 주었다.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용지와 물깜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는 강주필과 한옥환을 선발하여 주었다.

선전원 박보춘은 이들과 련계를 자주 가지면서 강의에 필요한 여러가지 직관 자료들을 장만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자기 마을 로동당 정치 학교에 여러번 참관하여 지도자 김익현의 직관물 리용 방법을 배웠다.

김익현의 직관물 리용에서 그가 체득한 것은,

첫째로, 그달에 취급할 교재를 심중히 연구하면서 필요한 직관물을 선택하고 강의에 출연하기 전까지 그 직관물을 준

비한다는 것。

둘째로, 강의안을 작성하면서 어떤 강의 구절에는 어떤 직관물을 어떻게 리용한다는 것을 강의안에 적어 넣고 한번 련습한 다음 강의에 출연한다는 것。

셋째로, 준비된 직관물은 선전원이 강의에만 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강자들의 담화와 토론에서도 광범히 리용된다는 것。

네째로, 강의 과정에서 칠판을 효과있게 리용하는것 등이다。

이와같은 경험은 선전원 박보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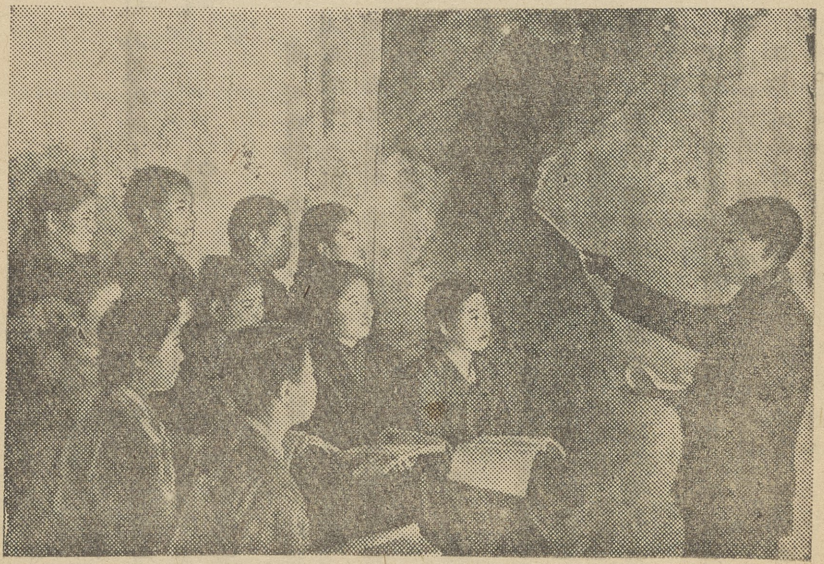
박보춘은 『우리 나라는 인민 민주주의적 국가이다』의 학습 교재 중 제一학습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학습을 지도할 때였다。

그는 학습 교재를 심중히 연구하였다。 청강자들이 제一학습에서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할 중심적 내용에 의하여 필요한 직관 자료들을 선택하였다。

이 강의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직관물은 우리 나라 지도였다。

그는 교재를 연구하면서 산맥、섬、명승지、풍부한 지하자원이 묻혀있는 곳 등을 잘 밝혀 우리나라 지도를 만들었다。 평야는 파란 색으로、수력 자원이 있는 곳은 발전소 모양으로、농사가 잘 되는 곳은 벼、조、콩등의 이삭을 그리고、공장이 많은 곳은 굴뚝을 그리고、바다에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은 고등어와 명태 등을 그렸다。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진 우리 나라 지도는 얼른 보아도 알기 쉽게 만들어졌다。 이외 세계 지도、백두산、금강산의 사진과 우리 나라의 국장 등、첫째 소제목에 해당한 직관 자료를 만들었다。

둘째 소제목에서는 고구려 시대의 고분、왜적을 반대하여 싸운 리순신 장군、그가 발명하여 완성한 『거북선』의 사진 등을 준비하였다。



그는 강의에 출연하기 三일 전에 강의안을 초급단체 위원회의 비준을 얻는다。

그의 강의안에는 직관물 리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포함되고 있었다。

그의 지난날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강의안에 직관물을 리용할데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 직관물을 리용해야 할 구절에 가서 그대로 넘어가는 례가 적지않게 있기 때문이였다。

그는 이와같이 강의에 직관물을 리용할 준비를 갖추고 제一 학습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강의하였다。

준비하였던 직관물은 모두 학습실에 붙였는데 그중 제일

많이 리용되는 우리 나라 지도를 복판에 걸었다。

그는 강의안을 펼쳐놓고 맨 처음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산천과 풍부한 자연 부원을 강의하면서 강의안에 직관물을 리용한다고 표시한 구절마다 체계있게 직관 자료들을 리용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의 위치를 강의하면서 우리 나라의 동북은 우리의 해방자이며 친근한 벗인 쏘련의 연해주와 린접하고 북은 형제적 중화 인민 공화국과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一천키로메터를 뻗어 내린 반도이라는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직관물을 리용하는 한편 우리 국토의 총 면적은 二二만七四〇평방키로 메터이며 인구는 약 三천만명이라고 그는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칠판에 이 숫자를 썼다。 청강자들은 이런 방법들을 가장 좋아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많은 숫자들과 또 이를 다른 것과 대비할 때 선전원의 한마디의 말로서는 청강자들이 즉시 기억하기 어려워 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선전원 박보춘은 칠판을 효과있게 리용하였다。

그는 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산천과 지하 자원들을 강의하는데 들어갔다。 여기에서 이미 아름답고 알기 쉽게 그려진 우리 나라 지도를 리용하였다。

맨 처음 산맥을 가리키면서 이름난 산들인 백두산과 금강산의 위치를 말하고 준비하였던 금강산의 사진을 보여 주었을 때 청강자들은 모두 아름다운 우리 나라 금강산을 기쁨에 넘쳐 유심히 보았다。 강의가 끝나자 청강자 중 금강산이 좋다는 말만 듣고 아직 가보지 못한 김금산、정춘자、박춘녀 등은『오늘 저녁 앉아서 금강산 구경을 하였구만』하고 자기들의 기쁨을 말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이 학습제목의 둘째 소제목인『우리 인민의 찬란한 문화와 빛나는 애국 전통』을 강의하였다。

수천년 전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대표적인 문화 유물들을 강의하면서 그는 로동신문에 발표된 고구려 시대의 고분을 찍은 사진을 보여 주었다。

그는 계속하여 우리 나라의 선조들은 국내의 원쑤들과 투쟁하여 승리하였다는 것을 강의하면서 그의 대표적인 직관물로 一二척의 함선과 一二〇여명의 군인을 지휘하여 五백여척의 일본 수군을 격멸한 해군 명장인 리순신 장군의 초상화와 그가 발명하여 완성한『거북선』의 도해를 리용하였다。 청강자들은 모두가 리순신 장군의 공훈에 대하여 또 그가 만든 『거북선』에 대하여 경탄하였다。 선전원 박보춘은 이렇게 강의에서 지도、그림、사진 등의 직관물을 강의에 효과있게 리용하여 청강자들의 학습 의욕을 더욱 높이였다。

청강자들은 학습회 날이면 어느 누구를 물론하고 모두가 출선 학습 장소에 모여 든다。『오늘 저녁에는 어떤 새로운 직관물이 나붙겠는가?』『선전원에게서는 무슨 새롭고 재미 있는 말이 나올까?』이렇게 청강자들의 큰 기대 속에서 학습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전 학습 과정이 활기있게 운영되고 있다。

지난날까지 학습회에 잘 참가하지 않던 문봉녀와 김상진들은 강의에서 직관물을 효과있게 리용한 때로부터 학습에 취미를 더욱 가지여 열성적으로 참가하게 되였다。 박보춘이가 지도하는 크루쇼크에는 오늘 一二명의 청강자들이 망라되고 있는 바 학습회 출석률은 평균 九八%에 달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강의에 직관물을 잘 리용할 뿐만 아니라 청강자들이 담화와 토론에서도 직관물을 효과있게 활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매개 청강자들이 담화와 토론 진행시에도 직관물을 옳게 리용하게끔 되였다。 오늘 선전원 박보춘은 이와같이 자기의 강의에서 적용하고 있는 직관물 리용 방법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현재의 경험을 더욱 살리며 그전보다 더욱 좋은 방법으로 더욱 다양하게 직관물을 학습에 리용하기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다。

청년들속에서 속출하는 창의고안

정전 방향 실험기

강원도 송배전부
전공 차 종 록 창안

강원도 송배전부 민청원 차종록이 최근에 창안한 이 실험기는 모터 조립을 잘 하며 빨리 하게 하는 기계이다.

송판으로 된 이 기계의 크기는 길이 一메터、너비 六〇센치、높이 三〇센치이다。이에 스윗찌만 넣으면 기계가 회전하면서 고이루 하나 하나의 전류 방향을 표시한다。이 전류 방향 실험기는 젊은 모터 조립공 차종록이 만들었다。그가 초급단체 총회에서 이 전류 방향 실험기를 만들데 대하여 결의한 것은 지난 九월 초였다。

차종록은 공작실에 있던 타진 변압기를 해체하고 다시 그를 고이루선으로 고아를 조립하였다。그는 여러번에 걸친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로력하여 성공하였다。

차종록의 창의고안의 결과는 매 조립공이 월 二개의 모터를 더 조립할 수있게 되였다。

한편 九월에 七개의 오작품을 내였다면 一〇월에는 하나의 오작품도 내지 않았다。그들은 이와같은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년간 계획을 一七〇%로 초과 실행할 목표 밑에 계속 투쟁하고 있다。

기관차의 각종 변

서평양 철도 공장
선반공 김 용 덕 창안

젊은 시험공 김용덕은 기관차 심장부『급기변』『분베변』『차변』『가감변』『안전변』『각지변』을 창안하였다。

이 창안은 기관차 재장 시간을 단축하며 증기 증발을 적게 함으로써 석탄을 절약하게 된다。

지난 三·四분기만 하여도 기관차 한대에서 二七톤의 석탄을 절약케 하였다。

김용덕은 이외에『피스톤 링구』를 창안함으로써 기관차의 허비석탄 재장시간 四八〇분씩 하던것을 一六〇분으로 단축시켰다。이결과 금년도 三·四분기간만 하여도 기관차 五四대에 대하여 연 二一六공수의 로력을 절약케 하였다。

김용덕은 이외에도 一〇여종의 창안을 하였다。국가는 이를 표창하여 그에게 공로메달과 국기훈장 三급을 수여하였다。

백철판 〃홈파기〃

평양 방직 기계 제작소
제침공 신 완 식 창안

이 공장에서 중요 부속품인 후라이스 강판은 날로 증대되는 공장의 수요에 만족을 줄수 없었다。공장에서는 이 애로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 전습회와 기술경험 교환회들이 자주 조직되였으며 많은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그러나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았다。신완식은 많은 고심 끝에 공장에 수다히 쌓여 있는 백철판에 시선을 돌리게 되였다。그는 三차에 걸쳐 백철판에 탄소열을 가하였다。그러나 고심끝에 만든 홈파기 한개로써는 二〇개의 바늘홈밖에 팔수 없었다。

그는 이와같은 초보적 성공을 기초로 하여 계속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그의 연구 사업은 성공하였다。

신완식은 절단한 백철판 사이를 一·五센치씩 사이를 두고 그 사이에 목탄 가루를 뿌리고 그 주위에는 빈틈없이 매질하고 一、〇〇〇도의 열을 가하였다。

탄소열을 받은 백철판은 훌륭한 강판으로 되였다。이 강판으로 만든 〃홈파기〃는 三〇〇개의 바늘홈을 팔수 있으며 그의 성능은 박강함석의 三배나 되였다。

이 〃홈파기〃는 두터이 一미리、직경 一·七미리나 되는 원판으로 되여 있으며 주위는 롭날 모양인 입바쿠로 되여 있다。〃홈파기〃를 기대에 장치한 다음 스위치를 누르면 〃홈파기〃는 빠른 속도로 회전한다。

회전하는 〃홈파기〃에 바늘을 차근 차근히 밀어주면 돌아가는 롭날과 바늘사이에 마찰로 인하여 바늘대에는 홈이 파지는데 그것은 후라이스 강판 보다 못하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신완식의 이와같은 창안은 지난 三개월간만 하여도 一四만원의 리익을 국가에 주었다。

최근의 남조선 정세

홍 림 수

미제와 리승만 역도 강점 하에 있는 남조선은 그들의 범죄적 략탈 정책과 내란 재 도발 정책으로 말미암아 수습할 수 없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혼란과 파탄에로 더욱 급속히 전락되고 있다。

미제와 리승만 역도는 남조선을 영구히 미국의 군사 기지로 만들며 남조선 인민을 최대한으로 략탈 착취하며 남조선 청년들을 미국의 값싼 대포밥으로 더 많이 끌어내며 그리하여 조선 인민을 또다시 죄악적 전쟁의 피 바다 속에 잠구려고 발악하고 있다。

놈들의 이와 같은 매국、매족 정책은 불가피적으로 더욱 심각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파멸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인민 생활의 빈궁화를 촉진시키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생활 조건의 근본적인 개선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을 일층 광범하고도 치렬하게 격발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태들은 이를 웅변적으로 설명하여 주고 있다。

테로 독재를 강화하려는 리승만 역도의 가일층의 고립

정치적 부면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하여야 할 것은 리승만 역도가 그 어느때보다도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고 있으며 심지어 남조선 지배층 내부에서까지 맹렬한 증오와 반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그것은 미제의 사촉하에서 조작한 악명 높은『헌법 개정안』이 남조선『국회』에서 명백히 부결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 억지로써 강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명백히 표시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리승만 역도는 미국 상전에게 남조선을 송두리채 넘겨주는 매국 행위와 남조선 인민들과 자기 반대파들을 더욱 혹독하게 학살 폭압할 수 있는 테로 독재를 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헌법』을 뜯어 고치려고 획책하여 왔다。

리승만 로구가 조작한 소위『헌법 개정안』의 중요 골자는『국무 장관제』『국민 투표제』『종신 대통령제』그리고『경제 조항에 관한 개헌안』등이다。『국무 장관제』란 미국식을 본받는다 하여 행정 수반으로서의『국무 총리제』를『대통령 중심제』로 뜯어 고치며 동시에『국회』로부터『내각』에 대한 인준권과 거부권을 박탈하자는 것이며『국민 투표제』란『주권의 안위』와『령토의 변경』과 같은『중대 문제』를『국민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자는 것이며、리승만『종신 대통령제』는 리승만 자신에 한하여서만 죽을 때까지『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경제 조항에 관한 개헌안』이란 『자유 경제』라는 구실 밑에 남조선의 모든 지하 자원과 산업 시설을 송두리채 미제에게 넘겨주자는 것이다。

『개헌안』의 어느 조항을 막론하고 철두 철미 봉건식 전제 군주가 되려는 리승만의 흉악한 야망이 반영되여 있다。 그 것은 『국무 장관제』가 『정부』구성에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으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국민 투표제』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에서 자기의 추악한 테로 독재를 무제한으로 강화하는데에 『민의』를 악용하려하고 있으며 리승만 『종신 대통령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자유 경제』를 운운하면서 남조선 자연 자원과 산업 시설에 대한 외국 자본、우선 미국 독점 자본의 무제한한 투자를 용허 보장하려는 것 등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흉악한 목적 밑에 조작된 『개헌안』을 괴뢰 『국회』에서 기어코 통과시키려고 리승만은 테로、박해、투옥、매수、위협 공갈 등 온갖 방법을 다하여 미치광이처럼 발악하였다。 심지어 리승만은 『개헌』안을 반대하는 자는 『반역자』이라고까지 소리치면서 『국회 의원』들이 만약 이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가장 악독한 방법으로 고문 학살하겠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그러나 작년 一一월 二七일 『국회』에서의 표결 결과 『개헌안』은 통과에 필요한 최소 한도의 찬성 표수도 얻지 못하고 부결되고 말았다。 이 사실은 남조선 『국회 의원』들까지도 제놈의 테로 독재를 무제한으로 강화하려고 날뛰는 리승만 역도를 얼마나 증오하며 반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찬성 표수의 부족으로 명백히 부결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의 조종밑에 리승만은 생억지로써 『통과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一一월 二九일부터 이를 강제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다。

리승만의 이러한 발광에 대하여 『민주 국민당』 『의원』을 비롯한 수 많은 반대파 『의원』들은 리승만을 반대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한편 새로운 『야당』을 조직하려는 공작을 추진시키고 있다。 한편 리승만의 당인 『자유당』 소속 『의원』들도 리승만의 매국 매족 행위를 규탄하고 『자유당』을 『탈당』하여 속속 반 리승만 『야당』에 가담하고 있다。

반 리승만 『야당 의원』들은 『개헌안』을 강제 실시하고 있는 리승만을 『헌법』 위반자로서 고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한편 『정부 규탄안』제출、『국회』출석 뽀이코트 등 각종 방법으로 자기들의 행동을 적극화하고 있다。

이에 더욱 당황해진 리승만은 『자유당』의 분렬을 방지하며 반대파에 대한 탄압을 백방으로 흉책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치렬한 저주를 받고 있으며 오직 미제의 피묻은 총검에 의해서만 추악한 여명을 유지하고 있는 리승만 역도가 자기의 테로 독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악하면 할수록 제놈자신의 멸망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와 리승만 역도의 야수적 테로 학살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나날이 더욱 적극화하고있다。

남조선 민족 경제의 파탄과 인민 생활의 가일층의 령락

경제 부면에 있어서는 『산업 건설』과 『경제 안정』을 목표로 한다는 미국 침략자들의 허울 좋은 『원조』가 오늘 남조선 산업을 구원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최고 리윤을 얻기 위하여 식민지적 략탈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남조선에 대하여 『원조』라는 미명하에 잉여 상품 수출의 강화、남조선 원료 원천지의 강점과 수탈、노예적 크레지트 및 채무의 설정 등 온갖 방법을 다 리용하여 령락된 남조선 민족 경제를 더욱 더 혹심하게 략탈 파괴하고 있다。

미제 략탈자들은 자기들의 충실한 주구 리승만과 더불어 『원조』에 관한 일련의 망국적 『협정』과 『조약』들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최근에는 리승만 역도에게 지시하여 『헌법』을 강제로 뜯어고치게 하여 소위 『자유 경제 체제』를 수립시킴으로써 남조선의 산업 시설들과 지하 자원에 대한 일체 리용 개발 및 관리 운영권을 더욱 공공연히 탈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권과 지배권을 일층 강화하고 있다。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지하 자원과 산업 시설 뿐만 아니라 미제 만행에 의한 남조선 인민들의 심각한 주택난을 기회로 남조선의 주택 건축 청부권 소유권까지 장악하고 있다。 주구 리승만으로부터 주택 건축 청부권 소유권을 얻은 미국 웨드 앤드 크마프 건축 회사는 얼마전에 남조선에다 건축할 주택의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五월부터 이에 착수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미제 략탈자들은 또한 남조선의 운수 시설들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직접적인 략탈과 병행하여 남조선을 미국의 잉여 상품—강냉이와 밀가루、설탕、주류、화장품 등 소비물자의 판매 시장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남조선 민족、경제에 대한 수탈을 철두 철미하게 진행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 시장에는 『원조』와 밀무역으로 도입된 미국의 잉여 상품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공장 제조소들은 조그마한 건설 자재도 얻지못하여 파괴된 채 그대로 남아있다。

미제의 『원조』물자 가격은 『한 미 합동 경제 위원회 협정』에 의하여 딸라와 남조선 화폐의 교환률에 따라 환산된 도착 가격에 판매 비용을 가산한 것을 최저 가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딸라와 남조선 화폐의 교환률은 미국의 『원조』물자 가격 뿐만 아니라 남조선의 전반적 물가의 기반으로 되여 있다。

그런데 미제는 재작년 一二월 五일에 종래 一딸라 대 六〇환이던 교환률을 一딸라 대 一八〇환으로 인상하였으며 작년 七월 리승만의 미국 방문 시에는 다시 一딸라 대 三—四백환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一二월 一三일에는 남조선 『한국 은행』을 통하여 딸라 공매 입찰을 실시하고 一딸라 대 四백 一三환 이상의 환률을 락찰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제 략탈자들이 『현실적 환률』은 五백대 一 이상이라고 벌써 여러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더 높은 환률이 다음 번에 강요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로 말미암아 남조선 물가는 폭등의 일로를 줄달음질 치고 있다。 작년 一二월 五일 현재 남조선 물가를 재작년 一二월의 평균 물가와 비교하면 쌀은 一二八%로、밀가루는 一四〇%、광목은 一三六%로、쎄멘트는 二二二%로 그리고 창호지는 三〇〇%로 각각 폭등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의 소매 물가 지수는 一九四七년도를 一〇〇으로 한다면 一九五三년 一二월에는 九、〇九二로、작년 一二월 五일에는 一三、五七一로、즉 무려 一백 三五배 이상으로 올랐다。

물가 등귀로 말미암아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은 더욱 엄중한 위협을 당하고 있다。 『대우』가 비교적 좋다는 철도 로동자들이 평균 매월 二천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더우기 一三〇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방황하고 있는 남조선에서 방제로 매달 한간에 四천환내지 五천환、월동용 연료대로

七만 七천환이 필요한 형편이므로 엄동 설한에 주택도 연료도 피복도 없이 방황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리라는 것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남조선의 모든 사태들은 앞으로 산업이 더욱 파탄되며 물가가 더욱 폭등되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암담하여지고 있다.

미제의 대포밥 되기를 강요 당하고 있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비참한 형편

조선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을 재 도발하려고 광분하고 있는 미제와 리승만 역도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을 값싼 대포밥으로 몰아 내려는 범죄적 조치들을 최근 더욱 발악적으로 취하고 있다.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반대하며 진리와 정의의 조그마한 발현이라도 거부하는 미제와 리승만 역도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을 수치스러운 괴뢰군으로 강제 징모하며 추악한 『미국식 민주주의』로 교양하기 위하여 온갖 간악한 수단을 다하고 있다. 리승만 역도는 정전 직후에 벌써 『징병』 년령을 더욱 높였으며 작년 여름부터 대학 및 고등 학교 학생들에 대한 三개월 내지 六개월 간의 집단적 군사 훈련을 강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병역 복무』 년한을 一년씩 연장하였다. 또한 놈들은 『반공산주의 교육』을 운운하면서 학교에서 량심적인 교원과 학생들을 모주리 추방하고 오직 미신과 살인 및 범죄와 노예적 굴종의 사상들을 설교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리승만 역도는 지난 一二월 一二일부터 『병역 기피자 가두 검색』이라는 것을 실시하면서 경찰, 헌병, 테로단원들을 총동원하여 가지고 거리에서 청년들을 무조건 불법 체포하여 병영에로 보내고 있다. 그것은 리승만 역도가 감언 리설과 위협 공갈의 온갖 방법을 다 썼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징병령장』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청년이 四〇—五〇%에 달하고 있다.

미제와 리승만 역도는 벌써 수차에 걸쳐 『병역 기피자 포섭 기간』, 『군대 리탈자 자수 기간』 등을 조작하고 남조선 청년들을 기만하였으나 모두다 실패하고 말았다. 여기에서 드디여 놈들은 『병역 기피자 검색 기간』을 설정하고 로골적인 테로의 방법을 쓰게 된 것이다. 남조선 청년들은 조국과 인민을 반대하는 수치스러운 대포밥이 되는 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고 있다.

남조선 학생들은 교육 기관이라기 보다 차라리 모리장으로, 련병장으로 되여버린 학교에서 형형 색색의 잡부금의 강요와 『배속 장교』들의 야만적 구타를 당하고 있다.

남조선 출판물 보도에 의하면 서울에서 중학교 一학년생 一명이 공부하려면 『당국』이 인정한 부담금만 하여도 최소한도 一〇만 一천환이 필요하며 학교가 제 마음대로 강요하는 잡부금을 합하면 一五만 내지 二〇만환 이상이 요구된다고 한다. 즉 『당국』이 『인가』한 비용은 『입학금』 三천환, 『수업료』 四천 八백환, 『사친회 입회금』 三천환, 『사친회비』 七천 二백환, 『신축비』 三천환, 『복장, 학용품, 교과서 용지대 및 호국단비』 등 八만환 합계 一〇만 一천환이며 그 밖에 학교가 강요하는 비용으로서는 『직원 후생비』, 『교원에게 대한 사례금』, 『학급비』, 『교원의 자녀들의 결혼 또는 장례비』, 『교원 김장값』, 『연료 대금』 심지어는 『학교 재단을 위한 염전 개발비』까지 포함되고 있다.

『서울 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난 가을에 서울 시내 어느

『국민 학교』에서는 六학년생의 『과외 수업비』로 매인당 四백환씩을 강요하였는데 그 돈을 내지 못한 아동들에게는 상급 학교 입학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 방학 날자를 정해 놓고서도 납부금을 전액 거두지 못했다 하여 방학 날자를 연기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어떤 학교 교원들은 간상배와 결탁하여 선생에게 금단추나 고급 시계를 선사해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매인당 二백환씩 지출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와 같이 오늘 남조선 학교는 돈벌이 기관으로 전락되고 있다.

리승만 역도는 학교들에 『배속장교』를 증가하고 수업을 페지시키면서 군사 훈련만을 강화하고 있는데 『배속 장교』들은 일제 군대보다 더 한층 야만적인 테로를 감행하고 있다. 『조선 일보』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춘천 고등 학교 『배속 장교』 리병우란 자는 동교 三학년생 황대규를 『경례』 하지 않았다는 트집으로 혹독하게 구타하였다. 이에 분격한 황대규는 『미국놈들의 노예 교육은 받지 않아도 좋다』고 웨치며 모자와 학생증을 찢어버리고 『배속 장교』에게 항거하였으며 이것을 보고 있던 다른 학생들도 황대규와 함께 『배속 장교』에게 뭇매질을 하였다. 그후 이 학생들은 괴뢰 경찰에 체포되였다. 그러나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오늘 남조선 학생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것과 또한 그들이 무엇을 반대하며 무엇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궐기한 남조선 인민들

작년 一〇월 三〇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회의는 남북 조선 전체 인민들의 진정한 의사와 한결 같은 념원을 대표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한 호소문을 발표하였으며 그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이 호소문에서 제기된 방안들을 실천하기 위한 일련의 구체적 조치들을 취하였으며 또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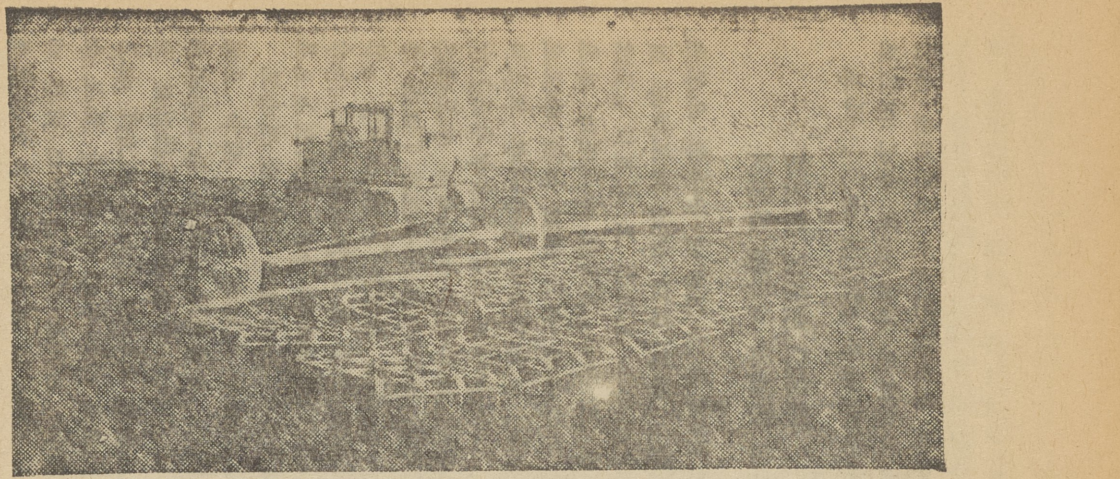
그러나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반대하는 미제와 리승만 역도는 이 진실을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음페하기 위하여 발악하는 한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는 어떠한 언론이나 행동이라도 『반역자』로써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위협 공갈하고 있다.

리승만 역도의 이러한 발악과 총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량심을 가진 애국자들에 의하여 호소문은 남조선 인민들 사이에 광범히 침투되고 있으며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부산 방송에 의하면 『경찰』과 테로단원들의 무시무시한 감시 속에서도 최고 인민 회의 호소문은 도처에서 많은 부수로 인쇄 배포되고 있으며 인민들 손에 속속 들어가고 있다. 이리하여 남조선 인민들은 호소문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궐기하고 있다.

남조선 로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로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과중한 세금과 강제 공출을 반대하여 싸보타쥬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잡부금을 페지하며 노예 교육을 반대하며 악질 교원을 배척하기 위하여 동맹 휴학을 조직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강제 징병을 반대하여 『소집령장』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남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은 자기의 생활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일상적인 투쟁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과 긴밀히 결부시키고 있다. 그것은 인민들이 조국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지 않고서는 자기들의 생활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을 체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 인민들의 이 애국적인 정당한 투쟁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 젊은 개척자들에 의하여 개척된 처녀지

새로운 땅에서

인민의 행복과 복리를 자기의 첫째 과업으로 인정하는 쏘련 공산당과 쏘련 정부는 최근 二년동안(一九五四—一九五五년)에 三,〇〇〇만 헥타르의 처녀지와 황무지를 개간하며 전국의 파종면적을 一배반으로 확장할 것을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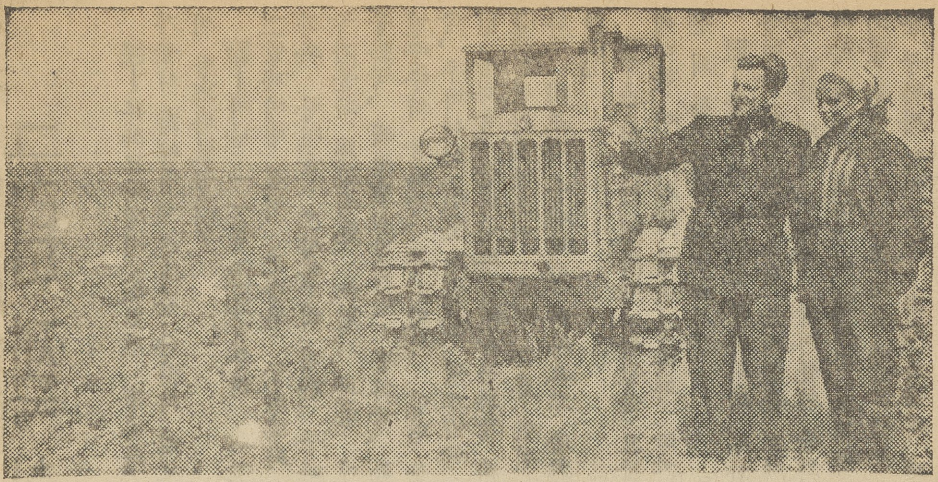
당의 호소에 호응하여 이미 수만명의 쏘련의 젊은 애국자들이 알따이와 까자흐스딴의 처녀지와 황무지로 떠나 갔다。 그들은 지체없이 사업에 착수하였다。『젊은 개간자』들은 오늘 곤난을 극복하면서 아직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고 잡초가 무성하였던 처녀지를 개간하고 새로운 곡물 쏩호즈들을 건설하고 있다。

처녀지 따날릐크에 젊은이들의 선발대가 온 것은 지난 겨울이 였다。三월이 지났으나 오렌부르그 초원에는 아직도 마지막 눈보라가 용감한 황무지 개간자들의 앞길을 가로 막으면서 휘몰아 쳤다。

五월 二일! 세대의 뜨락또르는 처녀지에 첫 보섭을 넣었다。



* 모범 녀성 뜨락또르 운전수들——엘위리 루니게 (우측) 와 밀다 따우쩨나 (좌측)



* ″따날릐크쓰끼″곡물 쏩호즈의 제 1 뜨락또르 브리가다 반장 월리쓰 루뜨콥쓰끼는 왈렌찌나 셸로바에게 새로운 기경지를 가리키고 있다

첫 뜨락또르에는 리가시에서 온 유리 위노그라도브가 올라 앉았다。 그 뒤로 레제끄넨 엠·떼·에쓰의 녀성 뜨락또르 운전사인 라이싸 셰니끄바가 뜨락또르를 운전했다。 무연한 황무지에는 굵다란 밭 이랑들이 만들어졌다。

한편으로 건설 작업들이 눈부시게 진척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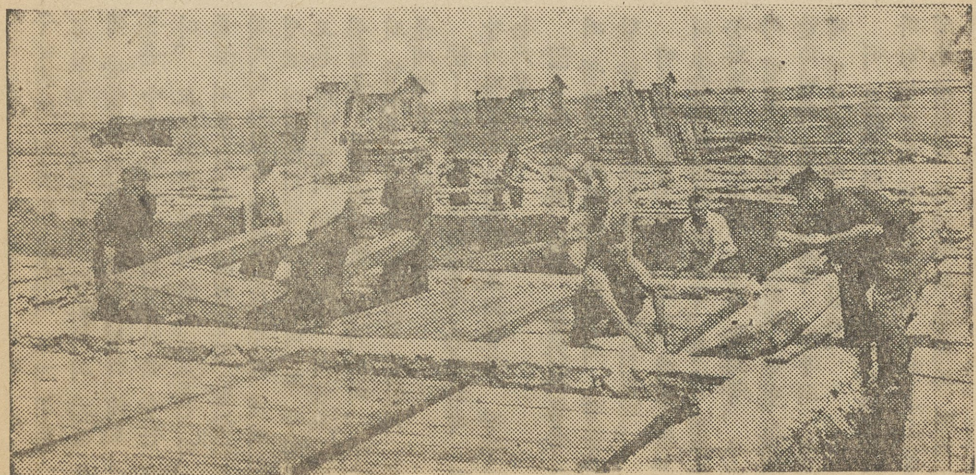
五월 五일 건설 브리가다는 첫 집터를 닦기 시작했다。 첫번째 조립된 집에는 진료소를 설치하고 두번째 집은 도서실로 만들었다。 이렇게하여 『개간자』들의 새 생활이 시작되였다。

새 땅은 온 여름을 두고 기경되였다。 어떤 땅에는 밀이 파종되였다。

이미 八월에는 三〇〇헥타르 이상의 처녀지가 개간되였다。

그들은 저녁마다 전야 작업의 진행정형을 총화하며 래일의 사업을 계획한다。 처녀지를、개간하는 눈부신 날들을 뒤이어 어느듯 첫 수확기가 닥쳐왔다。

그들은 자기들의 땀의 결정에 대하여 무한히 기뻐하며 사랑하며 너욱 행복감을 느낀다。 개간지에는 전국에서도 유명한 녀 뜨락또르 운전사들인 엘위라 루니게와 밀다 따우쩨나도 새로 도착되였다。 그들은 서로가 이 위대하고 영예로운 사업에 자기들의 온갖 정력과 지혜를 아낌없이 바치고 있다 (쏘련 청년 반팟쇼 위원회 제공)



* 곡물 쏩호즈 중앙본부에서의 집 조립

구라파 제국 회의에 대하여

문—모쓰크바에서 열렸던 구라파국가들의 회의에는 어떠한 나라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는가?

답—지난 一一월 二九일부터 一二월 二일까지에 걸쳐 진행된 구라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데 대한 구라파 국가들의 회의에는 쏘련、파란 인민 공화국、체코슬로바키야 공화국、독일 민주주의 공화국、불가리야 인민 공화국、루마니야 인민 공화국、웽그리야 인민 공화국、알바니야 인민 공화국 대표들이 참가하였으며 또한 중화 인민 공화국 대표가 옵써버의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문—구라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데대한 이 회의에 다른 구라파 국가들은 왜 참가하지 않았는가?

답—물론 이 회의는 구라파의 평화와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하는 만큼 전체 구라파 국가들이 참가하여야 될 것이였다。이 회의의 소집을 발기한 쏘련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구라파 국가들과 또한 미국에 대하여 이 회의에 참가하도록 초청하였던 것이다。 만약 초청을 받은 모든 나라들이 다 참가하였다면 이 회의는 구라파의 집단 안전 체계의 수립 문제를 토의하는 전구라파 회의로 되였을 것이다。

그러나 미、영、불 등 서부 렬강들은 구라파에서의 집단 안전 체계의 수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서구라파 국가들에 대하여서까지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이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첨가하여 지적하여야 할 것은 미、영、불을 비롯한 서구라파 국가들이 참가하지 않았다하여 모쓰크바 회의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절대로 감소되지 않았다는 그것이다。

문—모쓰크바 회의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는가?

답—다 아는 바와 같이 모쓰크바 회의는 구라파의 장래 운명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순간에 개최되였다。

즉 서부 렬강 지배층들이 서부 독일의 재무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런던 및 파리 협정을 비준시키기 위하여 발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구라파의 평화와 안전이 크게 위협당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구라파의 장래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평화 애호 인민들은 수수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모쓰크바 회의 참가자들은 미、영、불 등 서부 렬강 지배층들이 발광적으로 획책하고있는 독일 군국주의 세력의 재생을 어떻게하면 방지하며、또 구라파의 모든 인민들의 머리 우에 떠돌고 있는 위협을 어떻게하면 제거하며、구라파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문—상술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회의 참가자들은 어떠한 조치들을 강구하였는가?

답—모쓰크바 회의 참가자들은 공동적 위험에 대처하여 공동적 행동을 취할 중요한 조치들을 강구하였다。

이 조치들은 쏘련、파란 인민 공화국、체코슬로바키야 공화국、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웽그리야 인민 공화국、루마니야 인민 공화국、불가리야 인민 공화국、알바니야 인민 공화국 정부의 선언서에 명백히 제시되여 있다。

이 선언서에서 회의 참가자들은 만일 파리 협정이 비준된다면 단연코 공동 조치를 취하여 자기들의 무력과 자기들의 사령부를 조직할 것이며 또한 있을 수

있는 침략을 반대하여 자기 인민들의 평화적 로력을 보호하고 자기들의 국경과 령토의 신성 불가침을 담보하며 자기들의 방어를 보장하기 위하여 방위력을 강화함에 필요한 기타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였다。

이것은 선언서에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만일 파리 협정이 비준되면 모쓰크바 회의 참가자들은 정세를 다시 검토하고 자기들의 안전을 수호하며 구라파에서의 평화를 유지함에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모쓰크바 회의 참가자들이 규정한 이와같은 조치들은 모든 국가들의 양도할 수 없는 자위권과 유·엔 헌장에 부합되며 구라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과업과 부합된다。

문—그러면 파리 협정은 어떠한 위협을 내포하고 있으며、만일 그것이 비준되는 경우에 구라파에는 어떠한 정세가 조성될 것인가?

답—파리 협정이란 미국、영국、불란서、서부 독일、이태리、벨기、화란、룩쎔부르그 및 카나다 등 九개국의 런던 회의에 뒤이어 一〇월 二三일 파리에서 서부 독일을 급속히 재무장시키기 위하여 조작한 협정이다。

이 파리 협정은 서부 독일을 재무장시킬 것과 그리고 재무장된 서부 독일을 침략적 북대서양 뿔럭과 새로 조작되고 있는 『서구 동맹』에 이끌어 넣을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파리 협정이 비준되고 그것이 효력을 발생한다면 독일 문제를 해결하는 길 우에서와 독일을 평화 애호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국가로 통일시키는 길 우에서 새로운 더욱 큰 장애물을 만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서부 독일을 구라파에서의 새로운 침략의 근원지로 전변시키며、결국 서부 렬강들이 독일의 서부 지대를 장기간 강점하여 독일의 분렬을 영구화하게 되는 것이다。

파리 협정에 의하여 五〇만의 서부 독일 군대를 창건할 것이 예견되여 있다。

서부 독일의 복쑤주의자들은 벌써 자기들의 군대를 이 한도를 훨씬 넘어서 대대적으로 확장할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부 독일 복쑤주의 군대는 자기의 무기를 내 흔들면서 다른 인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파리 협정은 서부 독일에서 원자 및 수소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을 예견하고 있다。

서부 독일 복쑤주의자들에게 행동의 자유를 준다면 구라파의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인민들을 대량적으로 살륙하는 원자 전쟁까지 도발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파리 협정이 비준되면 구라파의 정세는 더욱 복잡하게 되며 또 더욱 긴장성을 띠게 되며、군비 경쟁을 격화시키게 될 것이다。

문—모쓰크바에서 열렸던 구라파 제국 회의는 독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구라파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앞으로 취할 어떠한 조치들을 토의 강구하였는가?

답—다 아는 바와 같이 독일 문제와 구라파의 안전 보장 문제는 호상 밀접히 련결되여 있는 문제이다。 구라파의 평화를 보장함에 있어서 독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째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다。

모쓰크바 회의 참가자들은 독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명시하였다。

독일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는 첫째로 서부 독일을 재무장시키는 계획과 그것을 서부 렬강들의 군사 집단에 이끌어 넣는 계획을 포기하여야 된다。

이것은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 로선에 따라 독일을 재 통일시키는 길 우에서의 주요한 장애물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모쓰크바 회의의 참가자들은 또한 一九五五년에 전 독일 자유 선거를 실시하며 이러한 기초 우에서 민주주의적이며 평화 애호적인 전 독일 통일 정부를 구성

함에 관하여 합의를 볼 것을 제의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구라파의 평화를 공고화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대독 강화 조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쏘련이 제의한 바와 같이 동서독일 령토로부터 점령군을 철거시키는 것은 독일의 량 지역을 더욱 긴밀하게 접근시키며 독일을 재통일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구라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원칙들에 의거하여 독일 문제에 관한 합의를 보아야 한다.

구라파를 호상 적대하는 군사 쁠럭에로 분렬시키는 대신에 구라파의 모든 나라들의 공동적 노력을 단합할 수 있는 집단 안전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집단 안전 체계에는 미국과 독일 문제의 해결에 책임 있는 기타 국가들도 참가할 수 있다.

모쓰크바 회의 참가자들은 구라파 집단 안전 체계의 창설을 계속 주장할 것을 결의하고 쏘련 정부가 제출한 『구라파에서의 집단적 안전에 관한 전반적 구라파 조약』 초안에 제시된 제 원칙들을 찬동하며 이 원칙들을 공동적으로 심의할 것을 전체 구라파 국가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들은 또한 모든 관계 국가들에게 접수될 수 있는 구라파 집단 안전에 관한 조약 초안을 작성할 목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어떠한 다른 제안도 심의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문—모쓰크바 회의의 결과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답—모쓰크바 회의는 자기 앞에 제기된 력사적인 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였다. 모쓰크바 회의의 결과는 쏘련을 비롯한 민주 진영 국가들의 굳은 단결과 위력을 시위하였으며, 또한 그들이 구라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 주었다.

모쓰크바 회의 참가자들은 자기들의 선언서에서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하였다. 『우리 나라들의 인민들은 자기들의 힘, 즉 자기들의 무진장한 원천을 확신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그처럼 평화와 사회주의의 력량이 강력하고 통일되였던 일은 없었다.

우리 인민들을 공격하고 새 전쟁을 도발하며 우리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중단시키려는 어떠한 가도도 파멸적인 반격에 봉착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인민들은 기타 인민들의 동정과 지지를 받아 침략 세력을 파괴하고 우리의 공정하고 정당한 위업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는 자기들의 안전과 평화적 로동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고수하려는 평화 애호 인민들의 확고한 결의를 표명한 것이다.

오늘 전 세계의 각국 인민들은 력사적인 모쓰크바 회의의 거대한 성과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전반적 평화와 안전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더 한층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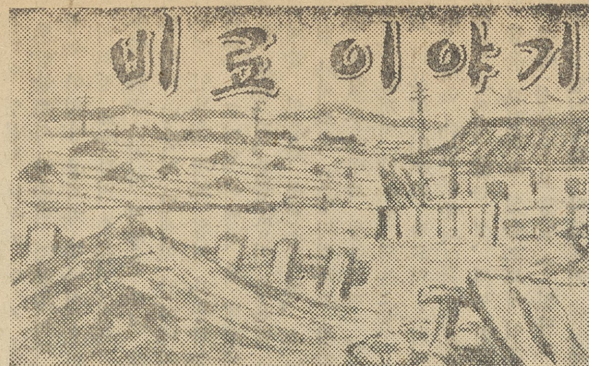
제국주의 침략 계층들은 온갖 술책을 다하여 모쓰크바 회의의 결과를 외곡하며 그의 의의를 과소평가하려고 하지만 모쓰크바 회의에서 제시된 조치들은 광범한 인민 대중 속에 더욱 깊이 침투되여 그들의 투쟁을 강력히 고무하여 주고 있다.

김 형

一九五四년 一二호 정오표

페지	단	행	정	오
二四	三	一三	二〇%로	三〇%로
五九	三	四	一五九〇년	一九五〇년

비료 이야기



김일성 종합 대학 화학 강좌장
부교수 최 윤 식

비료라함은 식물에 영양을 보장하여 주는 물질을 말합니다.

야생 식물에 있어서는 일단 흡수한 양분은 그 식물이 죽음으로써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료를 보충하여 주지 않아도 계속 식물들이 무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작물에 있어서는 작물을 수확하기 때문에 결국 양분은 탈취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경작을 계속하려면 비료를 주어야 합니다.

비료는 크게 자급 비료와 화학 비료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농촌에서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자급 비료에 대하여서만 이야기 하려 합니다.

자급 비료의 증산을 위하여 로동당 중앙위원회 一一월 전원회의 결정에는 『자급 비료 생산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강력히 추진 시키여 매년 정당 논에 二〇톤, 밭에 一〇톤 이상을 생산 시비하도록 보장할 것이다』라고 지적되여 있습니다. 당이 가르키는 바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우리는 있는 힘과 열성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분, 인뇨

우리들이 취하고 있는 음식물에 영양소가 들어 있느니 만큼 우리들이 배설하는 물질에도 많은 성분의 물질 특히 식물에 필요로 되는 물질들이 포함되여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인간이 배설하는 물질의 배설량 및 그 성분은 사람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들이 취하는 음식물의 종류 및 성질이 사람마다 서로 다른 것이며 또한 사람의 년령 로동의 정도에 따라서 또한 계절의 변동에 따라서 사람의 배설물은 그 량 및 성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배설되는 량 중에서 실제 농업에 리용되는 량은 운반시의 손실 취급 보관의 불철저한 점 등에 의하여 감소 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실제 농업에 리용되는 배설량은 한 사람에 대하여 一년 평균 三七五키로그람『二섬』정도 라고 합니다. 이 중에는 질소가 약 二、一三六그람, 린이 약 四八九그람, 칼리가 약 一、〇一四그람 들어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계산하여 보면 조선 인구를 三〇〇〇만으로 칠때 전 인구의 배설량중 실제 농업에 리용될 수 있는 량의 합계는 약 一、一二五만톤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질소 량이 약 六四一만톤, 린의 량이 一四七만톤, 칼리의 량이 三〇四만톤에까지 달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들이 배설하는 그 량은 놀랠만한 비료 성분이 포함되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질소의 량은 류안(질소 포함량 약 二〇%)의 약 三〇만톤에 해당되며 이는 대략 전쟁전 류안 생산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료 성분이 많은 인분, 인뇨를 널리 활용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저 화학 비료가 나오지 않으니까 부득이 사용한다는 격으로 생각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인분, 인뇨를 활용하기 위하여 이상에서 말한 리용할수 있는 최대량을 모아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취급은 매우 저렬한 수준에서 진행되였습니다. 이 인분, 인뇨를 리용하는데는 그대로 리용하는 경우와 가공하여 리용하는 경우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대로 리용한다는 것은 이 인분, 인뇨를 모아서 부숙(腐熟)시킨다음 액체 상태 그대로 비료로서 사용하는 것이며 가공한다는 것은 이를 류산 암몬 및 건분(乾糞) 등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액체 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선에서는 인분, 인뇨가 어떻게 리용되고 있는지를 고찰해 봅시다. 조선에서는 액체 그대로 리용되는 지방도 있지만 이는 극히

소부분이며 대부분 분회(糞灰)라고 하는 인분과 재를 섞어 두었다가 사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봅시다。

분회(糞灰)

분회는 인분과 나무가 탄 재 특히 온돌재와의 혼합물로서 일종의 건분입니다。 우리 조선에서는 이것이 냄새가 덜나며 보기 흉하지 않고 비교적 깨끗하며 수분이 적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취급하기에 지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가 병균의 번식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인분을 재와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재 대신에 다른 대용물 즉 토양、짚、산풀 등이 많은데 하필 나무를 땐 재를 인분과 섞겠습니까、그 리유로는 다음 몇 가지로서 설명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재는 매일 농가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재료의 부족을 느끼지 않는 점、재는 흡수 속도가 빠르므로 인분의 건조가 빠르며 보기에 흉하지 않는 점、재는 한번 살균되였기 때문에 취급에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점、재는 린산、칼리、석회 등을 포함하고 있음으로써 인분의 비료로서의 부족 성분을 보충할 수 있다고 보는 점、재는 강염기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병원균 및 해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분회의 비료 성분을 분석해 보면 질소분이 현저히 감소되는 것을 볼 수있습니다。 분회의 비료 성분을 분석해 놓은 시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수분이 四六·六五%、질소가 ○·三○%、질산이 ○·七九%、칼리가 一·九八% 포함되여 있으며 이것은 칼리가 제일 많은 비료임을 보여 줍니다。 이것은 재 안에 들어 있는 염기성 성분과 인분 중의 질소분이 작용하여 암모니아 형태의 질소로 손실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는 다음 시험 결과에서 더욱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실외에서 인분에 재를 섞지 않고 그대로 저장해둔 것과 인분에 재를 섞어서 저장해둔 것과 인분과 흙을 섞어서 저장해둔 것이 각각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여하히 질소분이 감소되는가를 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재를 섞어둔 인분의 질소분은 一○일이 경과 하면 六○%이상이 없어지고마는 것입니다。

인분에다 재를 섞어서 비료로 사용하는 것은 질소분이 많이 소실되는 점으로 보아 좋은 방법이라고 볼수없다는 결론을 내릴수 있습니다、

퇴비(堆肥)

우리는 자급 비료로서 흔히 퇴비를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에 있어서 퇴비는 매우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화학 비료와 병용하면 특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퇴비의 제조 원료를 연구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 원료 : 인분、인뇨、가축의 분뇨、조분(鳥糞)、누예똥、누예껍질、어비류、우모(羽毛)、동물의 시체、뼈、가축、뿔、조개류、벌레류、내장、고기 쪼각、머리털、

식물질 원료 : 음식의 폐물、사료의 폐물、짚、유박류、락엽、작물의 뿌리、산풀、해초、록비、수초(水草)、곡식의 계、주박(酒粕) 등

광물질 원료 : 부식 질토(腐殖質土)、니토(泥土)、하상토(河床土)、상하토(床下土) 재(草木灰)、조개 껍질、

퇴비의 제조는 이상과 같은 것들이 제조원료로 되는데 우리 농촌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는 소、말의 배설물을 리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에다 짚을 리용하여 썩힌 것은 극히 좋습니다、비료 학상으로 보면 퇴비에서는 가축의 배설물을 흡수 보유하여 비료 성분의 손실을 방지하며 다량의 유기 성분을 포함과 동시에 배설물의 분해를 조절하여 비료 성분을 보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제 퇴비의 비료 성분에 대하여 살펴 봅시다。 퇴비에는 수분이 약 七三·三%、질소가 약 ○·四七%、린이 약 ○·二七%、칼리가 약 ○·六七% 포함되여 있으며 이는 비료의 세가지 요소를 어느 정도 고루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림 一 참조) 그리고 퇴비 중 충분히 부숙시킨 부숙 퇴비와 그렇지 못한 신선 퇴비의 비료 성분을 분석한것을 본다면 그림 二와 같습니다。

이상 결과에서 보는바와 같이 퇴비는 충분히 썩힌 것이 썩히지 않은 퇴비 보다 현저히 질소、린분이 많습니다。

이 부숙 퇴비와 신선 퇴비는 각각 그 용도가 서로 상이합니다。

이제 우리는 퇴비가 가지는 비효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합시다。

퇴비의 비효에는 두가지 즉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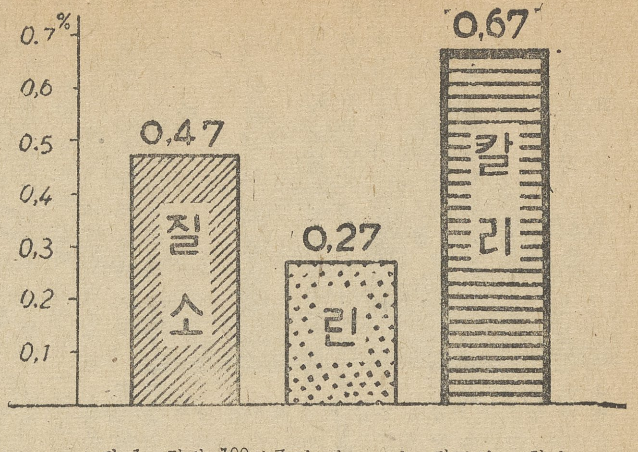


그림 1, 퇴비 100분중의 질소; 린; 칼리의 포함량

一、직접 효과

이 직접 효과라는 것은 비료를 준 후 그 영향이 생물의 생육에서 직접 나타나는 효과를 말하는데 퇴비에는 비료 성분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비료의 세가지 요소가 고루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작물、어떤 토양에도 비료로서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서서히 부패 분해되여 장시일에 걸쳐 양분을 공급하게 되는 리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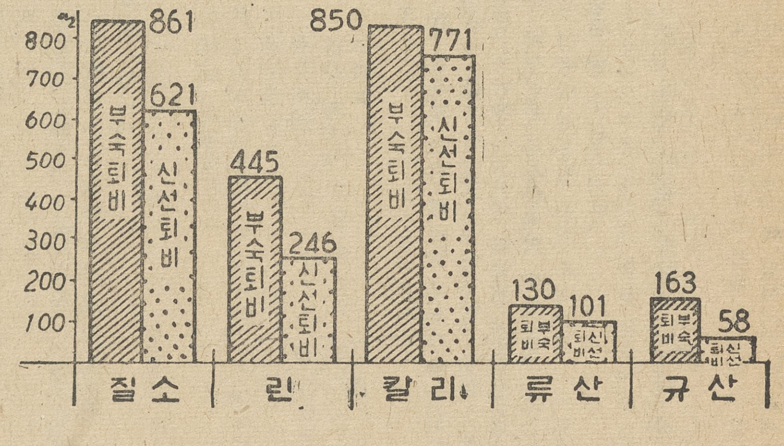


그림 2 부숙퇴비와 신조퇴비와의 비교도표

*부숙、신선 퇴비 각각 一〇〇그람 중의 비료 성분의 포함량

(一) 논、밭에서의 직접 효과

퇴비를 논밭에 주었을 때의 직접 효과를 시험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여 고찰하여 봅시다。

다음 자료는 논 밭 一단보에 대한 현미의 수확량을 키로 그람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기질 비료 즉 대두박과 퇴비를 함께 사용한 경우、무기질 비료 즉 류산 암몬과 퇴비를 함께 사용한 경우、아무런 화학 비료도 주지 않고 퇴비만 준 경우、퇴비를 주지 않고 대두박만 준 경우、퇴비없이 류산 암몬만 사용한 경우、그리고 전혀 아무런 비료도 주지 않은 경우 곧 여섯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시험한 자료입니다。

대두박+퇴비	三三二
류산 암몬+퇴비	三一八
퇴비만 사용	二五二
대두박만	三〇七
류산 암몬만	二九二
전혀 비료를 주지 않은 경우	二二二

이로부터 논、밭에 대두박、류산 암몬은 비료로서 사용할 때 퇴비를 더 보태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수 있습니다。 퇴비를 一단보에 대하여 七五〇키로 그람을 비료로서 줄때 대두박과 같이 사용하면 맨 대두박만 사용한데 비하여 八%、퇴비와 류산 암몬을 함께 사용하면 맨 류산 암몬만을 사용하였을 때의 수확량의 一〇%를 더 증수할 수 있습니다。

(二) 추파(秋播)보리에서의 직접 효과

퇴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이제 남부에서의

추과 보리에 대한 평균 수확량(kg)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대두박+퇴비	三〇八
류산 암몬+퇴비	三三四
퇴비만	二一五
대두박만	二九二
류산 암몬만	三〇六
무비료	一九一

추과 보리의 수확에서도 역시 퇴비를 대두박、류산암몬과 섞어서 사용할 때는 다른 경우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얻음을 알수 있습니다。 화학 비료와 함께 퇴비를 一단보에 대하여 七五〇키로 그람을 비료로서 사용할때 대두박만 사용할 때 보다 六%、류산암몬만 사용할때보다 一〇%의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三) 밀에서의 직접 효과

평남도와 강원도에서 실시한 것인데 一단보에 대한 수확량을 키로 그람으로 표시하면 평균 수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두박+퇴비	二三三
류산암몬+퇴비	二四九
퇴비만	一七三
대두박만	二〇六
류산 암몬만	二一八
무비료	一三七

이때 역시 퇴비를 대두박、류산암몬 등과함께 사용하면 가장 효과가 좋으며 一단보에 화학 비료와 함께 퇴비를 七五〇키로 그람 줄때 대두박만 사용할 때 보다 一三%、류산 암몬만 사용할때 보다 一五%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四) 조에서의 직접 효과

평남도、함경 남북도에서 시험한 것인데 一단보에 대한 수확량을 키로 그람으로 표시한 결과입니다。

대두박+퇴비	二一一
류산암몬+퇴비	二一二
퇴비만	一七四
대두박만	一八四
류산 암몬만	一九一
무비료	一三四

이 경우도 역시 퇴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수확이 많음을 알수 있습니다。 화학 비료와 같이 퇴비를 一단보에 대하여 一七五키로 그람 줄 때 대두박만 사용할때의 수확량의 一二%、류산 암몬만 사용할 때의 수확량의 一一%를 더 증수 할 수 있었습니다。

(五) 퇴비 단용(推肥單用)의 비효

그러면 다른 비료를 함께 사용하지 않고 퇴비만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수확에 대하여 고찰하여 봅시다。

논、밭에서	벼껍질의 무게	지수
무비료 구	八九·〇	一〇〇
퇴비를 一담보에 대하여… 一、一一二五kg 줄때	一四四·六	一六三
퇴비를 一단보에 대하여… 二、三三九五kg 줄때	二〇九·九	二三六
퇴비를 一단보에 대하여… 三、五六一五kg 줄때	二四四·〇	一七五
신선퇴비구	一五五·四	一七五

이상은 一〇년간에 걸친 시험의 평균인데 벼껍질 한철통에 대하여 그람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는바와 같이 퇴비를 많이 주면 줄수록 수확도 그에 따라 많아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림 三 참조)

그러면 벼짚을 퇴비 대신에 즉 벼짚을 퇴비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비료로서 사용할 때를 고찰해 보아도 우리는 우의 시험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즉 무비료구의 수확량을 一〇〇으로 표시한다면 퇴비 단용구에 있어서 一六二、벼짚을 사용한데는 一〇八 즉 벼짚을 사용한 것은 무비료구 보다 불과 八% 밖에 더 증수 못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시험에서 우리는 퇴비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보았습니다。 개개의 시험 결과는 이점을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퇴비는 다른 화학 비료와 잘 조절하여 병용한다면 아주 좋은 비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퇴비는 직접적으로 우와 같은 효과를 주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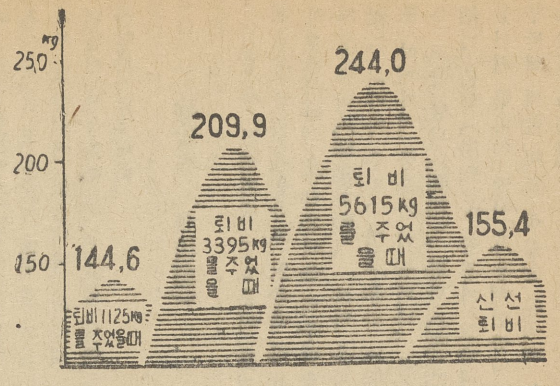


그림 3, 전혀 비료를 주지 않은 논밭에서 거둔 벼 껍질의 무게를 100으로 표시했을 때 각이한 퇴비만 준 논밭에서 거둔 벼 껍질의 무게의 비교 도표

다면 간접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줄 것인가、이 역시 많은 효과를 줍니다。

二、간접 효과

(一) 토양의 구조를 개량합니다。 퇴비는 다량의 부식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점토(重粘土)와 같이 간격이 조밀한 토양에 주면 토질이 다공질로 변하고 공기、물의 통과를 좋게 합니다。 사질토(砂質土)에 주면 토질이 조밀해지며 물、비료분에 대한 흡수력이 증가됩니다。

(二) 퇴비는 부식성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토양의 보수력 및 흡비력(吸肥力)이 증가됩니다。

(三) 퇴비는 지온을 높입니다。 지온이 높아지면 작물의 생육이 극히 좋아집니다。 지온을 높이는데는 토양의 색을 검게하는 것이 좋습니다。

(四) 퇴비는 흙색을 검게 함으로써 지온을 높아지게하며 이때에는 발아(發芽)가 순조롭게 됩니다。 실제 백색토에 심은 씨는 八일이 되여도 발아하지 않는데 흑색토에서는 八일이 된후 八〇%가 발아하였습니다。

(五) 토양의 완충 작용을 증가시킵니다。 토양의 완충작용을 촉진시킴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부식이 중요한 원인으로 됩니다。 부식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퇴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六) 농업상 유용한 미 생물을 증가시킵니다。 퇴비를 주지 않은 땅 一그람 중에는 곰팡이 八三만、기타 세균 七五〇만이 존재하는데 비하여 퇴비를 한 땅에는 곰팡이 二六九만 기타 세균 五、七六〇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유용한 퇴비는 그것을 더욱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그 손실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퇴비를 부식 분해하면 질소、린산、칼리 및 기타 유기 물질로 분해되는데 질소는 질산 암모니아 형태로 되여 손실됩니다。 따라서 가축의 분과 뇨를 따로 보존하며 퇴적을 조밀히 하며 수분 및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등 방법으로 질소의 손실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린은 분에서、칼리는 그 전량의 三분의 二가 뇨에서 나오는데 이 린、칼리는 물에 용해되여 손실될뿐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물에 용해되여 손실되지 않게 하면 됩니다。

록 비

우리가 흔히 록비라 하면 산에서 풀을 베여다 원료로 한 야생 록비를 의미하는데 실제 록비에는 재배 록비、야생 록비、두과(荳科) 록비 및 비 두과 록비등이 있습니다。 재배 록비는 비료로 되는 풀을 재배하여 록비로 만드는 것인데 비료로서는 재배 록비가 가장 좋으며 그 다음 두과 록비、야생 록비、비두과 록비의 순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재배 록비는 종류가 일정함으로써 품질이 균일하며 비료 성분이 많으며 비효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두과 식물을 재배하기만 한다면 공기 중의 유리 질소를 고정 할수 있는 리점이 있습니다。 야생 록비는 여러가지 잡초로써 구성되였기 때문에 비료 성분이 적습니다。 그러나 손쉽게 많이 얻을 수 있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이제 재배 록비 중 몇가지의 비료 성분에 대하여 고찰하여 봅시다。

一평의 면적에서 채취한 재배 록비인데 건물(乾物) 一〇〇분 중의 비료분의 포함량 즉 질소、린、칼리、석회량에 대해서 고찰한 결과를 보기로 합시다。 지방에 따라 또한 록비의 여러가지 종류 및 기타 부수 조건에 따라 비료 성분의 포함량이 다소 다르다고 보겠지

만 여기서는 부분적인 한가지의 시험적 실례로서 록비의 비료 성분의 포함량을 제시하겠습니다. 즉 헤아리벳찌라는 명칭을 가지는 록비의 일반 잡초에 대한 것을 보기로 합시다.

	질소	린	칼리	석회
헤아리벳찌	三•八二	〇•九三	三•二六	二•二〇
잡초	二•一九	〇•七五	三•二八	一•五三

헤아리벳찌는 원래 조선에 없는 종류의 것인데 그전 제정 로씨야때에 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종류 보다 내한성이 강할뿐만 아니라 록비로서의 비효가 대단히 좋다는 것이 알려져서 많이 사용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의 숫자적 자료에서 보는바와 같이 록비에도 많은 비료분이 포함되여 있으며 특히 질소분이 많지만 기타 비료 요소도 고루 포함되여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비료와 더불어 사용하면 큰 비효를 나타 낼 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유박류 (油粕類)

기름 짠 찌꺼기에 비료분이 많기 때문에 비료로서 널리 사용하고 있음은 다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유박류에는 대두박을 비롯하여 채종 유박(採種油粕), 호마 유박(胡麻油粕), 피마자 유박, 면실 유박(棉實油粕),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대두박에는 또한 원박(圓粕), 판박(板粕), 산박(撒粕), 분박(粉粕)등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에 있어서 원박이 많이 사용되였습니다. 이제 대두박에 대한 비료 성분을 분석해 놓은 결과를 고찰해 봅시다.

	원박	산박	분박
수분	一四•五四	九•四八	一〇•〇二
질소	六•四七	七•四四	六•八五
린산	一•三二	一•四九	一•三六
칼리	二•〇七	二•五〇	—

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두박에는 질소가 가장 많이 포함되여 있으며 또한 기타 요소도 상당히 포함되여 있습니다. 이 대두박과 퇴비를 병용할때는 극히 좋은 비료를 얻는 것은 이미 우에서 말했습니다. 실제 논밭에서는 류산 암몬 보다 비효가 좋으며 추파 보리에서는 약간 떨어집니다.

이제 린 비료로서 특징적인 쌀계로 기름을 짠 찌꺼기를 봅시다. 이는 가축의 사료로서도 좋습니다. 그 비료 성분 분석 성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쌀계			쌀계기름찌꺼기		
	린 四%이하	린 四―三%	린 五%이상	린 五―四%	린 四―三%	린 三%이하
수분	八•八一	七•七九	八•八九	七•九五	六•六一	七•三八
질소	二•〇六	一•六六	二•五五	二•〇九	一•七七	一•四二
린	四•六五	三•五一	五•六一	四•三六	三•五五	二•六五
칼리	二•〇〇	一•三三	—	一•四六	一•六〇	—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연 린의 포함량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쌀계는 기름을 짜서 리용하며 동시에 그 찌꺼기는 훌륭한 비료로 되는 것입니다. 기타 피마자 기름 찌꺼기에는 수분 八•九〇, 질소 四•五一, 린 二•一二, 지방 一二•七이 들어 있으며 들깨 기름 찌꺼기에는 수분 九•一二, 질소 五•六八, 린 二•七二, 칼리 一•一八, 지방 一八•九가 들어 있습니다.

어비류

생선이 비료로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비에는 생어비(生魚肥), 건어(乾魚), 착유박(搾油粕), 새우, 조개, 문어등 많이 있습니다.

어비는 비료 성분으로서 질소분이 많으며 극히 비효가 좋은 비료로 됩니다. 어비는 질소, 린 및 석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대신에 칼리가 결핍됩니다. 따라서 건어(乾魚)를 비료로 쓸때는 二〇―三〇%의 나무 재와 함께 사용하면 칼리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어리 기름 찌꺼기의 비료 성분을 보면 질소 六•九三―九•二六% 평균 八•〇二%, 린 三•六七―八•三一% 평균 六•九三%가 포함되여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바다에 의하여 둘러 싸인 나라로서 앞으로 바다 생선을 현재보다 훨씬 많이 잡을 수 있으며 이로써 해어 착유 공업등이 발달되면 그때 나오는 기름 찌꺼기는 널리 비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집니다.

이상으로 비료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비료의 효과는 비료의 성질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무리 좋은 비료일찌라도 시비하는 토양에 그 비료가 적합지 않으면 비료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비료가 류실되거나 또는 비료가 토양과 화학적으로 작용하며 비료 없는 물질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어 해설

옵써버

옵써버란 말은 라전어에서 나온 말로써 관찰자, 관측자 및 평자(評者)등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나 오늘날 우리 신문 잡지상에서 보통 옵써버라고 하면 국제적 회합에 정식 대표의 자격을 갖지않고 방청자, 감시자 또는 립회자의 자격으로써 참가하는 발언권만 가진 대표를 의미한다.

례를 들어 一一월 二九일 모쓰크바에서 열린 구라파 제국 회의에 중화 인민 공화국 대표가 옵써버의 자격으로 참가하였다는 것은 중화 인민 공화국은 구라파에 속하고 있는 나라가 아닌바 중화 인민 공화국 대표는 이 회의에 정식 대표의 자격은 없이 방청자의 자격으로써 참가하였다는 뜻으로 된다.

이니샤찌브

이니샤찌브란 말은 라전어에서 온 말로써 발기, 솔선, 창시, 창조력, 발의권 및 제기권 등등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나 오늘날 우리 출판물에서 이니샤찌브라고 하면 발기(發起) 또는 발의권(發議權)이란 뜻으로 된다.

례를 들어 一九五四년 四월에 열렸던 제네바 회의에서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 대표의 이니샤찌브가 가장 컸었다.라고 말할 때에 이니샤찌브란 말은『발의권』이란 뜻으로 된다. 또한 一九五四년 一一월 二九일에 쏘련 정부의 이니샤찌브에 의하여 구라파 제국 회의가 소집되였다.라고 할 때에 이니샤찌브란 말은『발기』라는 뜻으로 된다.

뷰로

뷰로란 말은 불란서에서 온 말로써 과, 부, 국, 성, 사무탁, 사무소 및 서기국 등등 여러가지 뜻이 있으나 오늘날 보통 신문 잡지상에서 쓰이는 뷰로란 말은 어떤 조직체 내에서 일정한 사업을 지도하며 처리하기 위하여 창설된 상설 기관을 의미하며 그것은 해당 조직체들의 규모에 따라서 넓은 의미로 혹은 좁은 의미로 쓰인다.

뷰로란 기관은 쏘련 지방당 단체 내에, 쏘련 레닌 공청 중앙 위원회 내에 또는 세계 평화 옹호 위원회, 세계 직련, 세계 민청 및 세계 녀맹 등—국제적 기구들 내에도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뷰로와 같은 기관으로서는 조국 전선 중앙 위원회 서기국을 들 수 있다.

꼼비나트

꼼비나트라는 말은 결합, 련합, 공동 등의 뜻을 가진 라전어에서 나온 말인데 현재 우리는 보통 종합 공장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꼼비나트가 보통 기업소와 다른 점은 독립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각종 기업소들을 자기 산하에 통합하고 있는 점인데 꼼비나트내에 포함되여 있는 각이한 기업소들은 서로서로 기술적으로, 력학적(力學的)으로, 경제적으로, 조직적으로 긴밀히 련결되여 있으며 한 기업소는 다른 기업소를 위하여 원료, 반제품 혹은 조성 자료를 생산한다.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의 꼼비나트의 사업은 지배인의 유일 관리제의 원칙에 의하여 지도된다.

그러나 꼼비나트라 하여 모두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제사 공장, 방직 공장, 염색 공장 등을 가지고 있는 방직 꼼비나트처럼 기술 행정에 있어서는 련계되여 있는 기업소들을 통합한 것도 있으며 또 통조림 공장, 쏘세지 공장, 식용 지방 공장 등등을 가지고 있는 육류 꼼비나트처럼 기술적으로는 호상 련계되여 있지 않거나 적게 련계되여 있는 동일한 산업 부문에 기업소들을 행정 관리상 통합한 것도 있다. 또한 지방 산업에서 소규모 생산 단위(쩨호)들을—례를 들면 지방 산업 꼼비나트 또는 세탁소, 의복 수리, 리발소 등등의 쩨호들로 구성되여 있는 공영—생활 편의 기업소 등등— 역시 꼼비나트라고 부른다.

뜨레스트

뜨레스트란 말은 국영 기업소들의 련합체라는 의미로 쓰여진다. 즉 국가가 같은 종류의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소들의 생산 및 건설

비와 기자재의 합리적 리용, 자재의 원활한 공급, 로력의 기동적 리용, 생산품의 공동적 판매 등을 목적으로 뜨레스트를 조직한다.

뜨레스트는 독립적인 경제 단위로서 유일 관리제에 기초한 그리고 독립 채산제에 의하여 활동하는 국고와는 독립된 법인(法人)이다.

뜨레스트의 유일 관리자인 지배인은 그 기업을 국가 주권의 위임에 의하여 관리하는 행정 책임자이며 독립채산제 법인의 대표자로서 독자적으로 전체 뜨레스트의 업무를 수행하며 뜨레스트 재산을 관리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수행한다.

뜨레스트 산하에는 기업소들이 있는바 이에는 재정상, 업무상 완전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 채산제에 의하여 활동하는 법인(法人)도 있으며 보통 쩨호와 같은 지위를 차지하는 완전한 독립 채산제가 아닌 것도 있다.

현재 국가 건설 위원회의 건설 뜨레스트들은 그 명칭에 있어서는 뜨레스트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단일한 기업소이다. 이 산하의 사업소들은 모두 재정 및 업무상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쩨호와 같은 것이다.

쩨 흐

쩨호라는 말은 원래 중세기 봉건 사회의 생산력 발전을 촉진시킨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수공업자들이 호상 협조하여 생산을 많이 내기 위한 조직들을 말하며 쩨호 수공업자들 중에는 기능자, 무기능자, 견습공들이 있었다. 이 쩨호는 후에 붕괴되였다.

그러나 오늘날 쓰이는 쩨호라는 말은 기업소의 내부적 단위로서 직장이라는 말에 해당된다.

즉 쩨호란 한 공장 내에서 같은 전문적인 일을 하는 부문별 직장인데 이 쩨호들에서는 일정한 공장에서 생산을 하거나 또는 생산과정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직장도 있어서 쩨호와 쩨호 사이에는 호상 밀접한 련계를 갖고 있다.

여기에 출판 공장의 례를 들면 주조 쩨호, 문선 식자 쩨호, 활판 쩨호, 제책 쩨호 등등으로 분류되여 책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 내게 된다.

쎅 토 르

쎅토르란 말은 원래 라전어에서 온 말인데 그 뜻은 수학 용어로는 선형(부채 같은 모양), 선형 원추(부채 형 원추)라는 말이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은 분야, 부문, 부, 국 등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경제학적으로는 경영 형태별 구분으로서 쎅토르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 례로서는 쏘련의 농촌 경리에는 개인농 쎅토르와 꼴호즈 쎅토르가 있다고 쓰고, 또 쏘련 공산당 력사에는 一九三六년에 와서 계급으로서의 꿀라크가 청산된 후에는 국가의 경제에서 개인농 쎅토르가 하등의 역할을 놀지 못하게 되였다고 씌여져 있다.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 부문에서도 국영 쎅토르, 협동조합 경영 쎅토르, 개인 경영 쎅토르 등으로 그 경영 형태를 분류하여 쓰이고 있다.

쎅토르는 우클라드와는 전연 다르다.

우 클 라 드

우클라드란 본래 습관, 계약, 제도 및 조직 등을 가르키는 말인데 오늘 우리가 쓰는 우클라드란 말은 경제형태 즉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기초한 생산 교환 분배의 형태를 가르키는 경제학적 술어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의 우클라드 또는 사회주의하에서의 우클라드라고 할때 이것은 각기 사회제도에 따라 특징지여지는 생산과 교환 및 분배등의 경제형태를 말하는것이다. 따라서 우클라드는 사회제도의 변천에 따라 변한다.

八·一五후 우리 나라에는 새로운 경제우클라드들이 생겼으며 낡은 우클라드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아 쇠멸하여가고 있거나 점차 새로운 것으로 개조되여 가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 있는 경제 우클라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다.

첫째 사회주의적 성질을 가진 우클라드(국유화된 산업, 운수, 체신 은행들과 농기계 및 우마 임경소, 국영 농목장, 협동조합의 제三형태)

둘째 반 사회주의적 우클라드(소비조합, 농민은행, 생산 협동조합, 농업 협동조합 二형태)

세째 비사회주의적 우클라드에 속하는 사자본주의적 경리(개인 상업, 개인 기업)와 소상품 경리(개인 농민 경제, 도시 수공업)이상의 제 우클라드중에서 결정적 역할을 노는것은 첫째, 둘째 우클라드들이다.

장편소설

『청년 근위대』에 대하여

조 맹 연



알렉싼드르 알렉싼드로위치 파제예브는 탁월한 예술적 작품들의 저자로서 또는 유명한 사회 활동가로서 쏘베트 사람들과 세계 각국 근로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알렉싼드르 파제예브는 一九〇一년 一二월 二四일에 이전의 뜨웨르쓰까야 현(오늘의 깔리닌 주)의 낌라 시에서 탄생하였다. 그의 부모는 농민 출신으로 부친은 간호장이였고 모친은 간호부였다. 그들은 진보적이고 혁명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였다. 그는 원동의 남부 우쑤리쓰끄 지방에서 자기 유년 시대와 청년 시대를 보냈다. 그의 가정은 철도로부터 一二〇 키로메터 떨어진 추구예브까라는 따이가 촌에서 살았다. 그는 울라지워쓰또끄 시 상업 학교에서 공부를 하였다. 그는 一九一八년에 쏘련 공산당에 입당하였다. 울라지워쓰또끄가 백파의 정권의 수중에 있던 공민전쟁 당시에 아·파제예브는 쏘베트 국가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지하 투쟁에 참가하였다.

一九一九—一九二一년에 아·파제예브는 빨찌산 대오에서와 다음에 붉은 군대에 들어가서 꼴챠끄와 일본 간섭군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끄론스따뜨 폭동 진압에 참가하였다가 여기에서 중상을 입었다. 공민 전쟁이 끝나자 그는 모쓰크바 광산 대학에서 공부하였는데 이 대학을 채 마치지 못하고 당 사업으로 파견되였다. 처음에는 끄라쓰노다르, 다음에는 로쓰또브—나—도누에서 당 사업을 하였다.

혁명 투쟁에서와 적극적인 사회 활동에서 볼쉐위크인 작가의 성격이 형성되고 그의 세계관이 구성되고 그는 많은 생활상 경험을 얻게 되였다.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一九二一년부터이다. 이미 一九二三년에 그는 중편 소설 『범람』을, 一九二四년에는 중편 소설 『흐름을 거슬러서』를 썼는데 이 중편 소설들은 다 공민 전쟁에 관한 쩨마들을 취급한 것이다.

一九二七년 장편 소설 『괴멸』이 나온 후부터 그는 전적으로 문학 활동에 정진하였다. 그는 로씨야 프로레타리아 작가 협회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다음에는 쏘베트 작가 동맹의 서기로 되였다.

一九三〇년에는 그의 새로운 장편 소설 『우데게 족의 마지막 사람』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이 작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자가 구상한 六책중 四책이 나왔다) 조선에서는 一九五〇년에 조쏘 문화협회에서 그 一、二책이 제一권으로 번역 출판되였다.

조국전쟁 년간에 파제예브는 『쁘라우다』와 쏘베트 보도국의 기자로서 사업하였으며 오체르끄 집 『봉쇄시의 레닌그라드』를 발표하였다.

전쟁이 끝나자 이어 작가는 자기의 훌륭한 장편 소설 『청년 근위대』(一九四三—一九四五)를 완성하고 다음에 다시 그를 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개작판은 一九五一년에 나왔다)

쏘베트 인민의 생활, 로동, 투쟁과의 밀접한 련계, 그리고 조국의 행복을 위한 적극적 사회 활동—바로 이런 것들이 작가의 생활의 행정을 특징 지어주는 것이다. 아·파제예브는 볼쉐위크당 一八차, 一九차 대회들에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위원으로 피선되였다. 현재 그는 쏘련 최고 쏘베트와 로련 최고 쏘베트의 대의원이며 쏘베트 작가 동맹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고 쏘련 내각 직속 예술 문학 부문 쓰딸린 상 수여 위원회 위원장이다.

또한 파제예브는 평화를 위한 열렬한 투사이다. 그는 세계 평화 리사회 뷰로 부 의장이

며 쏘베트 평화 옹호 위원회 상임 위원회 위원이며 『각국 인민들 간의 평화의 공고화를 위한』 국제 쓰딸린상 수여 위원회 위원이다。

파제예브는 두차례의 세계 평화 옹호대회와 일련의 평화와 문화 옹호 대회들과 대표자 회의들에 참가하였다。

파제예브의 전체 예술적 창작은 사회주의、평화、인도주의의 위대한 리념들로 일관되여 있다。 파제예브는 위대한 로씨야 및 쏘베트



아·파제예브

작가들 특히 레브 똘쓰또이와 막씸 고리끼에게서 인민의 운명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사건들、선명하고 뚜렷한 인간 성격들을 형상하는 수법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　*

파제예브가 『청년 근위대』를 창작하게 된 동기와 집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조국 전쟁 당시 어떤 종군 기자로부터 전련맹 레닌 공청 중앙 위원회에 한장의 전보가 배달되였다。 그것은 돈바쓰 지방의 한 도시 끄라쓰노돈이 해방된 직후의 일이다。 전보에는 독일군 강점 시기에 이 도시에서 사업한 지하 청년 단체의 자취가 발견되였다는 것이 전달되였다。 여기서 一九四三년 二월 중순에 공청 중앙 위원회의 책임진 대표가 현지로 파견되여 사건의 모든 사태를 조사하였다。 현지에는 자료 조사를 위한 권위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여 三권의 조사 서류가 작성되였다。 첫권에는 一五○명 이상의 증인에 대한 조사서、 둘째권에는 청년 근위대원들의 활동을 말하는 삐라들、지하 공청원증들、감옥으로부터 전달된 몇몇 수기들、서신、일기들、경찰에서 발견된 문건들이 있고 세째권에는 청년 근위대원들、그들의 친척들、증인들、그리고 그들의 살던 집들、그들의 사업이 벌어졌던 장소들의 사진들이 수록되였다。

사건의 모든 진상이 판명되고 개별적 사람들의 역할이 세심히 연구된 후에 다섯 명의 청년 근위대원들——올료그 꼬쉐보이、쎄르계이 쭐레닌、이완 젬누호브、울리야나 그로모와、류보비 쉐브쪼와에게 쏘련 영웅 칭호를 사후에 수여할데 관한 정부의 결정이 채택되였고 쏘련 최고 쏘베트 상임 위원회의 정령이 발표된다。 그러나 사실 『청년 근위대』의 五○명 이상이나 되는 다른 참가자들도 역시 헌신적인 애국자들로서 조국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쳤던 것이다。 거기서 공청 중앙 위원회에서는 청년 근위대원들의 사업과 생활에 관하여 인민에게 이야기할 것을 작가들중 누구에게 위탁하기로 하였다。

거기서 파제예브가 이 위임을 받고 다른 모든 사업을 밀어 놓고 장편 소설 집필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파제예브는 그 수다한 문건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친히 끄라쓰노돈에 떠나가서 현지에서 약 두달 동안 지내면서 산 사람들과 담화를 하고 청년 근위대원들의 일가 친척들을 방문하고 사람들에 대한 작가로서의 자기류의 조사를 하였다。 이 모든 것에 기초하여 파제예브는 사회주의적 레알리즘의 자기의 로련한 수법으로써 위대한 조국 전쟁의 개별적 사건이 갖는 전 인민적 의의와 쏘베트 사람의 인간성의 기본들을 체득한 젊은 쏘베트 세대로서의 끄라쓰노돈 청년 근위대원들의 특징들을 묘사하였다。

*　*

다음 二부로 구성된 장편 소설 『청년 근위대』의 내용을 보면 우선 제 一부에서는 독일 파시스트 군대가 一九四二년 七월 二○일에 끄라쓰노돈을 점령하게 되는 전후 시기에 있어서의 청년들을 중심으로한 이 도시의 생활이 묘사되여있다。 첫 장들에는 쓰딸린적 五개년 계획들을 완수한 쏘베트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 특히 청년들의 행복한 생활이 독일군의 강점을 앞두고 어떻게 불안에 빠지는가가 묘사되여있는데、왈랴와 울랴가 나리꽃을 꺾어들고 좋아하는데、그리고 또 다른 천진 란만한 그들의 녀동무들이 초원에 나와서 시조 이야기를 하며 바로 어젯날의 자기네 학창 시대 이야기를 하는데 때마침 밉살스러운 독일군의 비행기가 동쪽으로 날아간다。 그들은 독일군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대부분은 후퇴의 길에 들어선다。 류바와 기타 몇몇 동무는 강점 시기에 적후 활동을 하기 위하여

남고 또 다른 어떤 동무는 이러 저러한 환경 때문에 후퇴를 하지 못한다。 독일놈들과 싸울 결의만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들중 위리꼬와라는 처녀만은 그의 가정의 영향을 받아서 독일군이 들어 오는 것을 심상히 여긴다。 그는 독일놈들 밑에서 능히 잘 살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그렇게 겁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실 그는 후에 독일놈 앞에서 놈들의 앞잡이가 된다。

끄라쓰노돈으로 후퇴해 온 워로실로브그라드 주 당 위원회 지도자 이완 표도로위취 쁘로젠꼬가 후퇴를 앞두고 만반 조직상 준비를 갖추는데 후퇴하는 한 군부대의 사령관 안드레이 예피모위취가 그에게 들리여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간다。

一九四二년 七월달 햇볕이 내려 쬐는 도네쯔 초원을 헤치고 후퇴의 대렬은 동으로 동으로 흘러간다。 후퇴는 쓰라린 일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략상인 것이였으며 조직적인 것이였다。 『끄라쓰노돈 우골리』 뜨레쓰뜨 탄부들도 안드레이 왈리꼬를 선두로 굴착기들을 파괴하고 후퇴의 길에 들어선다。 후퇴의 흐름속에는 청년 남녀들인 올료그 꼬쉐보이、울랴 그로모와、와냐 젬누호브、죠라 아르쮸냔쯔、아나똘리 뽀뽀브도 섞여 있으며 올료그의 외아저씨인 꼴랴 아저씨와 외 아주머니인 마리나도 있다。 一○년제 학교들을 갓 마쳤던가 혹은 재학중인 처녀 총각들은 부모들과 정든 고향 땅을 뒤에 두고 앞으로 독일놈들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서 후퇴를 하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공청원들로서 공청 단체의 지시에 의하여 후퇴를 한다。 월로쟈 오씨무힌은 맹장염 수술을 하고 병석에 누워서 후퇴를 하지 못하는데 그의 친구인 똘랴 오를로브(《우뢰 우르릉》)는 동무를 버리고 혼자 떠날 수 없어서 후퇴를 하지 않는다。

후퇴하는 인민들의 흐름은 도중에 후위전을 하면서 후퇴를 하여가는 군대들과 만나 그들에게 길을 비껴 준다。

후퇴 조직을 완료한 쁘로젠꼬는 마지막으로 끄라쓰노돈 지구에 지하 당 단체의 지도자들로 남겨 두는 필립 뻬뜨로위취 류찌꼬브와 마뜨웨이 슐리가와 만나서 적 강점 시기에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특히 비밀 련락소 관계며 거처 관계를 확실히 다짐한다。 슐리가는 옛날 빨찌산인 꼰드라또위취 로인에 집에든가 혹은 비당원이지만 열성적으로 일한 쓰따하노브 운동자인 이그나뜨 포민네 집에 기숙하기로 정하였다。 류찌꼬브는 그때까지 기숙하고 있던 뻴라게야 일리이니취나네 집에 머물러 남기로 하였다。 그리고 쁘로젠꼬는 안해 예까쩨리나 빠울로브나(까쨔)와 같이 『가지끄』를 타고 후퇴의 길을 떠난다。

일반 인민들의 후퇴의 흐름이 도네쯔강 나룻터에 다달았을 때 건너갈 사람과 차는 많고 적기의 폭격은 심하고 거기에 또 그곳까지 내달려 온 독일군에 잡히게 되여 왈리꼬를 비롯하여 올료그를 위시한 공청원들은 다시 끄라쓰노돈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또 독일군 지나가는 놈들과 만나 값가는 물건들은 죄다 빼앗긴다。 그들은 집으로 오면서 이제 독일 강점군들과 어떻게 싸울가를 생각한다。

그런데 그동안 슐리가는 옛날 녀동무던 옐리자웨따 알렉쎄이예브나(월로쟈 오씨무힌의 어머니)네 집을 거쳐 과거에 말만 들었지 직접 알지도 못하는 소위 열성 분자인 이그나뜨 포민의 집으로 들어 간다。 그러나 사실인즉 이 자로 말하면 혁명 당시 대 지주였고 혁명 후에는 자기의 요령 있는 처세술로써 부농이 되였다가 집단 농장화 시기에 그 본성이 탈로되여 신분을 바꿔 가지고 이곳 돈바쓰 탄전 지대로 이주해 와서 거짓 열성을 부리는 그리고 독일 강점시기에는 다시 자기의 반역적 본성을 들어 내여 무고한 인민을 체포 학살한 인민의 원쑤였던 것이다。 여기서 슐리가는 파멸의 첫 걸음을 내디디였던 것이다。 영웅이 되기를、이름난 사람이 되기를 꿈꾸던 청년 쎄료쟈가 전선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 동무 쓰쬬빠 싸포노브와 더불어 시립 병원에 입원중이던 부상병들을 구출할 대책을 취하는 도중에 포민네 집에서 슐리가를 보나 이때에도 슐리가는 그와 련계를 맺지 못한다。 독일군이 끄라쓰노돈에 들어 온후 포민은 슐리가를 체포 투옥한다。

흉악한 독일군이 평화로운 쏘베트 탄부 도시인 끄라쓰노돈에 들어 왔다。 놈들은 빨찌산이 무섭다고 하며 화단의 해바라기 대까지 찍어 버리고 개들도 모주리 쏘아 죽인다。 올료그네 집에는 뽄 웬젤 장군이 일시 숙소를 정한다。 웨라 할머니、올료그의 어머니 옐레나 니꼴라예브나、꼴랴 아저씨、마리나 아주머니와 그들의 아들은 부엌에 달린 방과 헛간으로 쫓겨난다。

독일군이 끄라쓰노돈에 들어온 첫날 저녁에 쎄료쟈 쭐레닌과 그가 갓 사괴게된 처녀 왈랴 보르쯔는 놈들이 숙영으로 든 학교 다락방에 불려 올라가서 집에 불을 지른다。 독일놈들에 대한 청년들의 투쟁은 시작되였다。 그

떠나 이것은 아직 조직된 투쟁은 아니였다。

월로쟈네 집에 든 독일 놈들은 술이 취하여 월로쟈의 누이 동생 류쌰를 희롱하려고 한다。 그러나 물론 성공은 하지 못한다。

그러는 동안에 후퇴의 길에 들어섰던 사람들이 돌아 왔다。 왈리고는 앞으로 지하 조직과의 련계를 맺을 것을 올료그에게 약속한다。 그러나 왈리고는 이어 체포된다。

청년들은 월로쟈 오씨무힌을 통하여 류찌교브와 련계되는데 그것은 뻴라계야 일리이니취나네 집에 그냥 기숙을 하고 독일놈들 앞에서 놈들의 『동방회사』의 한 직장장으로 있게 된 류찌교브가 그가 믿는 월로쟈를 통하여 싸울 용의가 있고 믿을만한 아이들을 규합하자는 데서 비로소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제는 청년들은 당의 지도를 받게 되였다。 그들은 분산된 개인이 아니였고 당의 지도를 받는 집단이였다。 류찌교브와 청년들과의 련락은 극 비밀리에 지어진다。 청년들 중에서는 올료그가 그가 갖는 지식과 또한 통솔력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지도자로 추대되고 올료그는 류찌교브와 만나게 되며 거기서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받는다。 『빼르워마이까』촌 아이들도 올료그의 주위에 뭉치게 된다。

그동안 후퇴의 길은 『가지끄』를 타고 부인과 같이 떠난 쁘로쩬꼬는 빨찌산들과 함께 앞질러온 독일군과의 전투를 거쳐 비밀 련락소인 마르파 끄르세옌꼬네 집에까지 대여간다。 그때에 빨찌산 대오에서는 쓰떠호위취라는 교만하고 비겁한 청년이 락오하여 쓰떠호위취는 끄라쓰노돈에 와서 마치 자기가 상부에서 파견되여 온듯이 말하며 청년들사이에서 위신을 얻으려고 한다。 그런데 사실 과거 그의 소위 『열성적』인 공청 생활이나 그의 연설 재능 같은 것으로 하여 어느 정도의 인기를 끈다。

왈리교가 체포되기 전에 류바는 그의 부탁을 받고 니나 이완쪼와와 함께 올료그네 집엘 들린다。 그때 올료그는 니나와 알게 되며 그녀자의 집에까지도 간다。

독일군 헌병대의 감옥에 가친 슐리가와 왈리교를 석방하기 위하여 류찌교브의 지도하에 청년들의 투쟁이 벌어진다。 전선에 나갔다가 부상을 입고 락오가 되여 끄라쓰노돈에 돌아온 와냐 뚜르계니취의 발기로 그가 아는 어떤을 때의 친구들로 지금 독일군 앞에서 경관질을 하는 애들을 통해서 옥중의 슐리가와 왈리교에게 그들의 석방을 위한 투쟁이 벌어진다는 것을 시사는 했으나 그들을 석방하기 위하여서는 아직 청년들의 힘은 미약하였다。

슐리가와 왈리교가 옥중에서 주고 받는 대화는 그들의 혁명후에 걸어온 길——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길、농업 집단화의 길에서 거둔 성과들이며 그들의 인생관을 총화하고 있다。 그들과、그들과 같이 감옥에 가쳤던 애국적 인민들은 「인터나쇼날」의 노래를 부르며 놈들의 손에 의하여 생매장된다。 여기에서 제一부 三五장이 끝난다。

※ ※

제 二부는 올료그 꼬쉐보이를 비롯한 청년들——울랴 그로모와、와냐 뚜르계니취、이완 쩬누호브、쎄료쟈 쭐레닌、류바 쉐브쪼와 및 기타 끄라쓰노돈 시의 청년이 청년 근위대에 들어가는 맹세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 맹세문은 학교 시대에 시를 좋아하였고 또한 시를 발표한 올료그 꼬쉐보이와 와냐 쩬누호브가 작성한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맹세에서 원쑤를 갚기 위하여서 생명을 바칠 것을 서약하였다。

워로쉴로브그라드에서 류바가 쁘로쩬꼬를 만나서 청년 근위대의 조직을 전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얻는다。 여기서 비로소 청년 근위대는 당의 비준을 맡은 정식 지하 청년 조직으로 된다。 청년 근위대의 대장은 와냐 뚜르계니취、꼬미싸르는 올료그 꼬쉐보이、본부 위원들로는 울랴、와냐 쩬누호브、류바、쎄료쟈、쓰떠호위취 등이였다。 왈랴 보르쯔、니나 및 올랴 자매는 련락병들로 임명되였다。

그런데 류바는 쁘로쩬꼬한테서 쓰떠호위취가 그한테서 파견된 것이 아니고 바로 빨찌산 대렬에서 락오한 자라는 소식을 처음으로 듣는다。

류바는 워로쉴로브그라드에서 독일군 장교들과 교제를 맺는다。 그리고 어머니가 귀여운 딸아이를 데리고 사는 집에 주인을 정한다。 류바는 자주 비밀 련락을 위하여 끄라쓰노돈과 워로쉴로브그라드 사이를 래왕한다。

청년 근위대의 첫 삐라가 끄라쓰노돈 시에 나타난다。 이 삐라는 시국의 진상을 말하였다。 모쓰크바、레닌그라드、쓰딸린그라드가 함락되였다는 독일놈들의 거짓을 폭로하고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 주었다。 청년 근위대의 삐라들은 끌랴 아저씨가 감추어 두었던 라디오 수신기로 받은 쏘베트 보도국의 종합 보도들을 소개하였다。 삐라들은 활자로 박은 것이였다。

그사이 류바가 전하는 소식에 접한 본부 위원들은 쓰떠호위취를 본부에서 제명 처분을 한다。 또한 본부 위원회에서는 쎄료쟈의 제의

로 포민을 사형에 처할 것과 독일군이 관리하는 포로 수용소에서 우리 사람들을 석방할 것이 결정되여 이 결정은 곧 실천에 옮겨진다。

본부의 위임으로 왈랴 보르쯔는 끄라쓰노돈 마을에 가서 그곳에서 청년 근위대의 조직을 지도하고 있던 끌랴 쑴쓰꼬이를 만나 보고 올료그와의 련계를 짓는다。 끌랴 쑴쓰꼬이는 왈랴와 같이 올료그에게로 와서 맹세를 하고 정식으로 청년 근위대에 가입한다。

포민의 사형 처단이 있은 후 청년 근위대원들의 부모들의 걱정은 커졌다。 거기서 청년 근위대원들은 자기들의 활동을 부모에게 고백하든가 혹은 이리 저리 설복을 시킨다。

와냐 쩬누호브는 부락에 가 있는 자기 애인 왈랴 필라또브한테 가서 거기서 왈랴 필라또와는 청년 근위대에 가입하게 된다。 그들은 마침 그 부락에 와서 교원 노릇을 하고 있는 까쨔를 만나는데 까쨔는 지하 공작의 사명을 가지고 남편과 떨어져서 여기 와 있는 것이였다。

아나똘리를 선두로 하는 빼르워마이까 촌의 대원들이 마르파의 남편 고리졔이 꼬르니옌꼬를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시킨다。

이처럼 청년 근위대의 활동은 날로 확장되고 그 대렬은 자꾸 확대되였다。

그러는 동안에 一九四二년 一一월 七일 一〇월 혁명 기념일을 앞두고 청년들은 올료그의 집에 모여서 쓰딸린 동지의 방송 연설을 듣고 감격에 넘친다。 뒤이어 춤과 노래로써 명절을 맞이한다。 이날 저녁에는 류바와 그를 사모하는 청년인 쎄르계이 례와쇼브를 한 쌍으로 하고 왈랴 끄르쯔와 쎄료쟈를 다른 한 쌍으로 하는 청년들은 본부의 위임으로 시내 중요 건물 옥상에 붉은 기를 띠우며 다음날 아침에 이를 본 시민들은 흥분을 느끼고 자기들이 살아 있다는 것을 느꼈고 독일놈들에게는 공포를 주었다。

그후 또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청년 근위대의 남자 대원의 거의 전원 참가하에 독일로 추방하는 가축을 몰고가는 독일 졸병들의 일대를 기습하여 이를 처치하고 가축은 죽이든가 초원에 흩어지게 하였고 난가리들에 불을 질렀다。

시장 쓰따젠꼬와 교섭하여 독일군 당국의 허락 밑에 문화적 봉사라는 허울 좋은 간판 밑에 구락부를 개설하고 그를 중심으로 놈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파괴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다가 一〇월 혁명 기념일을 계기로 인민들에게 선물을 줄 목적에서 독일군의 담배를 훔쳐다 팔다가 탄로가 되여 그것이 단서가 되여 먼저 졔냐 모쉬꼬브(구락부책임자) 와냐 쩬누호브(예술 지도자) 쓰따호위취가 체포되고 고문에 못 이겨서 련속 동지들을 넘겨준 쓰따호위취의 진술로 거의 전체 대원들이 체포되게 되고 그들의 부모들이 구류되는 불행이 일어났다。

류찌교브는 와냐 등의 체포가 있은 직후에 즉시 후퇴를 하라는 지시를 청년 근위대원들에게 주고 특히 올료그와 와냐 뚜르계니취에게는 마르파가 사는 주소를 알려 주었다。 와냐 뚜르께니취는 전선을 넘으려다가 도중에 빨찌산을 조직하여 나중에 군대에 정식 편입되고 나머지 동지들은 후퇴를 하다가 실패하여 이러 저러한 경로를 밟아 체포 투옥되여 그들은 모진、악형을 당한다。 류찌교브도 체포되여 투옥된다。

그동안 쓰딸린그라드 부근에서는 붉은 군대에 격파된 군대가 서쪽으로 향하여 퇴각을 하였다。 쁘로쩬꼬는 적후에서 빨찌산 투쟁을 계속한다。 까쨔도 어려운 임무를 맡아 가지고 동분 서주 위험한 지대를 래왕한다。 붉은 군대는 퇴각하는 적군을 파죽지세로 추격한다。

체포 투옥된 청년 근위대원들과 류찌교브를 선두로 하는 볼쉐위끼들은 탄광 시굴 갱도에 처박히여 장렬한 최후를 마친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조금도 굴함이 없었다。 그들은 죽음의 길로 자동차에 실려가면서 『인터나쇼날』을 부른다。 올료그는 로웬끼라는 데서 총살을 당한다。 류바도 총살을 당하는데 독일놈들은 류바의 무릎을 꿀리우고 그의 뒷덜미를 쏘려고 하였으나 류바는 얼굴에 총알을 받았다。

마지막 제 六五장에는 쁘로쩬꼬가 끄라쓰노

돈에 돌아 와서 주민들과 함께 학살 당한 볼쉐위크들과 청년 근위대원들의 시체를 파서 따로 두개의 공동 묘를 만들고 림시 기념비를 세우는 것으로 끝난다.

※ ※

『청년 근위대』의 주인공들은 우리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로서 쏘베트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구현하고 있다.**

슐리가와 왈리교, 쁘로젠교와 류찌교브를 중심으로 하는 늙은 시대의 대표자들을 통하여 쏘베트 사람의 정신력의 기초와 쏘베트 제도의 불패성의 기초 즉 개인과 인민의 통일, 사람에 대한 신심이 보여지고 있다. 더우기나 슐리가와 왈리교가 옥중에서 주고 받는 대화는 장편 소설 『청년 근위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서 여기에는 농민들을 보다 잘 아는 슐리가와 로동자들을 보다 잘 아는 왈리교의 과거에 대한 회상담, 과오들에 대한 뼈저린 참회를 섞인 현재와 미래에 걸친 쏘베트 인민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뚜렷이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쁘로젠교와 류찌교브를 대표로하는 당 일꾼들이 젊은 세대를 어떻게 지도하는가가 소설 전편을 통하여 자세하게 되여 주고 있다.

다음에 파제예브가 커다란 사랑과 심장의 많은 피를 경주하여서 묘사한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끄라쓰노돈의 청년들 특히 올료그 교쉐보이, 울랴 그로모와, 와냐 졤누호브, 쎄르계이 쭐례닌, 류바 쉐브쪼바를 중심으로 한 쏘베트 청년의 전형적 현상들이다.

쏘베트 제도하에서 쏘베트 학교에서 一〇년간 공부를 하였으며 一六—一九년간이라는 자기 평생에 쏘베트 사회에서 교양 받은 쏘베트 청년이 독일군의 강점 시기에 자발적으로 원쑤와 싸울 것을 결의하여 당 지하 조직의 지도하에 어떻게 성과적으로 싸웠는가, 싸우다가 놈들에게 체포되여 루옥되였을 때에도 원쑤 앞에 굴함이 없이 어떻게 싸웠는가를 파제예브는 혁명적 랑만주의의 수법으로 묘사하고 있다.

장편 소설 『청년 근위대』는 풍부하고 명확하고 깨끗한 말로 씌여져 있다. 소설 중에는 말이 수다하게 길게 느껴지는 설명 부문들도 적지않게 있지만 전편을 통하여 시적 음향이 흐르는 것이 특징이다.

심리적으로 깊이 분석하는데 있어서 꾀리를 물고 잇닿아 나아가는 깊은 철학적인 감정의 로로가 서술될 때는 그것이 대화나 혹은 간결한 규정의 형태로 시 같이 읽힌다. 파제예브의 말에는 비장한 점이 많고 그 말에서는 감동적인 형용사들의 감정들과 체험들을 억세게 깊이 전달하고 있으며 파제예브의 말에는 의문문과 감탄문들의 형식들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필자는 인물들의 초상화적 묘사와 자연 묘사에 적지않은 주의를 돌리고 있다. 인물 묘사에 있어서는 특히 이마와 눈, 그리고 기타 자연 묘사는 어데까지나 그것이 사람들과 관계되여 묘사하는데 힘쓰고 있다. 그리고 얼굴 표정들이 심리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밝힘으로써 사람들의 심리 분석을 더 뚜렷하게 한다.

장편 소설 『청년 근위대』는 파제예브의 창작 생활에 있어서의 커다란 성과이며 동시에 쏘베트 문학에서도 하나의 기념비적 걸작이다. 높은 사상성과 완성된 예술적 형태가 결부되여 있는 이 작품은 쏘베트 문학 발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학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장편 소설 『청년 근위대』는 우리가 거기서 고상한 사상들을 교양받을 수 있고 조국에 대해서 애국적으로 복무하는 산 표본들을 찾아볼 수 있는 일종의 『생활의 교과서』이다.

※장편소설 『청년 근위대』 제一부는 민주청년사에서 출판 발간되였다. 제二부도 계속 출판중에 있다.



스케트를 어떻게 탈 것인가

최 능 환

동기간에 실시되는 체육과 스포츠의 종류는 다종 다양하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청년들 속에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으며 또한 청년들이 제일 즐기는 경기 종목의 하나는 스케트이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스케트와 류사한 것으로 얼음판 우를 미끌며 다녔다.

이때에는 생활상 용구로서 스케트를 리용해 왔으며 이것이 점차 유희화되고 경기화되였다.

스케트 운동은 누구를 물론하고 대중적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경기자들에게 교치성과 쾌활성을 기르며 인내성과 과감성을 배양하여 주며 청년들의 신체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킨다. 특히 이 운동은 사람들의 하지의 근골을 발달시킨다.

이 경기는 간단한 용구와 경비로써 충당할 수 있으며 하천과 호수가 있는 곳에서는 동기간 언제나 할 수 있다. 만일에 하천과 호수가 없다하여도 조금만 로력을 경주하여 논밭에 물을 넣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스케트의 종류에는 휘—갸 스케트, 스피트 스케트, 아이스 혹케의 세 종류가 있다.

휘갸 스케트—얼음에 직접 접촉해서 미끌어 가는 칼(혹은 날이라고 말함)이 빙면에 직선이 아니고 다소 호형적(孤形的)으로 만곡하여 있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여러가지 형이 있다. 높이는 한치五분 내지 두치까지가 좋다.

스피트 스케트— 이것은 경주용 스케트라고 하는것인데 특수한 구조로 되여 있다. 즉 빠레드가 빙면에 꼭 대이는 직선형으로 되여있고 칼면이 가늘게 되여있으며 휘갸 보다 전후에 두치 가량 길다. 가볍게 하기위하여 강철판을 사용한다. 종관적으로 이 스케트는 가볍고 튼튼하며 경주하기에는 좋다.

아이스 혹케—혹케 경기는 빨리 활주하여야하며 급격히 정지 및 출발하여야하며 각도를 급하게 돌려야 한다. 때문에 스케트도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스케트는 약간 엷은 칼이 알미늄의 원통에 붙어 있으며 칼은 구두와 같은 길이로 되여있고 칼끝이 곡선으로 되여 있다.

스케트의 련습법

一、전진 활주법

전진법은 량 발꿈치를 붙이고 발끝은 벌려 보통 지상에서 걷는 모양으로 천천히 보폭을 좁게하면서 걸으면 된다.

다음에는 앞으로 나간 발을 열음우를 지치면서 내보내고 뒤에 있는 발로써는 스케트 칼날을 옆으로 밀어야 한다. 발이 앞으로 미끌어 나갈때에 신속히 뒷발을 앞발에 모아 밀어 낸 힘의 여력으로 전진한다.

이와같은 동작은 좌우 교대로 익숙하게되면 전진활주는 마음대로 할수 있다. 주의할 점은 발을 교대로 옮겨 활주할때 몸을 너무 앞으로 굽히면 전진력을 죽이게 되며 몸을 위로 제치면 전진력에 의하여 넘어지게 된다. 몸은 항상 걸을때의 자세 측 자연 직립자세에서 좀 앞으로 굽히는 정도가 좋다(초보자에 대하여서이다)

二、후진 활주법

발끝을 모이고 발꿈치는 四五도 정도로 벌려 스케트를 안쪽으로 높히고 다음에 량발의 발끝 안쪽에다 동시에 힘을 주어 접근하고 있는 발을 벌리게 하면 자연 스케트는 뒤로 미끌어나간다. 그러나 벌린채 그냥 두면 다리가 벌려지면서 넘어지게된다. 때문에 안쪽으로 비트는 기분과 원을 그리는 모양으로 미끌어야 한다. 다음에는 한 발에는 힘을 주지 말고 한 발에만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동작하여 교대로 미끌어 갈 수 있다.

三、좌우로 돌아가는 방법

전진활주중 량발을 빙상에 내리고 곧바로 미끌때 왼쪽으로 돌아갈 때에는 몸 전체를 스케트와 같이 왼쪽으로 경사시키고 왼쪽 어깨를 좀 뒤로 보내고 얼굴도 좀 왼편쪽으로 향하면 자연히 왼쪽으로 돌아갈 수 가 있다. 이때에 왼편 어깨에 돌리는 힘을 급격히 하면 왼편으로 돌아가는 속도도 급격히 되며 너무 강하면 一회전하게된다. 이 요령은 자전차로 카브를 돌때의 요령과 같다.

오른편으로 돌자면 이 동작을 반대로 하면 될것이며 뒤로 전진하면서 좌우로 돌아 갈때에는 이 원리와 같다。

이와같은 세가지 동작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되면 휘─갸나 스피트 스케트를 능숙하게 탈 수 있게 되며 각종 스케트의 독특한 주법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가지 주법을 처음에는 스케트를 잘 타는 사람의 보조를 받으면서 타다가 점차 혼자서 걷미끌고 달리고 돌아갈 수 있게 되도록 충분히 연습하여야 한다。 우에서 말한바와 같은 주법을 습득하면 전문적 기술주법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몇가지 기초적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다。

스피트 스케트─이 경기를 하기 위하여서는 튼튼한 체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강력한 의지력과 민첩성을 소유하여야한다。 때문에 이 운동은 가장 청년들에게 적응한 경기종목으로 된다。

스케트로 열음을 찰때에는 급격히 차서는 안된다。 차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름을 스케트의 칼로 밀어야한다。

밀어뜨린 발의 스케트는 좀 바깥쪽 칼로 하고 한발 활주의 三분의一 이후를 안쪽 칼로 하고 바꿔이 안쪽 칼로 차서 바꿀때까지 활주 한다。

차는 것은 허리와 무릎 관절로 하고 발목으로 차서는 안된다。 또 찰때에 어름을 깎는것은 힘만 소비되고 속력을 내지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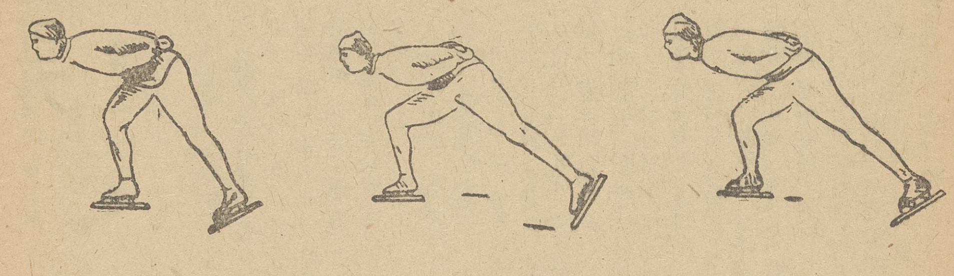
다리를 바꿔 차기전에는 발꿈치에 체중을 놓고 무릎을 더욱 굽히고 다음 차는 준비를 한다。 뒤로 찬 발은 지치는 발 뒤로부터 접근시켜 열음위에 내릴때 비껴 앞으로 밀어 내는 듯이 내리며 동시에 다른 발로 찬다。

찰때 상체 즉 체중을 다음에 밀어내는 방향에 몸을 눕히는 듯이 가져가야 한다。

몸을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조화있게 하기위하여 처음에는 팔을 흔들어 조정하고 이것이 익숙하여지면 팔을 등에 잡고 어깨만 가지고 조정하도록 련습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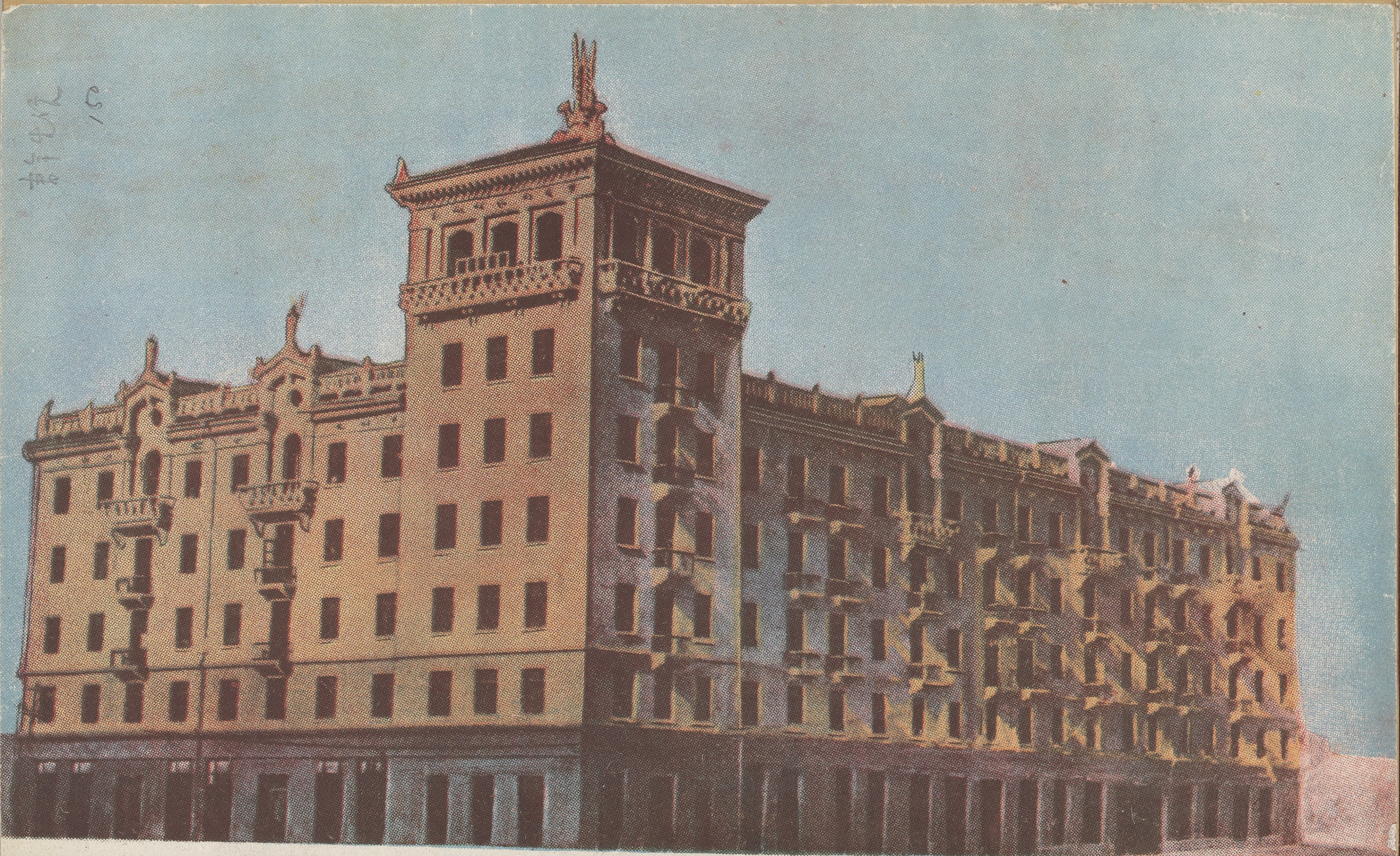
카브를 돌때에는 오른편으로 차고 왼편으로 지칠때는 왼편 스케트의 엣치를 밖으로 하고 카브에 따라 지치는 정도는 자가 있다。 오른편으로 바꿔 찰때에는 오른편 스케트를 비껴 위로 지치지말고 오히려 비껴 좌로 내밀어 엣치를 안쪽으로 해서 열음위에 내려 왼쪽 스케트의 밖 엣치로서 오른쪽 뒤에 교차하게끔 하여 차야 한다。 또 활주중에는 될수록 신체를 굽히고 허리를 낮추어야 한다。

카브의 장소에 가까워 갈때에는 왼발로 카브의 장소에 도달하도록 하여야한다。 즉 왼발이 카브에 도달하게 하고 오른 발로 카브를 지치도록 하여야한다。 무관심하게 카브에 도달하면 몸을 조정하기 곤난할때 중간에 한발 더 미끌지않아서는 카브를 돌기 어렵게 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시간의 소비와 힘의 소비를 초래하게 한다。 따라서 이것에 주의하며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 발의 교대를 빨리해서 속력을 가할 것이다。



*옳은 방법   * 스케트 앞끝으로 한다   * 다리가 충분히 구부러지지 않았다

1955년 1월 15일 인쇄
1955년 1월 20일 발행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잡지 「청년 생활」
1955년 제1호 60원
책임 주필 리 두 진
발 행 소 민 주 청 년 사
인 쇄 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총판매처 체신성 출판물 관리국
7—20184 21,000부



준공된 로동자 아빠트

중앙 제一건설 트레스트 제二 사업소 로동자 기술자들의 줄기찬 로력 투쟁에 의하여 준